

세계적 명상가 아잔 브람 스님
"자신에게 친절하고 관대해야"
5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7년 단기 4346년(음력 12월 5일) · 주간

제923호 2013년 1월 16일 수요일

생명이 있는 것을 죽이지 말라.
구도자는 항상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범망경」

종교인 과세 '도마 위'… 가시화 되나

한국 종교의 해묵은 과제 중 하나인 '종교인 과세'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가 종교인 과세에 대한 방침을 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에 이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방안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기타 소득세로 종교인에게 과세하는 제도도 논의되고 있다.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방법과 시기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내부적으로 이에 대한 논의와 검토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소득세제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종교인에게도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명제는 분명하지만 입법 예고 등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종교계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6년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가 이의를 제기하며 공론화된 종교인 과세는 당시 논의가 그다지 확대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3월, 5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잇달아 "종교인 과세 문제는 공론을 거쳐 의견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다시 불씨를 당겼다.

현재 종교인 과세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찬성'에 가깝다. 실제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가 지난해 발표한 '한국의 사회 · 정치 및 종교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종교인 소득세 부과에 대한 질문에 국민의 71%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는 2011년 조사보다 20% 이상 확대된 수치다. 종교인도 국민의 일원인 만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은 것이다.

정부 역시 조세 형평성을 맞춘다는 데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국내 종교 시설은 9만여 소이며 성직자 수는 36만 5000명에 이른다. 일부 유명 목사들을 제외하면 실제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종교인은 많지 않다.

기재부 "내부 논의 · 검토 중"
세수 효과는 높지 않을 듯
불교계 "과세 거부 이유없다"
종교들과 신중한 논의 필요

세수 효과는 크지 않겠지만, 종교인이나 종교단체의 회계 투명성 확보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세수효과가 아닌 부대비용만 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종교계 시민사회단체들은 과세는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지난해 6월 '과세와 사회적 공공성 실현'을 주제로 개최된 '열린 개혁을 위한 종교인 네트워크'의 세미나에서 잘 나타난다.

당시 불교사회정책연구소장 법응스님은 "종교가 스스로 재정을 투명하게 운용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종교인과 신자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호윤 회계사(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는 종교인들의 소득 신고를 통해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복지 혜택 ▷대형 교회 및 사찰 재정 투명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득세 부과를 위한 '종교인 법'을 제정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불교계는 종교인 과세를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종교인 과세'가 시대적 흐름이 된 것은 분명하지만 처음 시작하는 제도인만큼 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스님들의 활동을 '노동'으로 봐야 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종교가 시대 흐름을 역행할 수 없다.

스님들의 소득세 납부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중대한 사안인 만큼 중앙종무기관과 교구본사 주지 스님 등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 먼저 1월 24일 열릴 본사주지협의회 회의에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세 적용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기됐다. 조계종 총무원의 다른 관계자는 "교구본사와 일부 도심 사찰들을 제외하면 복잡한 세무행정을 할 수 있는 사찰이 거의 없다"며 "정부도 '여론몰이'식 제도 시행이 아닌 종교계와의 신중한 논의와 숙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前 조계종 중앙박물관장 범하스님 원적

7일 법랍 53세… 법구 동국대에 기증

불교 문화재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前 조계종 중앙박물관장 범하당 명종 종사가 1월 7일 원적했다. 법납 53세, 세수 66세.

빈소는 통도사 설선당에 마련됐으며 영결식은 마지막까지 소임을 봤던 통도사 성보박물관 앞에서 1월 9일 오후 2시에 엄수됐다.

장의위원장인 통도사 주지 원산스님은 영결사를 통해 "영축산의 기상처럼 의연하고 인자하신 스님의 모습을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어 허전하고 비통하다"며 "평생의 원력으로 불교성보문화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그 육신마저도 보시하여 중생들에게 위법망구의 모범을 보이셨다"고 추모했다.

문도들은 생명나눔실천본부에 사후 시신을 기증하겠다는 스님의 생전 유지를 따르기로 결의했으며, 이에 따라 스님의 법구는 동국대 경주병원으로 기증됐다.

범하 스님은 법인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1961년 사미계를 1972년 구족계를 주지했다. 이후 영축총림 통도사 등에서 수행했으며 송남원, 대성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2007년 불교중앙박물관 초대 관장과 2대 관장을 지냈다.

또한 성보문화재연구원을 설립해 전국 사찰의 불화를 집대성한 '한국의 불화' 시리즈를 완간하는 등 불교미술 분야의 연구 활성화에 큰 족적을 남겼다. 스님은 생전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목련장, 옥관문화훈장, 조계종 포교대상 문화포교부문 공로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범하 스님의 49재는 다음달 24일 오전 10시 통도사 설법전에서 봉행된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추모문 31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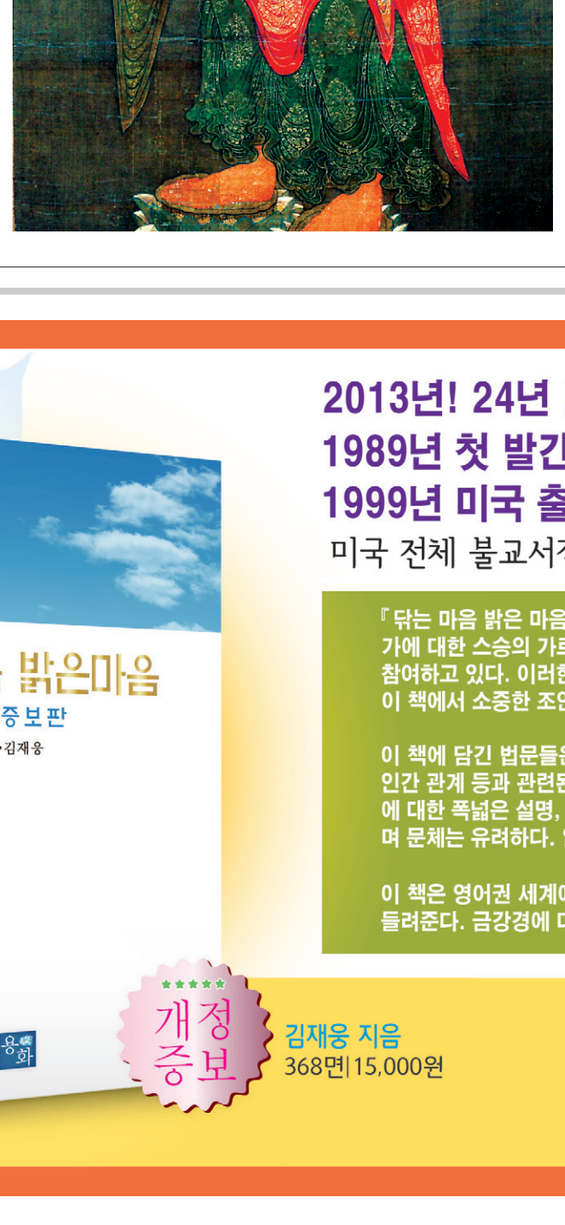
1월 7일 입적한 前조계종 중앙박물관장 범하 스님의 영결식이 9일 통도사 성보박물관에서 봉행됐다.

조계종 4 · 5급 승가고시 확정

조계종 고시위원회(위원장 지안)가 올해 4급, 5급 승가고시 일정을 공고했다. 4급 승가고시는 오는 3월 9일 중앙승가대에서, 5급 승가도시는 3월14일 제8교구본사 직지사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교육원은 2월 28일부터 3월 15일까지 직지사에서 사미 사미니계 수계교육을 진행한다. 지원자격은 2012년 3월 15일부터 9월 4일까지 교육원에 행자등록을 한 행자다.

신중일 기자



이탈리아서 고려불화 발견

국립중앙博, 해당 박물관 전수조사서

국내 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고려불화 1점이 이탈리아의 한 박물관에서 발견됐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은 1월 9일 유럽에서 국내 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고려불화 1점을 새롭게 확인했다.

부처님을 그린 고려불화는 섬세함과 아름다움이 한국 미술의 으뜸으로 꼽혀 고려청자에 버금가는 문화재적 가치를 갖고 있다. 160여점에 달하지만 대부분 해외에 유출돼 국내에는 30점 정도밖에 없다.

이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실시하는 외국박물관 한국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이탈리아 국립동양예술박물관(Museo Nazionale d'Arte Orientale)에 파견된 국립중앙박물관의 큐레이터가 소장유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다.

이번에 발견된 고려불화는 아미타불이 시선을 아래로 향하여 오른손을 내밀어 서방으로 맞이하는 모습을 그렸다. '아미타불이 와서 맞이하는 그림'이란 의미로 아미타내영도(阿彌陀來迎圖)라고 불린다.

이 작품은 광배 일부분에 약간의 보수를 가미했으나 전반적인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아미타불이 입고 있는 대의(大衣)의 붉은 색감과 찬란한 금빛의 연화당초무늬가 잘 살아 있는 수작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함께 조사한 유물 가운데 삼국시대 7세기의 반가사유상 1점도 확인됐다. 이 반가사유상은 현존 크기 8cm남짓의 소형으로 국보 83호 반가사유상과 같은 계열의 보관(寶冠)을 쓰고 있다. 온화한 얼굴 표정과 이목구비의 표현, 당당한 상반신과 옷주름 표현 등에서 삼국시대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다.

한편, 이탈리아 국립동양예술박물관은 지난 1957년에 개관한 동양미술 전문 박물관으로 2010년에 한국실을 개설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탈리아 국립동양예술관 측과 협의해 고려불화를 가까운 시일 내에 국내에 전시를 통해 소개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지관 스님 1주기 추모재

오는 1월 20일 경국사서

지난해 1월 20일 원적에 든 前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기리는 추모행사가 열린다.

가산당 지관대종사 문도회는 1월 20일 오전 10시 서울 경국사에서 지관 스님 1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한다. 다례재는 '지관 스님과 함께 한 시간은 행복과 화합의 인연이었습니다'는 주제로 열린다.

지관 스님은 당대 최고 율사였던 자운 스님을 은사로 불문에 들었으며, 동국대 교수와 총장을 역임하며 한국 금석학의 새 지평을 열었다. 또한 스님은 가산문화연구원을 개원하고 한국불교 최초의 불교대백과사전인 〈가산불교대사림〉 집필을 시작해 현재 14권까지 발간됐다.

신중일 기자

923호 INDEX

종합 2·3
조계종, 총림 ·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 제안
관음종, 올해 50년史 발간 불기 2557 성도절 행사

경주 남산을 오르다 12
신라인의 탑파신앙



연중기획-마음산업 27
'신행·포교 지도' 바꾼다

오피니언 31
불교계 자살 상담 사례



현대불교 법보시
ARS 후원
060-700-1080

2013년! 24년 만에 개정증보 발간 24년 만에 발간되는 개정증보판에는 김재웅 법사님의 최근 법문이 수록되었다.
1989년 첫 발간 불교 출판계의 스테디셀러, 마음 닦는 이들의 수행지침서가 되다.
1999년 미국 출간 영문판『Polishing the Diamond Enlightening the Mind』가 해외 불교 학자들의 극찬을 받으며 미국 전체 불교서적 베스트셀러 9위에 오르다.

『닦는 마음 밝은 마음』은 김재웅 법사님이 그의 스승 백성욱 박사님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엮은 책으로, 밝음을 향해가는 여정에서 마음을 어떻게 닦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스승의 가르침과 조언을 담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면서도 끊임없이 근심, 질병, 기근, 그리고 결국 죽음을 야기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세상에서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비록 짧은 시간이나마 내면의 평화를 창조할 수 있다면 참 보람된 일일 것이다. 그런 선의(善意)를 추구하는 독자들은 이 책에서 소중한 조언을 얻게 될 것임을 나는 확신한다.
—티베트 승왕 14대 달라이 라마 His Holiness the 14th Dalai Lama

이 책에 담긴 법문들은 구체적이고 현실 지향적이며, 수행자와 일반 불자들에게 사업 경영, 자녀 교육, 직장 생활, 적절한 배우자를 찾는 일, 경제적 안정, 그리고 원만한 인간 관계 등과 관련된 일상생활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지 보여 준다는 점에서 마음을 사로잡는다. 업(業)의 작용에 대한 폭넓은 설명, 특히 어떤 특정한 행동이 그 과보로 다음 생에 어떤 몸을 받게 되는지 보여주는 일화들에서는 많은 정신적 감화를 받게 된다. 가르침의 방식이 혁신적이며 문체는 유려하다. 읽으면 마음이 기뻐지는 책이다.
—찰스 뮬러, 일본 동경대학 교수 Charles Muller, Tokyo University

이 책은 영어권 세계에 점차 알려지고 있는 한국 불교를 위한 상당한 진전이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교훈적이고 흥미로운 일화와 자신의 스승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금강경에 대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저자는 독자들을 궁극적인 지혜와 심오한 자비의 세계로 안내한다.
—『트라이사이클』 지(誌) Tricycle

김재웅 지음
368면|15,000원

개정증보판 닦는마음 밝은마음

도서 문의 | (사)청우불교원 금강경독송회 (054)261-2231

티베트 스님의 50가지 지혜



가족들은 장날모인 사람처럼
순식간에 지나가고 말리니,
다투거나 싸우지 말거라.

가족 간의 유대는 시자에서 스치는 사람들처럼 아주 짧은 만남과도 같습니다. 짧지 않은 인생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간에 일어나는 갈등이 많습니다. 대가족은 강한 집착과 증오의 모습을, 또는 다 같이 너무나도 쉽게 다투거나 분개합니다.

한 가정에 다툼의 바람이 들이치면, 순간적으로 일어난 냉담하고 집착적인 몇 가지 생각으로 시작된 긴장은 가족 일원 중 일부를 부추겨 마치 악마에 씐 것처럼 서로 죽이거나 자살하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가족에게 친절하게 대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좋은 말과 행동 등의 본보기를 보여주세요. 그리하여 가족들의 마음을 움직여 불법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사찰에서는 많은 스님을 함께 모여 삽니다. 유대감을 느끼고 규율을 지키는 것을 매우 중요합니다. 조화로운 승가공동체는 가르침의 초석이 됩니다.

이러한 진실한 관계는 비단 승가뿐 아니라 스승과 제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완벽하게 순수한 관계를 지키고 계를 지키면 수행과정에서 오는 어떠한 장애에도 걸려 넘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 어떠한 불화나 논쟁이 있다면 이는 중대한 실수입니다. '둡첸'이란 금강승 법회가 있는 동안에 참가자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면 그 즉시 진행된 모든 법회 의식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큰 우유통에 쥐 한 마리가 빠지면 우유를 마시지 못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은 민족사에서 펴낸 〈세상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티베트 스님의 100가지 지혜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총림·총무원장 선거 대중 참여 유도

조계종 쇄신위, 총림법 ·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정 제안

조계종 종단쇄신위원회(위원장 밀운, 이하 쇄신위)가 총림법과 총무원장 선거법 변화에 대한 최종 제안을 내놨다. 총림법과 총무원장 선거법 제안 모두 지역불교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쇄신위는 1월 7일 한국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총림법'과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에 관한 제안서를 수정 · 의결했다.

이날 쇄신위를 통과한 총림법 제안에 따르면 임회 구성에 있어 임회의원의 임기를 5년으로 하고 현직 종회의원과 전직 주지, 원로, 비구니 스님(20%), 재가자(10%) 등 사부대중이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쇄신위는 총림 주지의 임기를 4년으로 명시했다. 다만 임회 구성원 2/3의 의결에 따라 불신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총림의 개념도 확대했다. 선교율 관련 기관을 종합적으로 갖추는 기존 구성과 달리 교구 내 수말사에 관련 기관을 분산 대치 할 것을 제안했다. 교구본사는 대정부 관계, 사부대중 조작화 지역활동을 담당하고 율원, 강원, 염불원의 대안으로 행원이나 자비원 등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출가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기존 총림의 구성 요건인 선원, 강원, 율원, 염불원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데 기인하고 있다. 현대적 총림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의미다.

관심을 모았던 총림 주지 선출에 대해서는 임회가 총림주지를 복수추천하고 방장이 지명하는 방식과 방장이 추천하지만 임회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총림법
방장 권한 축소에 공감
임회 구성 민주화 중점

총무원장 선거법
'선추천 후선출'로 가닥
비구니 · 재가 참가 확대

향후 과제는
여법한 대중참여 확대가
총림 · 선거법 실행 과제

총무원장 선거법에 대해서 쇄신위는 '선추천 후선출' 제도를 제안했다. 직선제 역시 함께 제안됐으나,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렵다는 데 의견을 함께해 '선추천 후선출' 제도 제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선추천 후선출' 제도는 종단의 공신력 있는 인사와 종헌종법기구, 공직자 등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후보를 복수 추천하면 중앙종회, 본사 주지, 교구종회 등으로 선거인단을 꾸려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쇄신위원들도 대부분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쇄신위원 지환 스님(기본선원장)은 "매우 발전적인 제안이다. 하지만 교구종회에는 선교율 대표들과 비구니, 재가자까지 모두 참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원로의원 월탄 스님도 "교구본사 주지가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선추천 후선출' 제도는 이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통과된 쇄신위의 제안서는 총무원과 중앙종회에 제출됐으며, 총무원은 이를 바탕으로 오는 3월 중앙종회에 법령 개정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 같은 쇄신위의 법령 개정 제안은 사부대중 참여하는 임회와 교구종회를 구성을 추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총무원-본사-말사라는 수직적 행정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점도 큰 의의다.

쇄신위 소위원장 도법 스님은 7일 간담회에서 "총림법 개정은 사부대중 참여하는 임회를 구성하는 것이고,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은 교구종회를 민주적으로 만들자는 것"며 "이를 통해 지역불교가 책임감을 가지고 종무행정을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침체된 지역불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의미를 밝혔다.

하지만 교구종회에 비구니 스님, 재가자 등을 참여하는 것은 교구법, 지방 종정법 등의 후속 법령을 개정해야 가능한 일이어서 상당한 시일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총림법과 총무원장 선거법의 성패는 토대가 되는 후속 법령들의 개정에 달려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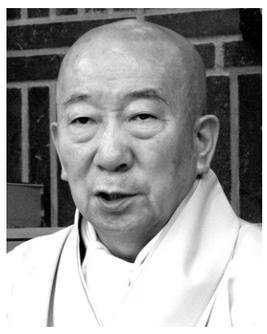
중앙종회 부의장 법안 스님은 "총림법은 그간 꾸준한 논의가 있던 만큼 3월 종회 상정은 무난할 것"이라면서 "총무원장 선거법은 후속 법안 논의까지 포함해 늦어도 9월 종회까지 성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7차 회의에서는 쇄신위원장 소임 사의를 밝혔던 밀운 스님(원로의장)이 위원들의 요청으로 계속 위원장직을 맡기로 결의됐으며, 쇄신위원이었던 주경 스님이 기획실장 임명됨에 따라 원로의원 혜승 스님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종단 50년史 발간…10월 학술대회

인터뷰–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깨달음'은 불교 수행자라면 누구나 꼭 한번 평생에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이자 과업이다. 대한불교 관음종이 이 '깨달음'을 주제로 올 10월경에 책을 편찬하고 학술대회를 열 계획이다. 또한 종단 복지원년을 표방하며 사회복지법인 서울복지원과 종단 직할사찰인 선계사와 연계한 복지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은 1월 9일 서울 숭인동 묘각사 내 총무원 접견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를 골자로 한 신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홍파 스님은 "부처님의 정법을 펼치는 우리 불교는 21세기에 꼭 필요한 종교가 돼야 대중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깨달음'을 향한 꾸준한 정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로 잡았으며, 국내외 30여 학자들에게 고견을 들어 결과물을 책으로 묶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파 스님은 "개인적으로는 올해가 불교계에 몸담은지 50주년이 되는 해인만큼 행장을 통해 관음종의 50주년 종단사를 책으로 펴낼 예정"이라며 "아울러 올해로 10년째인 외국인 템플스테이는 2002년 월드컵 당시 부족한 숙박시설의 일환으로 시작했지만 매년 1천여명 이상이 참가할 정도로 인기가 높아 10년을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역시 책으로 출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부모가정 대상 힐링캠프
복지원 미혼모 시설 마련
사이버 법당 · 군포교 주력
올해 예산 40억여 원 확정

소외된 이웃을 위한 복지사업도 다채롭게 진행된다. 홍파 스님은 "사회적으로 이혼이나 미혼모 가정이 늘고 있는 추세라 한부모가정에 대한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다"며 "그동안 푸드뱅크 사업에만 치중했던 서울복지원에 2억5천여만원의 종단 지원금을 투입해 90여 한부모가정 자녀를 위한 힐링캠프를 개최하고 철원 선계사에 미혼모를 위한 쉼터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관음종은 철원 지역의 육군 3사단과 자매결연을 맺어 지속적인 군포교 활동도 펼친다. 또한 대중포교를 위해 스마트폰과 연계한 사이버법당 마련, 서울불교문화대학의 활성화도 꾀하며, 도제양성을 위한 수계산림과 재교육프로그램도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관음종 중앙종회는 제50차 회의를 열어 40억 1500만원을 올해 사업 예산으로 확정했다.

김주일 기자

본사 총림 추진 본격화

신흥사, 7일 총림 지정 결의

제3교구본사 신흥사가 '총림' 지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신흥사(주지 우송스님)는 1월 7일 설법전에서 제1차 교구종회를 열고 오는 3월 개최될 예정인 제193회 중앙종회 임시회 통과를 목표로 '설악총림' 지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신흥사 주지 우송스님은 교구종회 인사말에서 "신흥사는 한국 간화선의 대표적인 수행도량으로서 총림 지정의 당위성은 충분하다"며 총림 지정 의지를 피력했다. 신흥사는 향성선원과 무금선원을 운영중인 만큼 빠른 시일내에 강원과 율원 등을 개원해 총림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요건을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흥사는 이날 설법전에서 불기 2556년도 동안거 포살법회를 봉행했다.

한편, 조계종 총림실사위원회(위원장 원학)는 15일부터 18일까지 덕숭, 해인, 영축, 고불, 조계총림 등 5대 총림과 지난해 새롭게 총림으로 지정된 동화사, 쌍계사, 범어사 등 총림 8곳을 직접 방문해 총림 실사를 진행한다.

신중일 기자

세계 침구 한의대학, 중국1위 중의대학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특차 모집

1. 모집요강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영문)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석사과정	3년	1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신문, 영어학 등

2.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특 징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한국식사 제공
· 군입대 연기가능
· 현지 생활 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관리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4. 원서 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 2013년 1월 30일

5. 문의처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 511-2026~7, 02) 511-1080
· 팩스 : 02) 511-20258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남 경 중 의 학 대 학
(南京中醫學大學) 02)511-1080,2026

중국 남경

중 · 고생 조기유학

1. 입학대상
· 초등학교 5학년 – 고등학교 2학년

2. 제출서류
· 가족등본, 여권, 여권용 사진7매, 최종재학증명서

3. 제출기한
· 2월 27일까지

4. 유학생특전
· 호텔기숙사,한식제공, 3월 어학후 9월 입학, 고교졸업 후 대학입학 보장
1년내 신 HSK(중국어 수평고사 : 4, 5급 보장)

5. 출발일자
· 3월 8일

6.한국상담처
· 02) 511-2026,2027, 010-4552-5281

인터넷홈페이지 : **www.njsdfx.co.kr**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새벽별 아래 정각 이룬 부처님처럼…

전국 사찰, 불기 2557년 성도재일 행사

음력 12월 8일 성도재일은 부처님오신 날과 출가재일, 열반재일과 더불어 불교의 4대 명절 중 하나다. 싯다르다 태자가 6년간의 고행 끝에 정각을 이뤄 부처님이 되심을 축하하는 날이다. 성도재일은 석가모니 부처가 깨달은 진리의 세계를 인류에게 직접 전하는 출발점이며, 나아가 누구나 수행하면 부처가 될 수 있음을 몸소 증명한 날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불자들은 성도재일 기려 법회와 철야 수행정진을 봉행한다.

불기 2557년 성도재일에도 다양한 법회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전국 사찰들은 성도재일 전날인 1월 18일과 성도재일인 1월 19일 부처님의 정각의 뜻을 기리며 철야정진에 들어간다.

자체적인 수행 주간을 선포하고 정진과 기도에 들어가는 사찰들도 있다. **서울 신정동 국제선센터**(주지 법정)은 14일부터 18일까지를 특별 수행기간으로 삼고 소참법문과 참선실수를 진행한다. 18일에는 참선과 신묘장구대다라니 108독 등 철야용맹정진과 유미죽 공양이 이뤄진다.

서울 불광사(회주 지홍)와 **인천불교회관**(주지 일지), **청주 용화사**(주지 각연)도 12~18일을 정진 주간으로 삼고 기도와 수행 정진을 진행하며, **수원 수원사**(주지 성관)는 13~18일 보현행원품 특강 및 참선실수를 연다.

대구불교사원주지연합회(회장 경희)는 '대구 성도절 기념법회'를 19일 오후 2시 대구시민체육관에서 봉행한다. 이날 성도절 기념법회는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의 법어를 비롯해 장학금 전달, 육법공양, 법성도 요잡 등이 진행된다. 또한 미국 햄프셔대 교수 혜민 스님의 힐링콘서트도 열린다.

18~19일 절마다 철야정진
일주일 정진 주간 수행
자체 뮤지컬공연도 눈길

대전 비구니 청림회(회장 성련)는 20일 오후 2시 충남대 정신화국제문화회관에서 문화예술제를 개최한다.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문화예술제는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의 초청법문과 승무 공연, 신명풍무악, 청림회 합창단의 공연이 선보여 진다.

평택 명법사(주지 순형)는 18, 19일 양일에 걸펴 성도재일 법회를 봉행한다. 18일은 학생회의 뮤지컬 보현행원 공연을 비롯해 행복을 발원하는 인등기도, 신행수기 발표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지며 19일에는 요가와 참선, 예불이 명상이 진행된다.

이에 앞서 범어사와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수진)는 13일 해운대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성도재일 기념 법회와 '도전 범종을 울려라' 퀴즈대회를 개최했다. 서울 강북구 불교사암연합회(회장 수암)도 14일 오후 2시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서 성도절 연합법회를 열고 문화행사와 자비나눔 쌀 전달식을 진행했다. **신중일 기자**

사회적기업 창업 아카데미 열린다

불교사회적기업지원센터 25일 4기 강좌 개최

날마다 좋은날(이사장 이기흥) 불교사회적기업지원센터는 1월 25일 저녁 6시 중앙신도회 전법회관 선운당에서 불교계 사회적기업 창업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4기 강좌는 최근 사회적기업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창업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맞춰 현장 중심의 맞춤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불교계 유무형의 자산 활용법과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는 과정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25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2월 28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진행된다. 강의시간은 저녁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3시간이며 1박 2일 워크숍을 통해 현장 교육도 진행된다. 총 12강좌에 수강료는 20만 원이며 참가신청은 1월 8일부터 메일이나 방문신청 가능하다. 수강인원은 약 40명이다.

한편, 2012년 2·3기 아카데미 수료생 중 (주)한지수의, (주)행복한울타리는 사회적기업의 창업을 위한 법인설립을 마치고 12월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진입하는 성과를 냈다.

2012년 11월 14일 불교사회적기업네트워크 데이 행사에서 판매부스를 마련하여 불자들에게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홍보,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해 높은 호응을 얻은바 있다.

이찬영 불교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센터장은 "불교계 사회적기업의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장경사, 점유권 항소심도 승소

서울고법 국가 항소 기각

국유지를 20년 넘게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다면 사찰소유지가 된다는 법원 항소심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김용석)는 지난 10일 경기도 광주 장경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피고인 국가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1965년 장경사는 현재 대웅전이 위치한 토지들을 매수해 현등대, 9층석탑, 대웅전 등을 건립해 사용해 왔지만 1988년 토지 1필지가 연유를 알 수 없이 국가 소유의 보존등기가 됐다. 이후 국가는 사찰의 토지 점유 및 사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사찰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지난 2011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장경사에 1억원이 넘는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고지를 하면서 송소로 이어졌다.

장경사는 지난 2012년 7월 열린 1심 판결에 이어 이날 항소심에서도 승소함에 따라 전통사찰이 전통사찰보존지를 확보하고 수행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장경사 주지 경우스님은 "1심과 2심 소송에서 예부터 사찰이 존재해왔던 토지에 대한 점유권이 인정되어 기쁘다"며 "이와 유사한 사례로 과도한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는 전통사찰에 좋은 판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

조계종 의식개혁 키워드는 '구세대비'

결사추진본부, 범어사서 좌담회

조계종이 자비로 세상을 구한다는 '구세대비(救世大悲)'의 실천을 통해 한국불교 중흥과 종단을 발전시켜나간다는 의식개혁의 큰 틀을 마련했다.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본부장 도법) 자문위원회 의식개혁소위원회(이하 의식개혁소위원회)는 지난 8~9일 부산 범어사 주지실에서 '바람직한 불교관과 실천론 확립'을 위한 제1차 열린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선·교·율을 대표해 고우 스님(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 무비 스님(전 조계종 교육원장), 지안 스님(은해사 승가대학원장), 성우 스님(계단위원)과 총무원장 자승 스님, 교육원장 현응 스님, 도법 스님, 수불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식개혁안 모색을 위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종일관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치열하고 진솔한 토론이 이어졌다.

고우 스님은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을 지침서로 '중도사상'을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중도란 '나'라는 집착이 없는 개념이며, 양극단을 벗어난 개념으로 계층간의 갈등, 사회적 갈등, 국가간의 갈등은 물론 사회전반의 갈등을 풀어 낼수 있다"고 밝혔다.

무비 스님은 "아무리 좋은 사상도 실천이 없으면 말놀이에 다름이 없다. 한국불교가 달라지려면 시대에 맞는 불교개혁안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사람을 부처님처럼 받들어 섬기는 '인불(人佛)사상'"이라며 "인불사상의 실천이 바로 구세대비(救世大悲)이며, 그 한 예로 스승과 제자, 스님과 신도가 서로 맞절함으로 승속을 차별하지 않는 문화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계종 결사추진본부는 1월 8일부터 9일까지 범어사에서 '바람직한 불교관과 실천론 확립'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고우, 무비, 지안 스님 등
선·교·율 대강백들 참여
人佛 사상 바탕으로 한
대승불교 정신 회복 강조

도법 스님은 "깨달음은 중요하다. 하지만 한국불교는 깨달음의 병에 걸려 있어 실제 삶과 직결되지 못한 점이 많다. 실천이 없으면 중도를 알아도 아는 것이 아니라는 말처럼 이는 불교가 일반 사회에 신뢰와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며 "그러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도와 사람이 부처라는 인불사상을 바탕으로 한 구세대비행의 강조했다.

이에 앞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종단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의 변화로 이번 좌담회에 종단은 모든 희망을 걸고 있다"며 "의식개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책임감과 소명감으로 좌담회를 잘 마무리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결사추진본부는 1차 좌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의식 개혁 총론을 만들어 동안거 해제 후인 3월 경 자문위원회 회의에 공식 상정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바람직한 불교관과 실천론이 정리되면 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교재와 프로그램을 마련해 종단의 주요소임자와 종도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의식개혁 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신중일 기자 · 박경수 부산지사장**

"위안부 문제 해법, 스님 고견 듣고파"

美하원 혼다 의원, 8일 자승 스님 예방

2007년 미국 의회에서 일본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주도하 마이크 혼다 하원 의원이 불교계를 공식 방문했다.

혼다 의원은 1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하고 위안부 문제해결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자승 스님은 "여러 어려움이 많음에도 우리보다 더 열정적으로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해 노력하는 것에 감동을 느끼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혼다 의원은 "클린턴 국무장관의 경우도 위안부라는 표현보다는 성노예라고 정확한 표현을 써야한다고 말하는 등 관심이 많다. 일본 아베 정부도 그런 인식과 실천이 필요한데 아직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며 "한국 스님들의 여러 고견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오게 됐다"고 화답했다.

이날 혼다 의원은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를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일본 국민들의 인식부재와 지도자들이 전범에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 일본 천황의 명예를 꼽았다.

이어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비롯해 국제사회 차원에서 압력과 설득을 통해 일본이 민주국가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게끔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승 스님 역시 혼다 의원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며 "한일불교 교류를 통해 역사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에 대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혼다 의원은 미국 대사관 브라이언 브루하우스 서기관과 함께 동행했으며, 종단에서는 사회부장 법광 사서실장 심경,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혜일 스님 등이 배석했다. **신중일 기자**


마이크 혼다 미국 하원 의원은 1월 8일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했다. 사진은 자승 스님이 선물을 전달하는 모습.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특수교육기관

한국불교전통의례전승원 학인모집 요강

"천년의 맥, 수륙재를 전승하는 전통불교의식의 도량"에서 의식의 올바른 설행을 위해 다양한 학과목을 마련, 기본적인 불공시식에서 수륙재에 이르기까지 여법한 의식집전을 실천하기위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교육내용 ♣

① 불전기본의식 (예불, 불공, 시식, 천도재 등)
② 전통의례 (어산, 작법 등)
③ 포교의례 (한글의례, 불교의식장단 등)
④ 수륙재연구

※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는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함.

■ 입학자격
• 전문과정 : 대한불교조계종 비구, 비구니
2013년 구족계 수지 예정인 사미, 사미니도 지원 가능
• 연구과정 : 본 학교 전문과정 졸업자, 불교의식 및 문화 관련 학과 사회 대학 졸업자

■ 입학정원
• 전문과정 : 00명, 2년제
• 연구과정 : 00명, 3년제

■ 모집기간 : 2013년 1월 30일(수)까지

■ 면접(서류전형합격자) : 2013년 2월 6일 오후2시
(준비물: 가사, 장삼)

■ 합격자발표 : 2013년 2월 7일이후 ~ 개별통지

■ 합격자등록 : 2013년 2월 12일 ~ 2월 22일

■ 개강예정일 : 2013년 3월 5일(화), 주 1회 등교

■ 전형방법 : 서류심사, 면접

■ 지원 구비서류
① 입학원서 (본교 소정양식)
② 승적증명서
③ 수행이력서
④ 자기소개서
⑤ 대한불교조계종 기본교육기관 졸업(예정)증명서

한국불교전통의례전승원 학장 동주 원명

문의·접수처 (02)2658-3200
팩스 : 02-2063-3344 H.P 010-6424-3436 (교무스님)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1동 226번지 (양천로 49길 56-12) 홍원사 內 한국불교전통의례전승원 교학처 www.kbtca.or.kr

일 주 문



진흥원 신년대법회 법문

서울 금강선원 선원장 혜거 스님은 1월 28일 대한불교진흥원과 BBS불교방송이 개최하는 신년대법회에서 법사로 입재법문한다.



토요 영어법회 진행

동국대 국제선센터 선원장 수불 스님은 1월 19일 오후 2시 동국대 대각전에서 캐나다 학자 글렌 물린(Glenn Mullin) 법사를 초청해 토요 영어법회를 진행한다.



화계사 학술세미나 개최

서울 화계사 주지 수암 스님은 1월 19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화계사지〉 발간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중국 선불교 유적지 순례 봉행

김동건 불교포럼 상임대표는 1월 18~22일 중국 광둥성 광저우 일대에서 불교포럼 선불교 유적지 순례를 봉행한다.

조계종 사회국장 성원 스님 임명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접견실에서 사회부 사회국장에 성원 스님〈사진〉을 임명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사회부는 다양한 산하단체과 함께 많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부서인만큼 열심히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혜인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성원 스님은 1994년 해인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송광사 쌍계사 해인사 직지사 선원 등에서 정진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제주 약천사 주지를 역임했다. **신중일 기자**

사설사암단체총연합회 신년하례 법회



(사)전국사설사암단체총연합회(회장 무산, 이하 전사련)는 1월 8일 수송동 두산위브 1층 회의실에서 '계사년 신년하례 법회'를 열었다.

사무총장 대명 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는 회장 무산 스님, 총재 각성 스님, 증명대법사 혜암 스님, 성해 스님, 법열 스님을 비롯해 각 종단 회원 사부대중 80여명이 동참했다. 성해 스님과 혜암 스님의 법어에 이어 회장 무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계사년의 힘찬 기운으로 한국불교의 발전을 선도하는 전사련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는 한 해가 되자"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미주 불자들 자유롭게 소통하길"

이종권 미주불교신문 편집장

"불법(佛法)의 황무지인 미주지역에서 현지인들에게 법음을 전파하고 싶습니다."

미주지역 불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개설됐다.

미주불교신문사(편집장 이종권)는 1월 9일 새해를 맞아 미주한국불교 커뮤니티 포털 사이트(www.koreanbuddhism.us)를 개설하고 미주한국불교 발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사이트 개설의 총책임을 맡은 이종권 편집장〈사진〉은 "이번에 개설된 '미주한국불교' 사이트는 미주한국불교의 경계와 영역을 명시하고 미주지역에서 한국불교를 구성하는 각 지역 승가 단체 및 사찰, 불교단체, 영어권 수행센터 등의 각종 행사와 불사를 온라인상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미주한국불교의 교류 활성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계종 국제포교사인 이 편집장은 2009년 조계종 현황조사 및 현지조사원으로 공식 임명을 받아 미국의 한국 사찰을 조사했다. 미국전역을 직접 자동차로 운전하며 모든 사찰을 방문해 스님들과 면담하고 자료를 축적해 〈2012 미주한국불교 총람& 불교인업소록〉을 제작했다. 약 160페이지 분량의 총람에는 미국 동부 및 서부, 중서부, 태평양 지역 사찰 주소 및 전화 번호, 정기법회 및 연중사찰행사, 한글학교 등 다양한 정보를 담았다. 뿐만 아니라 미주지역 불자들 간의 소통의 폭을 넓히고 이민생활을 도와주기 위해 불자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들도 소개했다.



美불자 커뮤니티 포털 사이트 개설
미주한국불교계 현황 한눈에 파악
소통공간부재로 美한국불교 침체

이종권 편집장은 총람과 함께 7년여 간 축적한 자료를 미주 불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미주한국불교' 사이트를 개설하고 △미주한국불교 △미주불교신문 △The Sangha Book △Community 등 4개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온라인 미주 불교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간다.

'미주한국불교' 카테고리는 미주한국불교계의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각 사찰 및 단체의 홈페이지를 모두 링크시켰다. 또한 홈페이지가 없는 사찰에는 독자적인 온라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게시판을 부여했다.

이 밖에 한국불교의 영역을 영어권 수행센터까지로 넓혔다. 이종권 편집장은 "한국불교는 한국의 불교수행전통에 입각한 구분이지 언어나 민족에 의한 구분이 아니다"라며 "숭산 스님이 창건한 관음선종처럼 미국 전역에 산재하는 영어권 한국불교 수행센터를 모두 발굴해 사이트에서 소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주불교신문' 카테고리에서는 미주불교뉴스 · 한국불교소식 · 출판계 소식 등으로 메뉴를 구성해 자체적으로 인터넷 신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편집장은 "현지에서 직접 취재해 생생한 사진과 함께 미주불교 소식을 실시간으로 보도할 수 있는 기능은 미주불교신문 최대의 강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북미 지역에는 많은 한국 사찰이 정착해 활동하고 있다. 조계종, 태고종, 진각종, 보문종 등의 사찰들이 진출해 이민 생활에 지친 많은 불자들의 기도처이자 수행처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라는 척박한 여건과 소수계 이민자를 위 한 종교시설이라는 한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종권 편집장은 "미주지역 한국불교가 한국에서와 같은 교세를 이어가지 못하는 원인으로 불교인 간의 원활한 소통공간의 부재라는 점에 착안, 모든 불자들이 자유롭게 대화하고 교감할 수 있는 웹사이트 구축을 발원하고 이 사이트를 개통하게 됐다"며 "사찰 뿐 아니라 미주지역의 포교단체들도 이 사이트에 동참해 함께 소식도 전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장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주한국불교 사이트: www.koreanbuddhism.us, 미주불교신문사: 1-718-644-0979 **이나은 기자**

"평생교육기관으로 박물관 비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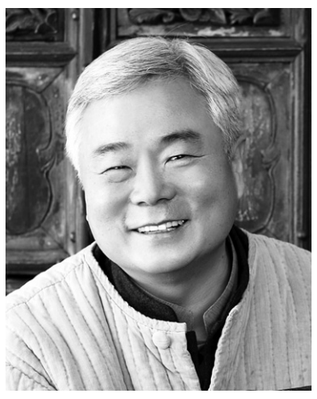
생생문화재사업 우수상 수상한 한선학 고판화박물관장

"지역의 열악한 사립박물관들이 지역사회의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원주 명주사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이 문화재청이 시행하는 '2012 생생문화재사업'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선학 고판화박물관 관장〈사진〉은 1월 12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생생문화재사업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자리에서 민간 사립박물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생생문화재사업은 문화재청이 지난 2008년도부터 시민들이 생활속에서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지난해 전국에서 모두 30개 기관이 선정 진행됐다. 고판화박물관은 올해 사업에도 뽑혀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인쇄문화를 많은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판화박물관은 또 한국사립박물관에서 실시한 애듀케이터 지원사업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한 관장은 "그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다양한 전시와 노인, 시민, 학생, 학부모, 군 장병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문화형 템플스테이인 '숲 속 판화학교'를 진행했다"며 "연 인원 2만여 명의 수강생을 배출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 이번 생생문화재사업 우수상 수상에 큰 힘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고판화박물관이 설립 10주년을 맞이한 새해에 문화재청에서 실시한 사업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립박물관들은 재정적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역민들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의 발전은 향후 사립박물관들이 활성화 되는데 롤모델이 될 것입니다."

노덕현 기자

(재)일붕선교종 신년하례법회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총무원장 경원)은 1월 8일 인천 호불사 대법당에서 신년 하례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총무원장 경원 스님, 원로의원 도기 스님, 제5대 총무원장 동봉 스님, 종회의장 법선 스님을 비롯해 종도 80여명이 참석했다.

종회의장 법선 스님의 상축, 경남종무원장 승원 스님의 발원문 낭독과 총무원장 경원 스님, 원로의원 도기 스님, 제5대 총무원장 동봉 스님의 신년사가 이어졌으며 신임 재무부장 도허 스님의 임명장이 수여됐다. **노덕현 기자**

여래불교조계종 신년하례법회



(사)여래불교조계종(총무원장 현산)은 1월 3일 총무원인 여래사 대법당에서 신년 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총무원장 현산 스님, 종회의장 혜견 스님, 사무총장 자운 스님 등 종도 30여명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현산 스님은 "계사년을 종단 발전의 원년으로 삼아 강원교육의 활성화, 종도 문화교실 운영, 종도확충, 청정수행 풍토조성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조계종 신년하례법회



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인 스님은 1월 7일 총무원 대법당에서 신년하례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혜인 스님은 "사부대중은 계율청정 수행정진해 정법을 세상에 널리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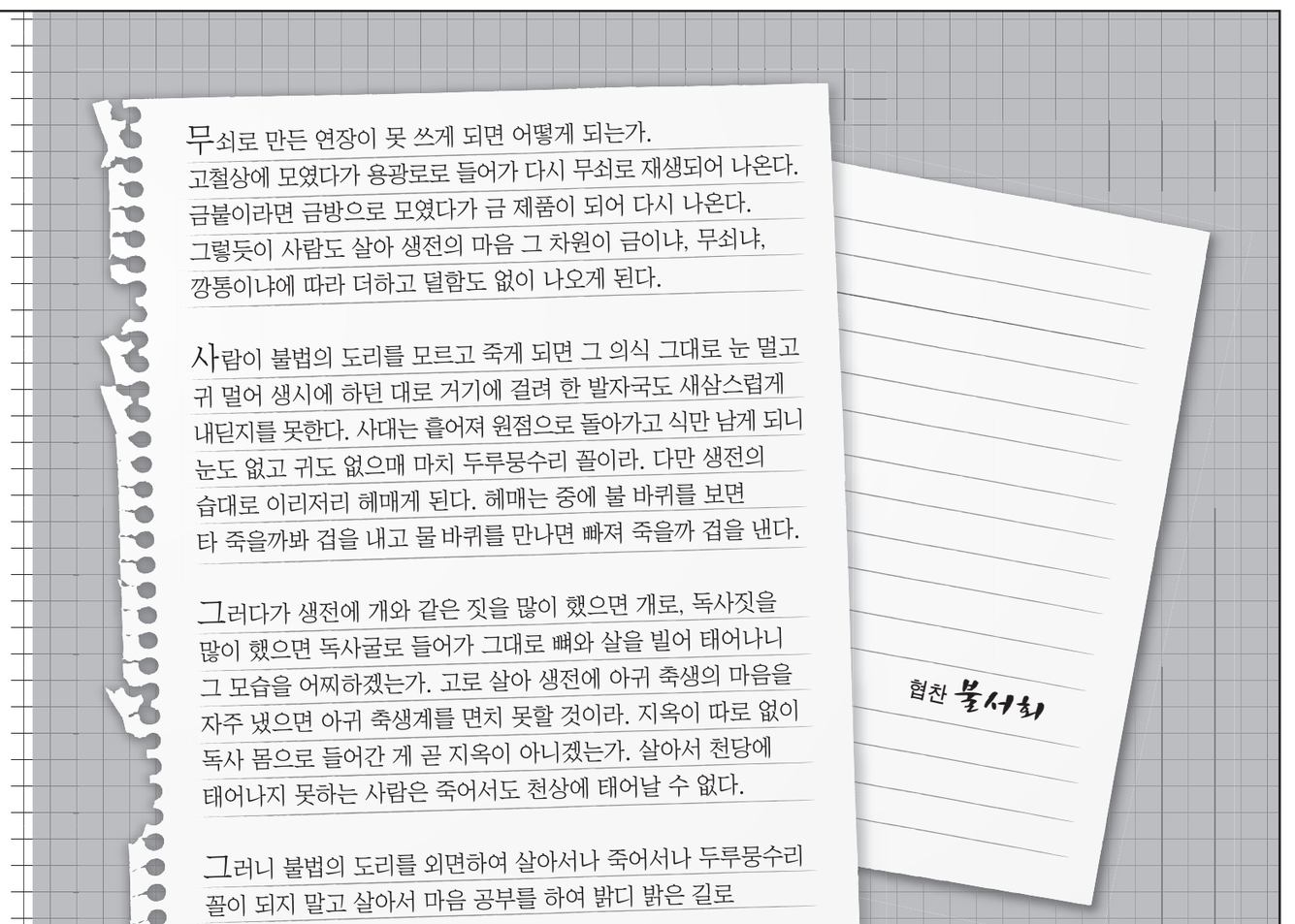
하례법회에는 역경원장 혜산 법종 스님, 율원장 혜일 스님, 부원장 동안 도불 스님, 교육원장 원광 스님, 강원도 종무원장 광덕 스님 경남 종무원장 지견 스님, 충북 종무원장 학산 스님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생활속의 불법수행 ❶

생활속의 불법수행은 현대불교신문 광고지면을 통해 부처님 법을 널리 홍포하는 지면입니다.
불자개인, 단체, 사찰 누구라도 소정의 정성금으로 부처님의 법을 나눌 수 있습니다.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를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 광고부 02)2004-8213.4

독사굴로 들어간 두루뭉수리





“몸과 마음에 친절해지세요”

아잔 브람 스님이 지도하는 세계명상 힐링캠프-동국대



아잔 브람 스님이 지도하는 세계명상힐링캠프가 동국대 국제선센터 대각전서 1월 10일~1월 16일까지 열렸다. 명상을 통해 마음의 고요를 찾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이 프로그램은 200여 명의 참가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아잔브람 스님이 지도하는 세계명상힐링캠프가 동국대 국제선센터 대각전서 1월 10일~1월 16일까지 열렸다. 명상을 통해 마음의 고요를 찾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이 프로그램은 200여 참가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참가자들은 아잔브람 스님의 법문을 듣고 이에 따라 명상하면서 일어나는 의문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시간을 가졌다. 1월 11일 동국대국제선센터에서 열린 세계명상 힐링캠프 명상 참가자들의 ‘그룹인터뷰’ 현장을 따라가봤다.

힐링캠프 참가자들은 부처님의 권고에 따라 침묵해야 하며, 개인 소유의 아이패드 휴대전화 인터넷 사용을 금한다. 또한 음주와 흡연을 금하며 귀금속 착용도 금지한다.

참가자들이 지켜야 할 8계도 있다. ①살아 있는 생명은 해치지 않는다. ②주지 않는 물건은 갖지 않는다. ③금욕생활을 한다. ④사실과 다른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 ⑤정신을 흐리게 하는 약물이나 음주를 하지 않는다. ⑥때 아닌 적에는 먹지 않는다. ⑦향수와 장신구로 치장하거나 유흥과 오락을 금한다. ⑧사치스러운 침상과 침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스님의 수행법은 마음관찰-호흡관찰-호흡의 전체보기-감미로운 호흡-마음의 보름달-니미따(nimitta)의 체험-선정으로 이어진다. 이제 참가자들은 대각전에 앉아 가부좌를 틀고 명상에 든다.

스님은 “수행의 참된 목적은 친구들에게 자랑할 만한 근사한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것”이라며 “제대로 명상하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잃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집착을 잃어버린다. 깨달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설명했다.

오후 1시간 30분 정도의 명상이 끝난 뒤 참가자들의 수행을 점검하는 그룹 인터뷰 시간을 가졌다. 여기에는 오늘 처음 명상에 참가한 이부터 시작해 20년 동안 간화선을 경험한 수행자들까지 35명의 참가자들이 그룹 인터뷰에 참여했다. 인터뷰는 수행하면서 들었던 고민 의문점 등을 그 자리에서 묻고 답하는 즉문즉설 방식으로 진행됐다.

호흡을 할 때마다 몸이 긴장을 한다고 말하는 질문자에 대해 스님은 몸과 마음에 대해 친절하게 대하라고 답한다. “너무 긴장하시 마세요. 몸과 마음에 친절하면 마음이 가라앉고 몸이 사라지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경험을 하다보면 몸이 더 무겁고 몸의 일부가 뜨겁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힐링이 되는 과정입니다. 제 제자들 중에서도 수행을 하면서 예전에 사고가 났던 부위가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두가 치유 되는 과정이었죠”

“호흡에 집중 고요해지다보면 저절로 밝아 집니다” 간화선 · 명상수행 차이 없어

명상을 처음 경험했다는 참가자들도 다수였다. 이들 대부분은 호흡을 자주 놓쳤고 망상이 들어 괴롭다고 질문했다. 명상을 할 때 목도 간지럽고 자꾸 호흡을 놓친다는 한 보살님의 질문에 대해 스님은 가만히 놓아두면 수행이 모든 것을 낫게 해준다고 전했다. “집안 일 등 다른 생각은 하지 말고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편안하게 있으면 목도 스스로 나아질 것”이라며 “호흡에 집중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져보라”고 답했다.

명상을 하는 동안 마음을 어디다 두어야 할지 모르겠다, 마음을 놓아버린다고 생각하면 잠이 오고 멍한 상태가 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냐고 호소하는 질문자도 있었다. “마음은 어디엔가 있습니다. 그 마음은 처음 있는 곳에 갖다 두어야 합니다. 몸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성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성이 그곳에 있을 뿐입니다. 더 이상 문제가 없습니다. 마음을 내려놓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명청함과 고요함의 차이는 무엇일까? 스님은 이에 대해 안개를 비유로 들어 설명했다. “아침에 안개가 짙게 뜨지만 해가 뜨면 밝아집니다. 꾸준한 명상을 통해 고요해지는 연습을 하다보면 저절로 밝아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수행도 쌓이고 쌓이면 밝아지죠”

고요해지고 싶지만 내 생각과 마음이 과거와 미래로 움직이고 욕망을 좇을 때에는 어떡해야 할까? 스님은 이에 대해 마음이 지금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충고한다.

“지금 여기에 있음을 감사히 여기면 원하는 것이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호흡에 집중하면 결정해야 할 일도 해야 할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재밌는 영화 볼 때 다른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이처럼 호흡에 정말 흥미를 가지면 즐거워지고 여기에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간화선이든 명상이든 수행의 방법에는 차이가 없다고 말하는 아잔 브람 스님. 스님은 오직 마음의 평화와 휴식을 얻기 위해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한다.

글=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아잔 브람 스님은…세계적 명상가 아잔 브람 스님은 1951년 영국 런던의 가난한 노동자 집안에서 태어났다. 케임브리지대 물리학을 전공한 스님은 물리학만으로는 자신을 둘러싼 사물과 인간, 그리고 세상과 삶의 이치를 설명할 수 없음을 알게 됐다. 이후 세계적으로 유명한 태국의 아잔 차 스님을 찾아가 수행자가 된다. 아잔 차 스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스님은 호주로 건너가 불법을 전파한다. 이후 스님이 오랜 명상으로 터득한 ‘생각을 사라지게 하는’ 마음훈련법은 호주를 넘어 전 세계로 전파된다.



참가자들은 30여 명씩 그룹을 이뤄 명상수행에 대한 인터뷰 시간을 가졌다.



한국을 방문한 아잔 브람 스님은 1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빨리빨리 보다 여유 찾아야”

세계적 명상가 아잔브람 스님 한국 방문

“여러분, 이 물잔을 5분 이상 들고 있으면 무겁다고 느끼시겠죠? 이 컵 때문에 편안하지 못하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30초만 놓았다가 다시 들어본다면 쉽게 다시 들 수 있겠죠? 명상도 이와 같습니다. 잠깐 나를 내려놓는다면 한 시간해야 할 일을 15분 만에 할 수 있는 집중력이 생깁니다”

세계적인 명상가 아잔 브람 스님이 한국을 방문했다. 스님은 1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정 체험과 실제 깨침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케임브리지대 물리학도였던 스님이 수행자가 된 이유는 뭘까? 스님은 명상은 자신이 느껴본 그 어떤 것보다 최고의 느낌을 주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를 좀 더 탐구해 보고 싶다는 마음에서 출가를 했다고 한다. 이후 스님은 태국의 아잔 차 스님의 수제자가 되었고 호주에 남반구 최초의 사찰을 세워 호주 불교를 개척해 왔다.

그는 불교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함께 가져다 준다고 말한다.

“의사로부터 두세달 밖에 생명이 남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은 학생이 명상을 통해 암세포를 줄여 나가는 경우를 봤다. 명상으로 이런 효과를 얻은 예는 수없이 많다. 현대 심리학 역시 불교를 기반으로 한다. 불교는 2천 5백년 동안 마음 공부를 탐색해 왔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이끌어 왔다”고 전했다.

스님은 불교 수행이 가져다 주는 지혜를 개똥에 비유하기도 했다. “여러분이 어느날 길거리에서 개똥을 밟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을 털어내지 말고 그대로 집으로 가져 오십시오.. 그리고 사과나무 밑에 똥을 털어내십시오. 그리고 1년 후 사과를 먹을 때 자신이 밟았던 개똥을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불교는 어려움에 맞딱드렸을 때 그 경험을 받아들이고 성장하면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친절을 배우는 것이 불교죠”

스님의 명상 수행법은 간화선과도 닮아 있다고 밝혔다. 스님은 “나의 수행법이 다른 종류의 명상과 차이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차이가 없듯이 말이다. 목적지만 다다르면 된다. 어떻게 운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즉 어떤 종류의 명상을 선택하느냐 보다는 어떻게 명상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를 통해 평화롭고 친절하며 자신에게 관대해지려고 노력하라”고 전했다.

스님은 한국인들이 고요하게 있는 법을 모른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모두가 빨리빨리를 외친다. 하지만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서두르다 보면 실수가 많다. 천천히 일을 하다보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무덤에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죽기 전에 평화롭게 쉬는 법을 배워야 한다”며 스스로의 여유를 찾을 것을 강조했다.

“멈추어 명상에 잠겨 보세요 평화와 행복 얻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선정에 드는 것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 올까? 스님은 이에 대해 당근을 쫓는 당나귀에 비유했다. “목에 당근을 달아서 따라가게 하면 어떨까요? 아무리 달려도 앞에 있는 당근 때문에 당나귀는 계속 달릴 것입니다. 그러다가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반동으로 당근이 입 안으로 들어오겠죠.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결국 쾌락은 이 앞에서 더 멀리도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멈추어 명상에 잠겨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잔 브람 스님은 앞으로 8박 9일 동안 한국에 머물며 동국대 집중수행 인터뷰와 더불어 안국선원 불광사 봉은사 조계사 구룡사 봉암사 등에서 법문을 펼치고 1월 17일 출국한다.

글=정혜숙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수강생모집

알기 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 · 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 · 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중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동방칠성교주,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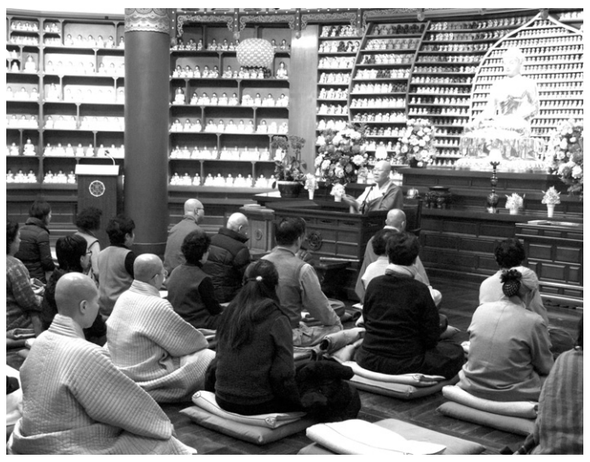
강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72길 ☎ 전화 010-7415-0803 / 051)343-0803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화두들고 치열하게 정진하라”

동국대 국제선센터 ‘간화선 집중수행’ 실시





동국대 국제선센터 선원장 수불 스님이 1월 10일 대각전에서 수련생들을 대상으로 수행정진을 당부하고 있다(사진왼쪽). 수불 스님이 국제선센터 선원장실에서 공부를 점검받으러온 수련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강추위가 계속되던 날, 동국대 국제선센터 대각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모여 있었다. 이들은 동국대 국제선센터(선원장 수불)에서 진행한 ‘간화선 집중수행’ 참가자들. 범어사 주지이자 안국선원장인 수불 스님의 법문을 듣고 있었다.

“화두를 들 때는 타협이 없습니다. 스스로 화두에 들었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자신을 다그치며 끊임없이 정진해야 합니다.”

동국대 국제선센터는 1월 4~10일 수불 스님(범어사 주지 · 안국선원장)의 지도아래 ‘간화선 집중수행’을 진행했다. 이번 기간에는 대학생을 비롯해 승가대 학인 스님, 주부, 일반인들까지 80여 명의 수련생들이 화두참구를 이어갔다.

수련생들은 8일 동안 매일 8시 30분까지 국제선센터에 도착해 출석부에 출석표시를 하고 편안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매일 오후 6시 30분까지 대각전 법당에서 간화선 수행을 했다.

수련생들이 첫날 스님으로부터 받은 화두는 ‘손가락을 튕기는 자가 누구인가’. 오전에는 수불 스님의 화두법문을 듣고 그 이후부터는 화두를 놓치지 않고 정진했다.

수련생들은 수행하다 답답한 기운을 느낄 때면 수불 스님이 법문 때 마다 강조한 “어디에도 머물거나 집착하지 않으면서 치열하게 정진하라”를 새기며 치열하게 수행을 했다.

수불 스님은 간화선 집중수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오전 오후로 나눠 수련생들을 대상으로 점검의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수련생들은 자신이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점을 보완해야하는지 해답을 찾는다.

집중수행 마지막 날이었던 1월 10일. 수련생들은 대각전에서 참선으로 정진을 이어가다가 모두 좌정하고 수불 스님의 법문에 귀를 기울였다.

수불 스님은 “그동안 죽기 살기로 들었던 화두 이제부터는 편안히 내려놓아라. 수행기간에 변화를 느꼈든 못 느꼈든 집착하지 말고 평소처럼 생활하고 수행할 때만 화두에 전념하라”고 강조했다.

간화선은 눈 밝은 선지식이 믿음을 낸 사람으로 하여금 화두참구를 통해 ‘참의심’을 불러일으켜 깨닫는 수행법이다. 모든 사람이 불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연만 닿는다면 누구에게나 깨달음의 길이 열릴 수 있다. 하지만 스승에 의한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불 스님은 회향일인 만큼 “화두를 들려 할 때는 반드시 선지식과 인연을 맺고 점검을 받으면서 나아가야지 절대로 혼자 공부해서는 안된다”며 “일상으로 돌아가면 수행에 얽매이지 말고 마음을 편안히 가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문이 끝나자 스님은 “자신이 공부가 어느 정도 되고 변화가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를 따라오라”고 말했다. 수련생 10여 명이 선원장실로 향해 점검을 받고 나온다.

스님에게 점검을 받은 윤성임(26 · 학생)씨는 “계절학기수업으로 간화선 집중수행을 하게 됐다. 처음에는 스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힘들었지만 놓치지 않고 화두참구를 하니 몸과 마음이 편하고 가벼워지면서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행복감을 느꼈다”며 “평소 불교에 관심이 있었지만 혼자 공부하는 것 보다 스님의 점검아래 수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수련생들은 이날 오전 수불 스님의 화두법문과 점검 및 점심공양을 마치고 오후에도 계속 정진해나갔다.

수불 스님은 “참가자들 모두 일주일동안 사력을 다해서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기간이 조금 더 길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간화선 수행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선센터는 2차 간화선 집중수행을 1월 30일~2월 5일 진행한다.

국제선센터측은 “ ‘최대한 수행에 집중하고 싶다’는 참가자들을 배려해 학교 협조를 얻어 동국대 기술사를 한시적으로 개방했다”며 “간화선 집중수행을 통해 정신적인 안정과 활력이 가득한 생활로 바뀌게 되는 인연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02) 2260-3891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신년 다짐 산사서 되새기자

불교문화사업단, 새해맞이 ‘마음찾기 템플스테이’

계사년 새해가 시작됐다. 많은 신년 계획을 많이 세워놨지만, 박약한 의지 탓에 흐지부지되기 일쑤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정산)은 새해를 맞아 전국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에서 상담과 전통문화체험, 휴식을 통해 심신을 치유하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다양한 템플스테이를 실시한다.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봉인사는 ‘상담(相談)이 있는 명상(瞑想)이 있는 템플스테이’라는 주제로, 매주 토요일 상상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봉인사는 이번 템플스테이에서 상담과 명상, 자연 속 휴식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대인관계로 고민하는 이들을 위한 집중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평상 시 실천할 수 있는 차크라 명상, 대인관계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내면관찰법, 토론 등을 통해 나의 일상을 돌아보고 해답을 찾는다. (031)574-5585

또 태교 템플스테이로 유명한 화성 용주사는 ‘소중한 참 나 알기 템플스테이’를 통해 자신의 소중함과 가치를 일깨우는 시간을 갖는다.

매주 주말 실시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용주사 사찰투어, 발우공양, 산행 등 전통문화 체험과 함께 1박 2일간 포행, 108배 등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스님과의 대화를 통해 상담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031)234-0040

경기도 화운사는 ‘허심탄會(회) 템플스테이’는 소모임, 학교, 기업 등 단체 참가자를 대상으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소금 만다라 만들기, 운력, 숲속 포행, 발우공양을 비롯해 나만의 열쇠고리 제작 등 주변사람들과 마음으로 나누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시간을 전한다. (031)335-2576

이 밖에도 마곡사의 ‘솔바람 숲길 템플스테이’, 전등사의 ‘休~ 템플스테이’ 등 전국의 다양한 사찰에서 힐링을 위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문의 www.templestay.com 신중일 기자



조계종은 1월 7일 조계종 총무원청사에서 제 5기 국제교류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제5기 조계종 국제교류위원 위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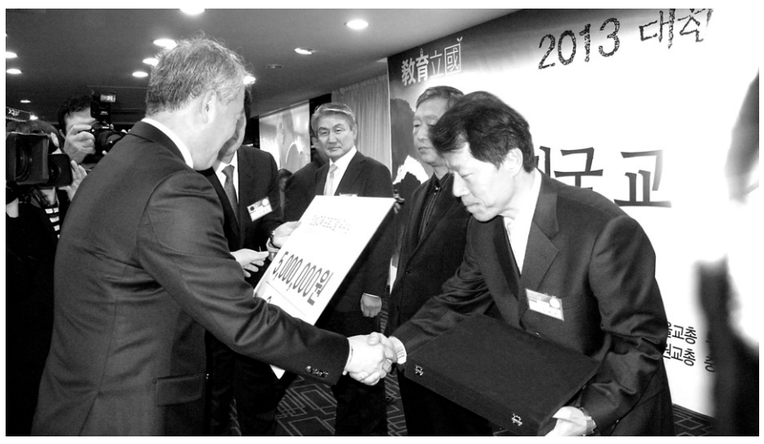
1월 7일 위촉장 수여

5기 국제교류위원이 위촉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월 7일 조계종 청사 4층서 종단의 국제정책 및 대외전략을 자문하는 국제교류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

국제교류위원으로는 사회부장 법광 스님, 포교부장 송묵 스님, 위촉 위원으로 진월 스님(동국대 경주 선학과 교수, 조계종 국제특보), 수암 스님(대한불교조계종 화계사 주지, 외국인행자교육원장), 지정 스님(대한불교조계종 국제불교학교 처장), 혜연 스님(대한불교조계종 국제선센터 국제차장), 이민용 원장(한국불교연구원 원장), 김종인 교수(경희대 교수, 국제재가불교포럼 위원장), 권영구 회장(대한불교조계종 국제포교사회 회장), 박영환 교수(동국대학교 서울 중어중문과 교수)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2013년 국제교류위원은 올 한 해 동안 △불교포럼 육조혜능대사 성지순례(중국 광주 일대) △외국인스님 교육(국제선센터 혹은 화계사) △한중일 예비회의(중국 북경) △베삭데이(태국)△해외인사 초청(한국내)△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전통불교문화원) 등의 활동을 펼친다.

또한 국제교류위원회에서는 1분기 불교용어 통일화 종책, 2분기 불교국가간 국제협력 방안 연구, 3분기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국내외 홍보전략 수립, 4분기 종단 국제 중장기 종책수립을 주제로 세미나 및 위크숍을 개최해 보다 구체화된 종책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정혜숙 기자



한마음과학원, 인실련 우수상 수상…11일 한국교총 신년교례회서

한마음선원 산하기구인 한마음과학원이 1월 1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교총 및 시 · 도교총 신년교례회’에서 인성교육 실천프로그램 공모전 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시상은 지난해 10월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상임대표 안양옥 한국교총연합회장 · 이하 인실련)이 주최한 청소년 인성교육 공모전에 대한 것이다.

한마음과학원의 ‘한나무인성교육프로그램’은 흥사단의 ‘어르신자서전쓰기 봉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 등과 함께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돼 상금 500만원과 상패를 전달받았다. 이나은 기자

어린이 · 청소년 불교지도사 선발한다

포교원, 2월 23일 지도사 고시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어린이 · 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위해 오는 2월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과 부산 대한불교교사대학 강의실에서 불교어린이지도사와 불교청소년지도사 고시를 실시한다.

자격고시는 서류전형과 필기고시, 면접 및 실기고시로, 특별전형은 서류전형과 면접 및 실기고시로만 평가한다. 필기고시에서는 불교상식과 어린이 또는 청소년 포교일반 등을 평가하며 면접 및 실기에서는 인성 및 기본예절, 사회활동 및 신행활동, 포교활동, 목탁습의 등을 점검한다. 어린이지도사고시는 면접 및 실기평가에서 동화구연과 찬불동요(손유희 포함), 법회진행(게임) 중 한가지를 추가로 평가하게 된다.

합격자에게는 어린이연수 및 교육 동참비, 어린이청소년포교 교구재 및 자료, 활동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불교어린이청소년지도자 연수를 통해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합격자는 2월28일 발표하며, 합격자는 3월16일부터 17일까지 실시되는 불교어린이 · 청소년지도사 연수에 참여해야만 한다.

응시원서는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공지사항코너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오는 2월1일까지 포교원 전법지원팀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2013

2013(불기 2557)학년도 서울 금강불교대학

신 입 생 모 집 안 내

본 대학은 한국 불교중흥과 불교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국내 최고의 교수진을 초빙하여 운영하는 불교교양대학입니다. 입학의 문은 신도뿐만 아니라 불교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교과과정안내

과정		기간	교과목	요일	자격	시간	서류 및 전형방법	인원	수강료
불교학과	1학년	2년	불교입문, 부처님생애 대승불교, 불전개설	월	불교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응시 가능	· 1교시 : 18:30 ~ 19:50 · 2교시 : 20:10 ~ 21:30	· 입학원서1부 (5,000원) · 반명함판사진 2매 · 1차 서류, 2차 면접	약 200명	20만원 (1년 10만원씩)
	2학년		천태불교학 중국불교, 법화경 Ⅰ · Ⅱ	화	본교 초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법사과		1년	선사상, 유식사상천수경, 정토사상 화엄경, 포교방법론	수	본교 중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 1교시 : 18:00 ~ 19:20 · 2교시 : 19:30 ~ 20:50 · 3교시 : 21:00 ~ 22:20	· 지원서 1부 · 반명함판사진 2매 · 서류전형	약 100명	50만원 (한 학기25만원)

원서접수

원서교부				접수 및 면접 장소 · 일시	위치 및 교통
우면동 관문사 : 02.3460.5300		평 택 법장사 : 031.655.9090		• 접수 : 2012년 11월 19일(월) ~ 2013년 2월 15일(금) 18시까지 • 면접 : 2013년 2월 16일(토) 오후 16시 • 장소 : 관문사 2층 금강불교대학 ※ 합격자는 면접 후 개별통보	• 서초구 우면동 56번지 관문사 2층 서울 금강불교대학 → 전화) 02.576.6401 • 3호선 양재역 11번 출구 → 마을버스 18번 • 2호선 강남역 8번 출구 → 지선버스 3412번 (LG연구소, 우면AP, 관문사에서 하차)
신 촌 성룡사 : 02.336.2052		수 원 용광사 : 031.255.4105			
봉천동 명락사 : 02.889.7272		구 리 금성사 : 031.563.9364			
구 로 명화사 : 02.854.0196		안 양 대안사 : 031.459.3666			
망우동 삼룡사 : 02.496.3803		안 산 월강사 : 031.419.5048			
성 남 화성사 : 031.745.1482		부 천 천화사 : 032.671.5353			
일 산 화성사 : 031.905.2912		군 포 상락사 : 031.392.0924			

서 울 金 剛 佛 敎 大 學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56 대한불교천태종 우면산 관문사 2층 TEL 02)576-6401 / FAX 02)574-1541

경 대한민국 중요 무형문화재 50호 축

“태고종 영산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등재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 교 육 과 정

(1) 초 · 중급과정

◆ 조석예불 ◆ 사시불공, 각단불공, 시달림
◆ 바라춤 : 요잡(막바라), 관욕바라, 천수바라
◆ 나비춤 : 사방요신, 도량게
◆ 49재, 천도의식

(2) 상급과정 – 초 · 중급 이수자에 한함

◆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 신중작법(104위, 39위), 욕건이
◆ 다게나비춤작법, 운심게작법
◆ 가지게

■ 강주스님 : 교무국장 성우

◆ 교육시간 : 초 · 중 급 – 목요일 오전 10시 ~ 1시
상 급 – 목요일 오후 2시 ~ 6시
◆ 개강일시 : 2013년 3월 7일(목) (수시모집가능)
◆ 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 (교재비 포함), 3개월 30만원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사진 1매
◆ 접수기간 : 상시모집
◆ 연 락 처 : 054)975-4339

▣ 접수처 및 강의장소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종무원 (전화접수 가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1123-1번지 HD빌딩 2층

한 국 불 교 태 고 종 경 북 교 구 종 무 원

교계 복지단체 후원금 소폭 상승

"SNS홍보, 거리모금, 홈페이지 개편으로 활성화 할 것"


승가원은 정기적으로 서울지역 유동인구가 많은 역주변에서 '행복나눔 거리캠페인'을 실시하고 일반 시민들을 직접 만나 승가원의 사업 소개와 장애가족들을 위한 서명운동 및 나눔신청을 받는다.

경기불황으로 복지기금 후원이 줄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는 가운데 교계 기관 및 단체의 후원은 예년만큼 유지되거나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교계복지단체들은 지속적인 후원활성화를 통해 올해에는 후원금과 후원자를 늘리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원경)은 "2012년 연말 후원금은 13억여원으로 2011년과 비슷한 수치이고 후원자수도 비슷하다"라며 "현재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있는데 후원코너에 사진과 내용을 강화하고 후원희망자들이 쉽게 후원할 수 있도록 접근을 용이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재단은 "불자뿐 아니라 일반 후원자 모집을 위해 후원캠페인, 모금활동 사업 등의 이벤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태원)도 "2012년 12월 후원금(지정후원금 포함)은 총 6억 3800여 만원으로 2011년 12월 후원금(5억 3900여억원)에 비해 15.61% 증가했다. 후원자수도 2만7700명에서 3만 8000명으로 1만 천여명이 늘었다. 직원들과 지속적인 거리모금 캠페인 활동으로 경기불황에도 후원을 늘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승가원은 정기적으로 서울지역 유동인구가 많은 역주변에서 '행복나눔 거리캠페인'을 실시, 일반 시민들을 직접 만나 승가원의 사업을 소개하고 장애가족들을 위한 서명운동과 나눔신청을 받았다. 또한 2회 연속 삼일회계법인에서 시상하는 '삼일투명경영대상' 장애인부문에서 상을 받아 신뢰도를 높였다. 승가원은 "거리로 나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금활동을 하기 때문에 정기후원자에는 타종교인들도 많은편"이라며 "투명경영대상에서 상을 받은 것도 후원자들로부터 신뢰를 쌓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올해에는 법인 사무실 및 승가원장애아동시설 이전과 관련한 홍보와 후원 사업도 함께 진행할 계획"고 설명했다.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2012년에는 42억여원으로 2011년의 50억 7천만원보다 적게 모금됐다"며 "이는 2011년에 일본 쓰나미, 태국 홍수 등 재난 피해로 인한 구호 성금이 추가된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신규 후원자와 지정기탁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름다운동행은 올해 전년도 대비 신규 지정기탁 목표액을 채우기 위해 후원자 모집 홍보활동을 강화해나간다.

아름다운동행은 "사찰을 통한 홍보와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SNS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신규 후원자를 발굴해 CMS 자동이체 동참유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도 후원금은 약 6.8%, 후원자수는 175.7%로 증가했다. 본부는 "언론을 통해 생명나눔환우 홍보활동을 한 결과 후원금과 후원자수가 꾸준히 늘었다"고 분석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청원)는 2011년 후원건수 5657건에서 2012년 6898건으로 증가했으며, 자원봉사활동건수도 40498건에서 40818건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후원금액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최근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 경향이 기금 전달보다는 봉사활동을 하는데 더 주안점을 두고 있는 추세"라며 "활동 건수가 늘었음에도 후원금액은 다소 줄었다"고 덧붙였다.

이같이 교계 복지단체의 후원금지원 및 후원등록이 다소 늘어났지만 보현의 집과 같은 자활인시설 후원은 거의 끊긴 실정이다.

영등포시립 보현의 집(시설장 임도영)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공모 사업 지원금을 받는 후원금이 대부분이고 개인후원금이나 정기후원은 거의 없다"며 "후원자들은 자활인들이 놀고 먹기만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기왕이면 어린이 시설, 독거노인에 지원하는게 낫다' 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현의 집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노숙인보다 자활인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고 이들이 열심히 자활을 위해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방향으로 후원모금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복지단체들이 후원홍보활동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복지기관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공신력을 얻는 것이 후원자 모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권경임 복지영성연구소 대표는 "후원자들로부터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후원회원이 낸 후원금이 타인을 돕는데 잘 쓰여지고 있다' 는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철저한 종교정신을 바탕으로 몇 백년간 전통과 신뢰를 쌓으며 복지활동을 한 구세군이 대표적인 경우다. 종교가 다른 사람들도 구세군 자선냄비를 보면 주저하지 않고 기부를 해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주저하지 않고 기부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 대표는 "후원금만 내게 할 것이 아니라 관심과 소속감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설견학이나 교양강좌, 성지순례 등을 통해 후원자들에게 정신적 · 물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조혈모세포기증 희망등록자 3만명 돌파

생명나눔실천본부 "매년 3000명씩 꾸준히 등록"


조혈모세포기증 희망등록을 한 권숙(46) 씨.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가 조혈모세포기증 희망등록자 모집 3만명을 넘겼다. 매년 대학가, 문화축제, 거리, 군부대, 기업체, 사찰 등지에서 희망등록 캠페인을 벌이며 모집하고 기증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노력한 결과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2004년 조혈모세포기증 희망등록자 모집을 시작한 이래 매년 약 3000명씩 꾸준히 등록해 2012년 말 기준 누적 3만명을 넘겼다"며 "2012년에는 실기증자도 4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일반인들은 조혈모세포를 함유하고 있는 골수를 머리나 척추에서 뽑아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조혈모세포기증 희망등록자를 모집하는 일이 그리 수월한 편은 아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실제로는 인체에서 가장 단단하고 조혈모세포도 많이 들어있는 골반뼈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며칠간 엉치 부위가 얼얼하다는 점 외엔 부작용이 일어날 확률도 0%에 가깝다"며 "또한 조혈모세포 채취용으로 없어진 골수는 4주 이내에 자연히 원상 복구된다"고 말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에 따르면 조혈모세포 이식은 환자와 기증자간 HLA형이 일치해야 하는데 부모와는 5%이내, 형제자매 간에는 25% 이내, 타인과의 확률은 수천에서 수만 명 중 1명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생명나눔실천본부에 조혈모세포기증 희망등록을 한 권숙(46) 씨는 자신의 세포와 일치하는 환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 12월 20일 인하대병원에서 조혈모세포기증을 했다.

권숙 씨는 "수천에서 수만 명의 작은 확률로 일치하는 환자가 있어 기증을 하게 돼 기쁘다"며 "다른 분들도 기증할 기회가 생기면 망설이지 말고 꼭 하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생명나눔실천본부에 꾸준히 후원을 해온 권씨는 대학생인 아들에게도 조혈모세포기증과 장기기증희망등록을 권하겠다며 적극적인 홍보 의지를 다졌다.

이사장 일면스님은 "희망등록 해주신 분들과 실제로 기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조혈모세포기증 홍보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02)723-5101

이나은 기자


2012년 3월 1일~12월 31일까지 '위풍당당 할매들' 프로그램에 참가한 어르신들.

사별로 인한 스트레스는 이제 그만!

속초시노인복지관, '위풍당당 할매들' 성료

속초시노인복지관(관장 묘근)은 배우자나 가족의 사별로 인한 우울증 예방치료 사업으로 진행한 '위풍당당 할매들'을 성료했다. 속초시노인복지관은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 회의 2012년 배분사업에 선정돼 '위풍당당 할매들' 프로그램을 2012년 3월 1일~12월 31일까지 어르신 20명을 모집해 진행했다.

10개월간 복지관은 사별에 대한 슬픔을 빠르고 건강하게 극복하여 삶의 변화를 주기 위해 미술치료, 집단상담, 체험활동, 숲테라피체험, 자원봉사활동, 휴대폰사용교육등 의 다양한 프로그램 들을 진행했다.

속초시노인복지관 라윤미 사회복지사는 "올해 초 이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만 해도 어르신들의 표정이 어둡고 소극적인 태도를 많이 보였으나, 미술심리치료를 비롯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면서 많이 밝아지셨다"며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도 참여자들끼리 지속적인 모임형성을 도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속초시노인복지관 관장 묘근 스님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정서적 안정감을 높여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033)636-3373

이나은 기자

조계종복지재단, 장애인과 신년맞이 축제


행복공감봉사단과 장애인들은 조별 매칭을 통해 '만두빚기'와 '만두경연대회'에 참여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1월 10일 영등포장애인복지관에서 행복공감봉사단과 함께 장애인들을 위한 '신년맞이 대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는 장애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적인 유대감과 소속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행사에는 기획재정부 김동연 2차관과 행복공감봉사단 홍보대사 김장훈을 비롯한 행복공감봉사단 단원 50여 명, 그리고 지역 내 시설이용자 25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행복공감봉사단과 장애인들의 조별 매칭을 통해 필요한 생필품을 함께 구입하고 나누는 '행복공감 장보기'를 진행했다. 또한 다함께 만두를 빚는 '만두빚기'와 '만두경연대회' 및 점심공양을 준비해 장애인식개선과 공감을 위해 적극 참여했다.

한편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1월 15일 동국대 참사랑봉사단과 자원봉사 활동 MOU를 체결했다. 매학기 방학마다 필리핀과 카자흐스탄에서 봉사할 학생을 모집해 파견해온 동국대 참사랑봉사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원봉사를 지원하게 된다.

복지재단은 "복지재단은 계사년 새해를 맞아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길 발원하며 보다 전문적인 나눔 · 봉사를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겨울방학 힐링하러 떠나자"

목동청소년수련관, 힐링캠프 실시

학업 · 진학 · 진로문제로 힘들고 지친 청소년들을 위한 힐링캠프가 열린다.

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은 1월 25~26일 겨울방학 청소년캠프 '자연 힐링캠프'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치유하는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경기도 양평 미리내 캠프에서 진행된다.

캠프일정은 오리엔테이션, 도전! 청소년 쉐프(팀별 요리체험), 미니올림픽 등 다양한 게임과 레크레이션으로 구성됐다. 참가비는 3만원으로 신청은 수련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02)2642-1318

이나은 기자

각 분야별 권위있는 교수진과 열정적인 강의

www.dongsanbud.net

2013년 동산불교대학 42기

신입생모집 [2년과정]

■ 모집학과

• 불교학과 [2월 2일(토) 오후 5시 개강]

▶토요반 : 매주 토요일 오후6시 ▶목요반 : 매주 목요일 오후2시 ▶통신반

▮ 1년차 과목 _ 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 법화사상, 대승불교, 화엄사상, 정토사상, 밀교사상, 불교사회복지론

교수진 _ 무진장대종사(본대학장), 정병조교수, 황순일교수, 차차석교수, 김상현교수, 박종교수, 주명철교수, 정엄스님, 종석스님, 보각스님

▮ 2년차 과목 _ 불교학개론, 불교미술, 선학의이해, 포교방법론, 비교종교론, 근본불교, 유식사상, 불교상담론, 반야사상

교수진 _ 최종석교수, 백도수교수, 김호귀교수, 윤열수교수, 활안스님, 김상현교수, 묘주스님, 박종교수, 김형준교수

• 불교관련학과 – 다도학과 3월 5일
불교미술학과 3월 7일
선·명상학과 3월 7일 개강

• 불교대학원 – 3월 4일, 5일 개강

• 불교의식교육원 – 3월 6일, 9일 개강

■ 모집인원 (불교학과) | 180명(토요반, 목요반, 통신반 각 60명)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개, 입학금 20만원

■ 원서교부 및 접수 (불교학과) | 2013년 1월 1일부터~

■ 문 의 | 02)732-1206~8

• 불교학과 2년과정을 졸업한 후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 군법당 관련종사자(군종병, 부사관, 장교)는 전액면제 교육함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불교대학·대학원

본대학 사무처 :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동산불교회관 TEL (02)732-1206~8, FAX 732-1207

(사)여래불교조계종

종 도 모 집

삼보귀의하옵고!
여래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중흥을 위해 엄격한 교육과 철저한 선수행을 통해 양질의 승려를 양성하는 교육종단, 청정종단, 열린종단을 지표로 한국불교 정법수호에 앞장서는 개혁종단으로 강원교육과 문화교실을 통하여 스님들의 수행생활에 필요한 배움의 장을 만들고 신도들을 상대로 법사를 배출하는 불교대학을 운영하는 여래불교 조계종 종단과 함께 하실 제방의 청정승가의 동참을 바랍니다.

종 정 무 여

총무원장 현 산 (서울 마장동 여래사)
종회의장 혜 견 (성남시 보통정사)
사무총장 자 운 (서울 미타사)
감찰원장 법 성 (전남 나주시 유원사)
교육원장 중 무 (대구시 남구 기원정사)
문화원장 보 성 (강원 속초시)
호계원장 성 보 (경기 문산 승주사)
포교원장 만 경 (강원 춘천 보통정사)
선 원 장 향 지 (성남시 향지선원)
사회부장 제 오 (충남 금산군 광명사)

- 입종서류 -
• 승려 및 사찰 등록 신청서 1부
• 반명함 사진 3매 • 주민등록사본 및 등본 1부
•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수계증 및 도첩 사본) 1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함.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본 종단 총무원으로 문의 바랍니다.
• 본 종단은 개인재산에 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음.

- 교육부설 -

교육구분	대 상
강원 (4년)	비구, 비구니 양성
불교대학 (2년)	일반신도 및 법사 양성
불교대학원 (2년)	전 법사 양성
문화교실 (매주)	서예,사군자,달마도, 불교의식 등

(사)여래불교 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현 산

총무원 : 사무실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778-14 여래사 전화 : 02)2282-5830 / 010-6710-8300(사무총장)

봉은사 명사 초청법회 - 우주와 불교의 세계관

박문호(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인간, 언어에 구속 반야의 세계는 언어도단 자리



〈뇌, 생각의 출현〉 저자이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인 박문호 박사 초청 재가불자 특강이 12월 30일 봉은사 법왕루에서 열렸다.

박 박사는 이날 우주 빅뱅 이후부터 인간의 의식까지 가는 방향으로 봤을 때, 10가지 큰 사건을 열거하여 설명하고 화엄경 '여래출현품'과 '입법계품', 반야심경을 토대로 불교적 연관성을 설명했다. 우주의 세계와 불교의 연관성을 설명한 강연을 지면을 통해 전한다. 정리=노덕현 기자

우주의 시작은 언제부터 일까요. 대략 137억년이라고 합니다. 2003년 이후 자연과학계에서는 우주의 나이를 137억년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자연과학의 가장 큰 발견은 우주의 나이를 비교적 정확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주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은 무엇일까요. 우주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시간동안의 10대 사건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첫째는 빅뱅입니다. 우주의 시작인 것입니다. 인류가 우주의 나이를 알게 된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대칭붕괴가 일어난 것입니다. 태초에 우주는 그 어떤 하나로 설명되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우주를 구성하는 네 가지 힘이 빅뱅 이후 10의 마이너스 43승 초라는 극히 찰나의 순간에 분화됩니다.

이 네 가지 힘은 중력, 강한 상호작용, 약한 상호작용, 전자기 상호작용을 칭합니다.

세 번째는 양성자가 출현한 것입니다. 양성자는 수소 원자의 핵입니다. 우주 전체의 구성성분 중 70%가 수소입니다. 수소는 지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H2O입니다. 산소와 결합돼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수소를 자연 상태의 지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극히 드물지만 황화수소 형태로 지구 화산활동에 의해 미량이 올라옵니다.

수소는 양성자입니다. 이 양성자는 질량이 가장 낮은 입자입니다. 중성자는 불안정한 입자로 대부분이 찰나적입니다. 10억 분의 1초 만에 사라지는 입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바뀌다 최종적으로 안 바뀌는 것이 이 양성자입니다. 양성자의 수명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10의 35 승 이상 살 수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우주의 나이만큼이나 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소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물 형태로 우리 몸에 있습니다.

우주 전체에도 수소가 대부분입니다. 태양계 중 목성이 대표적입니다. 목성은 수소로 이뤄져 있습니다. 목성은 물보다 조금 무겁습니다. 목성의 대기는 4000km에 걸쳐 가스 상태로 존재합니다. 토성도 거의 수소입니다.

우주의 큰 사건 중 네 번째는 항성이 출현한 것입니다. 항성은 별입니다. 목성 토성 지구는 별이 아니라 행성입니다. 항성은 태양입니다. 별이 되기 위해서는 핵융합을 해야 합니다. 그 많은 별들은 초단위로 수백만 개의 수소폭탄이 터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원핵세포의 출현입니다. 원핵세포가 38억 년 전 지구 표면에 출현했습니다. 45억 년 전 지구는 소행성들이 충돌해 녹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수증기가 된 대기가 식으며 바다가 됐습니다.

38억 년 전 원핵세포가 나타는 것은 일대 혁명이었습니다. 전체생명은 진핵세포와 원핵세포로 나뉩니다. 원핵세포는 생명의 정보인 DNA가 세포질 속에 부유하는 것을 칭합니다. 화합합성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 원핵세포는 Co2를 양분으로 합니다.

여섯 번째는 광합성입니다. 이산화탄소에 수소가 결합돼 포도당이 된 것입니다. 이 이산화탄소와 수소가 만나면 생명의 신비가 풀립니다. 38억 년 전 태양에서 강한 전기 자극에 의해 결합되며 포도당이 된 것입니다.

지구 대기에 산소는 초기에 없었습니다. 질소와 이산화탄소가 많았습니다. 대기 중 20%가 이산화탄소였습니다. 이런 이산화탄소가 현재 0.03%가 된 것입니다. 이산화탄소는 물에 잘 녹습니다. 바닷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나면 탄산수가 됩니다. 이 탄산수에서 양성자가 빠져나가면 탄산칼슘이 됩니다. 바로 산호와 조개껍질 등의 주원료입니다.

이것이 고생대 초기 바다 아래 계속 쌓이고 쌓여 눌리고 눌려 석회암이 됐습니다. 지금의 콘크리트, 시멘트가 된 것입니다. 선조들이 조개로 집을 지은 것이나, 현재 시멘트로 집을 짓는 것이나 매한가지인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다세포 생물의 출현입니다. 광합성으로 인해 산소가 증가하며 공기 중 산소 농도가 10%가 넘어가 시작된 변화입니다. 산소는 활성화가 잘 됩니다. 활성화된 산소는 산화작용을 하는데 이로 인해 끈적끈적한 콜라겐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여러 단세포들이 달라붙으며 다세포 생물이 탄생한 것입니다. 바로 6억 년 전입니다.

여덟 번째는 척추동물이 출현한 것입니다. 위의 다세포 생물은 출현 후 멸종합니다. 이후 지금으로부터 5억 4000만 년 전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캄브리아 생명의 대폭발로 불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때 강장 동물 등 대부분의 생명이 탄생합니다.

아홉 번째는 현생인류, 즉 호모사피엔스의 출현입니다. 현생인류 전까지 19종의 영장류가 경쟁했습니다. 그 결과 남은 유일한 호모사피엔스가 지금 70억 개체로 불렸습니다. 3만 년 전까지 마지막까지 경쟁한 종이 바로 네안데르탈인입니다.



지난해 12월 30일 봉은사 일요 명사 초청법회에서 청중은 숨소리를 죽이며 박문호 강사의 '불교의 우주관' 강의를 들었다.

우주의 출현은 중중무진
"의상대사 화엄법계도
우주의 흐름을 극명히 표현"

언어의 출현으로 인류 생존

열 번째는 바로 언어의 출현입니다. 위의 현생인류의 생존원인이 바로 언어의 발달입니다. 현생인류와 네안데르탈인은 모두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자음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언어가 모음 위주였습니다.

모음은 '으어으어' 길게 늘어지는 말입니다. 판소리 등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자음은 딱딱 분절음으로 끊어집니다. 무리가 규모가 커지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도 등이 필요합니다. 모음만으로는 그 구조를 견디기 힘듭니다.

예로 빙하기가 닥치며 사냥 등에 나섰을 때 모음 만으로의 언어로는 의사소통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생존이 결정됐습니다. 현생인류에 자음이 발달한 것은 네안데르탈인에 비해 초기 무리가 대규모였던 것이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인류는 언어를 50만개가량 사용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전체 우주의 흐름에서 이 언어의 출현이 얼마나 중요한 지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의 아홉 가지가 가능하게 된 것이 바로 언어의 출현에 의해서입니다. 바로 우리의 뇌 속에 가상세계를 만들어 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한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도구를 만든 것. 둘째는 상징을 만든 것입니다. 도구를 만든 것은 환경을 지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제도, 시스템, 이동수단 등은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내면으로 향하는 도구도 필요했습니다. 바로 상징입니다.

상징은 뇌가 만들어낸 인위의 것입니다. 그 안에는 종교도 있으며, 철학도 있고, 모든 학문이 있습니다. 이는 뇌가 만든 또 다른 우주입니다. 인간이 출현하며 상징을 만든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바깥을 향하지 않고 안으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외계인이 여의도에 도착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 외계인은 국회의사당 건물을 보며 '아 딱딱하다. 이것은 우리별에도 있다' 고 인식할 것입니다. 차를 보고서는 'Fe다' 고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KBS 간판을 보고서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네온사인 간판에 대한 물질적인 것은 알지라도 그 의미에 대해서는 한발도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것이 언어입니다. 언어는 전적으로 뇌가 만든 자극입니다.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언어인 것입니다.

불교 안에 우주가 있어

불교에서는 이런 우주의 세계를 잘 설명합니다. 법정 스님이 번역한 화엄경 내용 중 여래 출현품과 입법계품을 설명한 내용을 보면 여래는 무한한 인간, 무량한 인간으로 출현했다고 합니다.

'한량없는 법으로서 출현하느니라, 한 가지 사실로 출현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는 것들로 출현한다.'

이 내용을 봐도 우주의 출현은 중중무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경계가 여래의 경계인 것을 알면 속박도 해탈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 하나 생하면 종종 법이 생하고 마음이 멸하면 종종법이 멸하는 것입니다. 법계가 곧 우주인 것입니다.

경전에서는 여래가 한량없는 인연과 성취로 출현하며, 무량무변하므로 속박도 없고 해탈도 없으며, 크고 넓기가 허공과 같아 서로 장애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주의 흐름이 이와 같습니다.

의상 대사의 화엄법계도는 이런 우주의 흐름을 극명히 표현한 것입니다. 지엄 스님이 책을 던져 다 탄 것 중에 끝가지 타지 않고 남은 것이 바로 화엄법계도입니다. 우주의 시공이 어떻게 형성되고 진리의 본체에 가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우주의 본질은 바로 상호작용입니다. 어떤 양이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작용을 통해 결국 그 값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박문호는 … 1986년 경북대 전자공학과를 졸업. 전자통신연구원에서 일하다 1991~97년 미국 텍사스 A&M대에 유학하여 전자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7년부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천문학과 물리학, 뇌 과학 분야의 전문가로 통하는데 삼성경제연구원, 서울대, KAIST, 불교TV 등에서 우주와 자연, 뇌를 주제로 강연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2011년 펴낸 〈뇌, 생각의 출현〉은 그해 베스트 10에 오르기도 했다.

빅뱅 이후 빛이 나왔습니다. 로켓이 빛의 속도로 달린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로켓이 빛의 속도에 가까워 질수록 빛이 길어집니다. 하지만 빛의 속도가 되는 순간 모든 빛에서 길이가 사라지고 시간이 멈춰지게 됩니다.

이를 과학에서는 로렌츠 수축이라고 합니다. 공간이 사라지고 동시에 시간이 영원히 멈추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있지만 없는 듯 그대로 상주하는 상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모든 공간이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요, 부증불감입니다.

반야심경의 내용과도 통하는 것입니다. 공(空)은 에너지 차이가 없는 세계이며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 세계이므로 감각기관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제법공상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의 세계인 것입니다.

반야심경의 세계는 또 에너지의 차이가 없음도 설합니다. 에너지의 차이가 없으면 상호작용에 의한 모든 감각이 사라집니다. 저절로 안이비설신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감각과 차이를 인식하지만 그 것을 극복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물은 감각에 구속되며 인간은 의미에 구속됩니다. 우주는 중력에 구속됩니다. 인간은 언어를 쓰기 때문에 의미에 구속돼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어도단의 경지, 의미에 천착하지 않는 자세에서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광고는 본사의 입장과는 관계가 없는 공고 광고 입니다.

공 고

귀의 삼보하옵고

본 종단 (사)한국불교 조계종 종도님께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현대불교신문 제921호 (2013년 1월 2일자)에 전국사설사암단체 총연합회 대표가 한국불교 조계종 명칭으로 신문에 게재한 광고 건에 대하여 종도님께 알리고자 합니다. 본 종단 (사)한국불교 조계종은 창종된지 20년 가까이 된 비영리법인으로써 지금까지 법맥을 이어왔습니다. (사)한국불교 조계종 종단은 2010년 4월에 전국사설사암단체 총연합회에 종단 등록과 지부등기, 고유번호 등으로 한국불교 조계종 종단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국사설사암단체 총연합회에서 종단등록과 고유번호와 지부등기까지 발급하면서 이와 같은 행위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행위며 앞으로 각 종단들은 총연합회를 어찌 믿고 가입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전국사설사암단체 총연합회는 한국불교 조계종 명칭 관계를 법적으로 해결하여 주겠다고 저희 종단과 약속하였습니다. 이후 2010년 8월 시작하여 한국불교 조계종은 법적문제에 집착하다보니 그사이에 전국사설사암단체 총연합회는 서울시 지방에 2012년 4월에 한국불교 조계종 법인을 내었습니다. 전국사설사암단체 총연합회에서 이런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 종단 (사)한국불교 조계종 종도님께서는 전국사설사암단체 총연합회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단체의 문화, 법인, 복지, 규모, 시설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의문이 있으신 분은 본 종단 (사)한국불교 조계종 총무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월 7일

(사) 한국불교 조계종 비상대책위원회
(사) 한국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대봉** 합장

총무원 : 경북 문경시 마성면 신현 1리 300번지 총본사 백 봉 사
전화 : 1577-1016 / 054)571-7497 / 054)572-1034 / 054)571-1030 팩스 : 054)571-7498

불교학 저변 확대의 원년되길 기대

2013년 올 한해 학술계를 달굴 이슈는 무엇일까?

2013년 불교학계의 이슈는 무엇이 될까.

가장 먼저 손꼽히는 것은 우수학술지 선정 논란이다. 교과부는 2012년 학술지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2014년까지 학술지 등재 제도를 없애고, 학술지 평가를 학계 자율평가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문학총연합회를 비롯해 인문학계는 우수학술지 지원사업이 인문학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우수학술지 사업 재원이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지원예산과 겹치기 때문에 우수학술지 지원에 재원이 몰리며 소수학문과 지방학술지를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2012년 12월 말 발표된 우수학술지 선정에서는 7종의 학술지를 선정한다는 당초 계획과 달리 5개만이 선정됐다. 인문학계의 반대로 인문분야를 통틀어 1개의 학술지 만이 지원을 받았다.

불교학계는 기존 학술지 지원제도를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학술지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3년에는 우수학술지 지원제도에 대한 찬반 논란과 함께 불교학 등 인문학 발전을 위한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에는 40주년과 20주년 등 각 단체들의 창립을 기념한 굵직한 행사가 마련된다.

창립 40주년을 맞은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용표)는 2월 1일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기념행사로 동계 불교학 워크숍을 개최한다.

우수학술지 선정, 평가 논란일 듯
20·40주년 맞은 단체들 사업 본격화
성철, 탄허, 경운 등 큰 스님 선양

'나의 학문과 저서, 저자로부터 듣는 불교학이야기' 란 주제로 진행되는 이날 워크숍에서는 그동안 논문 발표형식으로 진행되던 워크숍 방식을 탈피해 연구자들이 저술 과정에서의 정성과 열정을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권오민 경상대 철학과 교수의 '상좌 슈리라타의 경부비바사 연구', 김성철 동국대 불교문화학부 교수의 '승랑 : 그 생애와 사상의 분석적 탐구',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의 '한국불교사연구', 동국대 교양교육원 교수 자현 스님의 '사찰의 상징세계' 등 주제발표가 이어지며 박창환 금강대 불교학부 교수, 김영진 동국대 HK 연구교수, 이기운 동국대 불문연 연구교수, 동국대 강사 태경 스님이 참여하는 토론도 진행된다.

창립 20주년을 맞은 고려대장경연구소는 2012년부터 준비한 사업들의 결실을 발표한다. 고려대장경연구소는 2010년부터 고려초조대장경 복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2012년부터 고려대장경 교장의 DB전산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고려대장경연구소는 대장경이 기존의 경·율·론 삼장에서 교장과 선장(禪藏)을 포함한 5장의 전산화 및 연구사업을 진행 중이다.

고려대장경연구소는 그 일환으로 3월 28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창립기념 법회에 앞서 고려교장 연구사업 성과 발표회를 갖는다. 또 3월 중 대구 동화사와 일본에서 봉정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신라문화원도 20주년을 맞아 2월 중으로 특별강연회를 개최하며 가산불교문화연구원도 20주년을 맞아 연구원을 창립한 前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추모하는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2012년 개원 50주년을 맞은 불교문화연구원도 5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국내 학술연구에서 북한 지역 연구로 사업을 확장해 5월 경 '북한의 불교와 문헌'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밖에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큰 스님들의 탄신·열반을 주제로 한 학술행사도 활발히 진행된다.

먼저 한국 불교의 최고 학승으로 꼽히는 탄허 스님의 탄신 100주년이자 열반 30주기를 맞아 스님의 주석처였던 평창 월정사는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4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탄허대종사의 인재양성과 교육이념의 시대정신' 주제 학술심포지엄을 연다.

성철 스님 열반 20주기를 맞아 백련불교문화재단은 11월 중으로 20주기를 총정리하는 결산 학술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태고종에서도 일제강점기 대강백으로 추앙받은 경운 운기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처음으로 조명하는 학술세미나를 6월 14일 개최한다.

선양 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학술세미나에서는 지난해 〈불교평론〉 사태와 같은 필화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1월 5일 개최된 청화 스님 열반 1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도 제출된 보광 스님의 논문이 문도회 측의 반대로 발표가 중단된 바 있다. **노덕현 기자**

봉선사 큰법당 근대문화재 등록

운허 스님 한글 역주 원력… 전통구조에 콘크리트 사용 특색

남양주 봉선사 큰법당이 등록문화재에 등록됐다.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는 구랍 14일 "한국 사찰 최초의 철근콘크리트 건물 법당으로 운허 스님이 발원한 중요성이 크다"며 봉선사 큰법당을 등록문화재 제522호로 지정했다.

봉선사 큰법당은 불교 대중화에 앞장선 운허 스님의 뜻에 따라 대웅전 현판을 한자인 '大雄殿'으로 하지 않고 '큰법당'이라고 한 바 있다. 한국전쟁 당시 전소돼 1970년 운허 스님에 의해 새롭게 조성됐다.

전통건축물을 모방한 콘크리트건물의 초기 작품으로, 남아있는 전통목조양식을 모조한 콘크리트 건물 가운데 가장 완성도가 높고 전통목조건축물을 재현한 초창기 콘크리트건물로서는 조형감이 뛰어난 건물로 평가되고 있다.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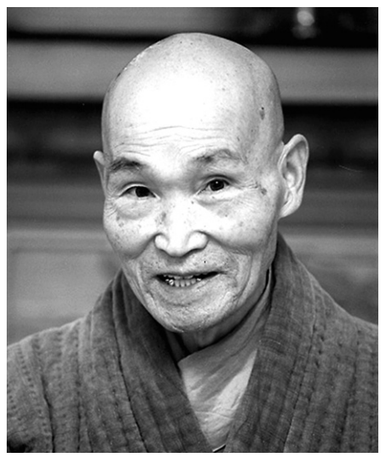


봉선사 큰법당. 대웅전을 한글로 번역해 '큰법당'이라 이름 붙여졌다.

"염불선은 붓다 재세시 시작된 불교 전통수행법"

청화 스님 열반 10주년서 염불의 시원 재조명

청화 스님 열반 10주년 추모 학술세미나에서 조사들의 사상에 나타난 염불선(念佛禪)이 집중 조명됐다.



청화 스님(淸華, 1923~2003 · 사진)은 1947년 백양사 운문암에서 금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청화 스님은 40여 년간 20여 곳의 토굴을 옮겨 다니며 하루 한 끼만 먹는 일종식(一種食)과 자리에 눕지 않는 장좌불와(長坐不臥) 수행을 계속 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수행승이다.

1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에서 벽산문도회와 청화사상연구회가 주관해 열린 추모세미나에서는 조준호 교수(한국외대 남아시아연구소)의 '초조달마대사 어록에 나타난 염불선'을 통해 염불선의 연원이 초조 달마 대사에 있음을 밝혔다.

조 교수는 염불선의 근원이 초기불교 수행법으로 시작해 초조 달마 대사, 4조 도신 스님 등에 있음을 주장했다.

조 교수는 "염불선은 부처의 성품과 공덕을 입으로 염하며 그 성품을 따르기를 서원하는 행법으로서 염불이 출발한다"며 "염불선의 선(禪)은 바로 선정(禪定)이나 삼매(三昧, samadhi)와 동의어로 보편적 수행법이었다"고 말했다.

달마 스님의 염불선과 현재의 염불선의 발전에 대해 "하지만 염불에 대한 초기선불교의 태도는 후대선종과 달랐다. 초기선종 염불수행은 선불교의 보편적 수행전통인 선정에 바탕을 뒀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정토종(淨土宗)과 차별성을 갖기 위해 염불자체를 선종이 스스로 멀리했다"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당시에도 〈염불삼매경〉 〈염불보왕삼매론〉 등 경명은 '염불삼매'나 '염불정(念佛定)'이 널리 보편화됐음을 알려준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또 "불교경전에 붓다가 중생의 근기와 성향에 맞게 제시한 다양한 종류와 단계별 수행법이 있음에도 대부분 사장되거나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많은 수행전통들이 단절됐다"며 "현실은 과거처럼 획일적인 하나가 용인되거나 강조될 수 없는 다양성과 다원화된 시대에 걸맞게 과거처럼 특정 수행법만이 정통이라고 하는 낡은 시대는 지났다"고 말했다.

이어 조 교수는 "대중들의 다양한 근기와 성향에 걸맞게 다양한 수행법이 제시되는 친절한 불교가 돼야 한다"면서 "오랜 불교 역사 속에 전개되어 왔던 다양한 수행전통의 복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금타 스님과 청화 스님의 염불선은 의미가 크다"며 "우리시대에서 청화선사의 염불선은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수행풍토를 벗어나 근기와 성향에 맞게 불교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그 가치를 진단했다.

한편, 청화 스님의 〈원통불법의 요체〉를 분석한 최동순 교수(동국대 불교학술원)는 "격동기의 시대적 대립과 질곡을 해소하려고 원통불법의 기치를 들었다"며 "청화 스님은 간화선이 누구나 향유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기의 차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수행법으로 염불선을 제시한 것"이라 진단했다.

최 교수는 "스님은 평생을 '지(止)' '관(觀)' '혜(慧)' '정(定)' 수행으로 살며 선법 체계화를 이뤘으며 수행목표로 '안심(安心)'으로 삼았다"며 "안심은 깨침과 동등한 의미로 스님은 정토구현이 대중들의 '안심 도달'이라고 봤다"고 밝혔다.

박경준 교수는 혜능선사의 선사상과 청화 스님의 실상염불선을 비교 검토하며 "혜능대사의 가르침에 잘 조응하고 있는 등 두 선사의 사상이 맞닿아 있음을 규명했다.

이날 벽산문도회 회장 용타 스님도 "청화 스님은 수행이 삶이었고 삶이 또한 수행이었다"고 회고하며 "분열과 갈등의 시대에 스님의 모습에서 진실한 수행자를 발견해 해답을 제시하자"고 말했다.

청화사상연구회와 벽산문도회는 이날 세미나를 시작으로 선서화전과 법어집, 추모사진집 발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문화재청, 문화재 안전관리 교재 보급

사찰방재예측 시스템 등 문화재 방재 예방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화재청이 문화재 재난 피해 교육자료인 〈문문화재 생물피해관리 매뉴얼〉과 〈문화재 안전관리〉를 개발해 보급했다.

〈문화재 생물피해관리 매뉴얼〉은 목조문화재에 피해를 주는 해충의 습성과 피해예방을 위한 일상관리요령 등을 수록하고 있다. 〈문화재 안전관리〉는 문화재의 재난피해 특성, 안전관리 활동과 방재시설물에 대한 점검요령 등을 기술했다.



문화재 안전관리 교육교재

이번에 문화재청이 개발한 매뉴얼과 교재는 사찰방재예측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불교계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이번 매뉴얼과 교재를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에 전자파일로 게재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불교평론, 박세일 이사장 초청 열린논단

1월 17일…주제 '정치 발전 위한 불교의 역할'

불교 전문 계간지 불교평론이 '정치발전을 위한 불교의 역할'을 주제로 2013년 첫 열린논단을 개최한다.

불교평론은 경희대 비폭력연구소와 공동으로 1월 17일 오후 6시 서울 강남구 신사동 불교평론 세미나실에서 1월 열린논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린 논단에서는 '정치발전과 불교의 기여'를 주제로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발제하며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 이사장은 독실한 불자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한나라당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불교평론은 "새 정부 수립에 맞춰 정치발전을 위해 불교가 해야 할 역할을 고민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열린논단을 통해 사회적 과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모집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13년도 초급·중급·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작법(바라춤,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신중작법39위,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다. 강 주 : 석법운 스님, 월봉 스님

2.개강식 및 수업일시
■ 개 강 식 : 2013년 3월 4일 (월요일)
■ 수업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 5시 (사정에 따라 요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804-5번지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무원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1-544-2605



영 남 전 통 범 음 · 범 패 교 육 원

알기쉽고 이해하기 쉬운 인간의 속마음을 꽤뚫어보는법

제 1기 힐링 분석 상담사 자격과정 교육생 모집 (누구나 저렴한 교육비)

감정, 의지, 정신의 사용유형를 분석 치유, 심리, 영적인 ,미래예측, 인간관계, 학생들의 인성지도와 진학지도, 직업상담, 연애, 풍수, 수맥, 사업종목선정 등에 활용 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힐링분석 상담사과정. 현재의 문제점을 빠르게 간파하는방법
〈개인 상담료 4만 자신의 감정, 의지, 정신의 사용유형 분석을 책자로 만들어 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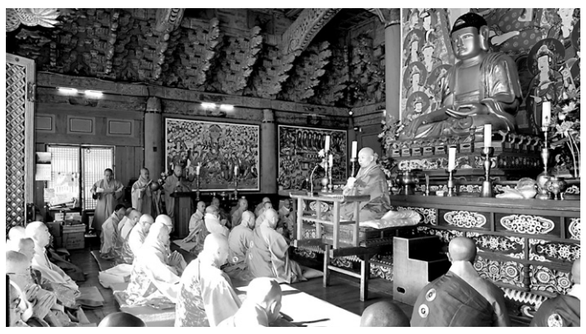
1. 육체적인 질병과 건강.내분비선의 이상유뮤
2. 성적인 능력의 사용유형 .성능력의 성향분석
3. 감정적인 조절능력과 건강을 돌보고자하는 능력
4. 사랑을 나누는 방식과 인간적인 대인관계능력 (인간관계의 특징)
5. 자신의 야망과 직업적인 적성과 직업의 만족도와 학업 성취력 (직업적인성취도)
6. 정신적인 이해력과 행동과정 (빙의와 정신이상 우울)
7. 영적인 수행능력과 통합능력 (깨달음의 통합능력)
8. 미래 예측 ,사업종목,직업,적성,궁합,성격,풍수,수맥 과학적인 에너지분석
9. 강의가 필요한 기업체 사장님이나 단체는 연락주시면 선별후에 연락드립니다.
필요한 인재를 선택하는 방법, 적상과 솔질에 따른 부서배치, 자녀의 진로.

※ 진동주파수감지를 통한 다우징기법 미국의 존피에코라스박사의 방법
1. 일반인반 4회 - 완성 과정 (책자제공)
2. 전문가반 6회 - 필기와 실기 시험을 통과한 자 (책자제공)
※ 힐링분석상담사란?
민간자격증으로 인간의 전기장을 통해 그 사람의 현재의 문제점 감정, 의지, 정신의 사용유형 읽어 치유와 건강, 심리, 궁합, 직업, 적성,인성을 개발 상담해주는 전문가로 활동한다.
협회 가입 자격증 발급과 월 2회 사례발표회와 특징
공개 강좌 : 월 2시, 토 2시 , 목 2시 공개 강좌 및 강의 진행
힐링분석상담사 협회 협회장 김광우 (빛의 친구)

인체전기 파동의학 043)296-5258 / 010-9242-5259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642-21 바우빌딩 5층
영혼은 몸을 통해 이야기하기에, 진실을 체험하게 해주는 건 우리 몸이다.

대 사회적 자비행 실천 함께 다짐

전남북 사찰 및 단체 신년하례법회 열어





혜초스님은 하례법회에서 "태고종의 발전은 교육에 달렸다"며, 총무원에서 종도 교육에 집중해주기를 당부했다(사진왼쪽). 전북사암승가회 신년하례법회에 신행단체 불자 500여 명이 동참해 포교활동에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태고종…종도교육 집중하기로
총무원장 선거 앞둬, 사찰 분한신고
전북사암僧…지역별 신도조직 체계화
자원봉사, 청소년 포교 활성화 발원

계사년 새해를 맞아 포부와 원력을 세워 보살행을 다짐하는 신년하례법회가 호남 지역에서 봉행됐다. 태고종과 전북사암승가회는 법회에서 올해의 계획들을 발표하고 종단화합과 대중포교활성화를 다짐했다.

"이 상서롭고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아래 세상을 향한 첫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고 새롭게 나아가는 주인공이 됩시다"

한국불교 태고종(총무원장 인공)이 계사년 새해를 맞아 종정 혜초 스님 친견 신년하례법회를 지난 10일 태고총림 순천 선암사 대웅전에서 봉행했다.

행사는 법요식에 이어 세알삼배, 상축, 종정예하 신년하례, 청법게, 법어, 인사말 등이 진행됐다.

하례법회에는 종정 혜초 스님, 총무원장 인공 스님, 중앙종회의장 도산 스님, 호법원장 운곡 스님, 선암사 주지 설운 스님, 초심원장 구산 스님, 각 지역 종무원장을 비롯해 300여명의 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종단화합과 발전을 서원했다.

혜초 스님은 신년법어에 이어 종도들에게 "종단의 사부대중의 덕행으로 지난 한 해를 잘 보냈다. 올 해에도 화합하고, 위·아래가 잘 융통하기를 바란다"고 말을 전했다. 스님은 이어 "태고종의 발전은 교육에 달렸다"며 총무원에서 종도 교육에 집중해주기를 당부했다.

인공 스님도 인사말에서 "올해에 새로운 지도자의 선출이 종단과 불교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세계적 문화유산인 영산재 전수관 건립과 사회 포교역량을 강화해 대사회봉사활동과 불교문화의 대중성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했다.

태고종은 올해 차기 종단을 이끌어갈 총무원장 선거와 각 지역 종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태고종 스님과 사찰에 대한 분한신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행사가 열린 선암사는 향후 5년간 295억 원을 소요하는 종합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됐다.

주지 설운 스님은 인터뷰를 통해 "문화재청에서 지난 10월 17일 발표된 최종보고서에 의해 향후 5년간 진입로와 탐방로 정비를 비롯해 목조건축정비, 석조건축정비, 관광역역 조성, 광역관광 연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돼 연차적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해 스님은 "선암사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과 함께 선암사의 역사문화경관이 보존되고, 진입동선과 템플스테이 활성화, 성보박물관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고 했다.

스님은 이어 올해 선암사의 사업에 대해 "단기결제(안거)의 정기적 실시와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영산재 홍보, 경대불사, 보살계 수계법회를 통해 교육도량으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선암사에 대한 조계종과의 협상에 대해서는 "기존 10인(조계종 5인, 태고종 5인) 위원회를 4인 위원회로 간략화해서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전북사암승가회(회장 원행)는 1월 5일 전북불교회관에서 전북불교신도회(회장 김백호) 주관으로 신년하례 법회를 열었다.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과 금산사 회주 도영 스님,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을 비롯한 지역 스님들과 박성일 전북 행정부지사, 김승환 교육감, 송하진 전주시장, 이상직 국회의원을 비롯한 기관장들과 김백호 전북신도회장 등 각 신행단체 불자 500여 명이 동참했다.

월주 스님은 법어를 통해 "자비사상을 실천하는 복지활동을 통해 고통을 덜어주고 즐거움을 전달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설했다.

스님은 또 "소통과 민생 또한 중도사상을 통해 실천돼야 하며 국민화합과 동서화합에 전북 불자들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원행 스님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각 지역 사찰주지스님들이 앞장서 신도님들의 교육과 포교, 대중교화사업을 열심히 해나갈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군 신도회와 권역별 체계화된 신도조직으로 신도배가 운동을 전개, 전북불교자원봉사단 활동과 사업의 능동적 육성, 미래불교를 책임져야할 청소년 포교의 교두보 확보, 템플스테이를 문화포교의 모범 육성, 호국애민 사상을 고취하고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전법과 포교의 프로그램 개발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신년하례식에서는 익산 연국사 묘주 스님과 선국사 희권 스님이 모범사찰 표창을 수상했으며 각 분야별 신도조직을 모범적으로 이끌고 있는 안심사 일요법회 이완영 회장들에게 포교대상이 수여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 다문화가정 위한 전래동화 展

아시아밝음공동체, 불교국가 그림책 전시회 개최

아시아의 다양한 전래동화를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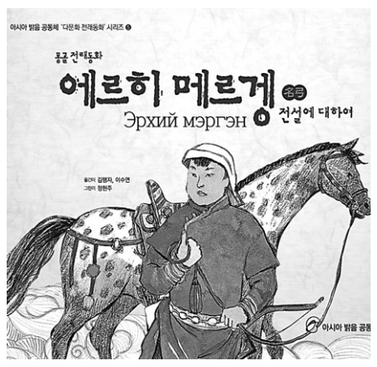
아시아밝음공동체(대표 도제)는 지난 16일까지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의 거래에 위치한 무등갤러리에서 전래동화 삽화전시회 '눈으로 말하는 세계 속의 숨겨진 이야기' 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는 일반 시민들이 결혼이민자의 출신국 문화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된 오해를 불식시키고, 다문화가족의 아이들이 한국문화의 획일적인 교육방식으로 인해 부모의 출신국 문화를 받지 들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마련된 것이다.

행사는 광주광역시 동구청과 함께 아시아밝음공동체에서 출판한 중국, 베트남, 일본, 스리랑카, 몽골전래동화의 그림책원화를 가지고 전시회가 진행됐다.

특히 지역 예술 작가들과 결혼이주민들의 순수한 마음을 더해져 뜻깊은 전시회를 꾸몄다.

그림책 작가인 이미경(서림초교:베트남동화삽화-마술석궁)교사는 "다문화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피부가 다르다고 외면받는 이들을 위한 희망나눔 프로젝트이며, 한국사회의 온정을 알려주고자 행사를 준비 했다"고 했다.



몽골전래동화 '에르히 메르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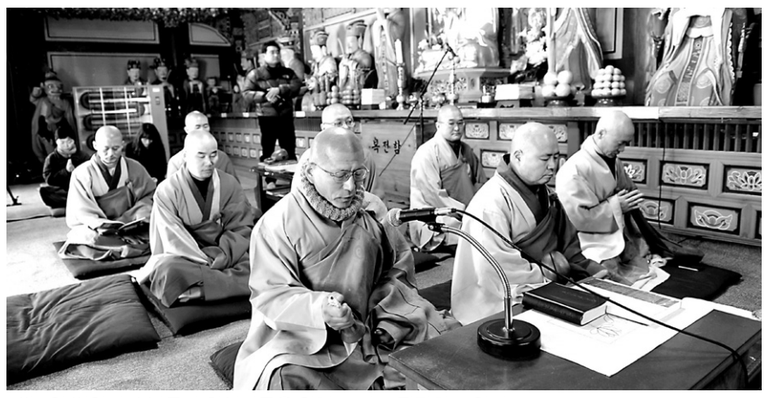
이날 전시된 동화책들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지원사업으로 정현주 화가(몽골동화-에르히메르겡 · 사진)를 비롯하여 번역작가와 삽화작가들이 재능기부로 만들어졌다.

아시아밝음공동체는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아시아 각 나라의 동화책을 출판하고 있으며, 각 나라의 도서로 꾸민 다문화 도서관을 개관 준비중에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백양사, 촛불화재 희생위한 49재 봉행

유가족 방문, 위로금 전달



1월 8일 백양사 스님들이 희생자들을 위해 49재를 집전하고 있다.

지난해 생활고로 인해 촛불을 켜고 잠을 자다 화재로 숨진 할머니와 외손자의 넋을 위로하는 49재가 장성 백양사에서 봉행됐다.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진우)는 1월 8일 경내 명부전에서 유가족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49재를 열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이날 49재는 지난해 11월 전남 고흥군 도덕면 신양마을 주모(60) 씨 집에서 할머니와 손자가 전기가 끊겨 촛불을 켜놓고 잠자다 화재가 발생해, 주모 씨는 얼굴 부위 등에 화상을 입었고 그의 아내 김모(58) 씨와 외손자(6)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희생자들의 천도재이다.

이 사고는 6개월 전기요금 15만원 내지 못해 전기가 단전된 집에서 촛불 켜고 살았던 가족들의 사연이 전해지면서 큰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에 백양사는 최근 참사람운동 결사법회를 통해 새롭게 시작하면서 화상으로 병원에 입원해있는 상주 주모씨를 위로방문하고 위로금을 전달했으며, 숨진 가족의 49재를 약속했다.

이날 천도재에는 주지 진우스님을 비롯해 유가족 등 20여 명의 대중이 참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불자예술인 요양병원서 봉사

"병마에 시달린 어른들에게 새해의 희망과 즐거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광주전남지역 불자공연예술봉사단(단장 이현하)이 지난 4일 광주광역시 임동에 위치한 효자요양병원을 방문해 100여명 어르신들에게 위문공연을 펼쳤다.

이날 공연은 광주전남지역 포교사와 불자예술인으로 구성된 불자공연예술봉사단이 부채춤(어울림국악예술단)과 교방무, 각설이, 전통가요 등을 펼쳐 오랜 병마에 시달리는 어르신들에게 흥겨운 시간을 선사했다.



효자요양병원에서 광주불자예술인들이 병마에 시달리는 어르신들을 위해 공연을 펼치고 있다.

행사를 개최한 이현하 단장은 "새해를 맞아 그리운 자식들과 떨어져 혼자 적적하게 보내시는 어른들에게 즐거움과 희망을 드리고 싶어 행사를 개최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불자공연예술봉사단은 포교일선에서 봉사 활동과 노인요양시설 위문 공연 등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포교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고불총림 26일 방장후보 선출 산중총회

고불총림 백양사 차기 방장 후보자를 선출하는 산중총회가 1월 26일 오후 1시 경내 교육관에서 열린다.

산중총회 구성원 자격은 △당해 교구의 재적승으로 법계 중덕 이상의 비구스님 △당해 교구본사에서 임명받아 2년 이상 상근한 국장급 이상 종무원 △당해교구 본말사 주지로 2년 이상 재직중인 비구 스님 △당해 교구 말사주지로 2년 이상 재직 중인 비구니 △당해 교구에서 4년 이상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고 산중총회 개회일 전 4년 이내로 당해 교구 선원에서 8안거 이상 성만스님 중 법계 중덕 이상의 비구 스님 등이다.

이나은 기자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 마다 한 알씩 꿰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딛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꿰게 되면 업장은 멸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 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얀마돕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DDM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영남 불교계 한마음으로 불법 홍포 서원

부산 · 대구 등 신년하례법회 일제히 봉행

계사년 새해를 맞아 영남 불교계가 화합과 발전, 중흥을 발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수불)와 부산불교연합신도회(회장 이윤희)는 1월 10일 부산 코모도호텔 1층 그랜드볼룸에서 '부산불교 신년하례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지역 108개 사찰, 108명의 스님과 허남식 부산시장, 임혜경 부산시교육감, 부산상공회의소 조성제 회장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 대중들은 출 · 재가가 서로 마주보며 새해 첫인사를 나누며 새해 전법 원력을 다졌다. 행사는 불교연합회 회장 수불스님의 신년사, 이윤희 불교연합신도회장님의 봉행사, 허남식 부산시장의 축사와 정관 대종사의 법어, 축하 떡나눔, 건배 제창으로 진행됐다.

부산불교연합회는 2013년 부산불교 신년비전으로 2,000 청정승가와 200만 부산불자가 한 마음 한뜻으로 '실천하는 수행공동체'를 제시했다. 또 △화합과 번영의 부산불교 △행동과 실천의 부산불교 △전통문화 계승에 앞장서는 부산불교를 표어로 내걸었다.

조계종 원로의원 정관 스님은 신년법어를 통해 "일체중생 모두가 자기 제도의 발심자가 되고, 대도무문으로 나아가는 수행자가 되어 백세까지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자"고 발원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부산불교연합회와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원장 인환)의 팔관회 문화재 등재를 위한 업무협약식도 개최됐다. 부산불교계는 향후 팔관회 세미나, 팔관회 관련 도서출판 등 적극적 행보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대구지역 불교계도 1월 4일 대구 프린스호텔에서 신년하례법회를 열고 대구 불교발전을 기원했다.

이날 자리에는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과 태고종 지장사 준범 스님 등 지역 스님들이 모두 첨석했다. 또 우동기 대구시교육

부산불교 '화합 · 실천' 기치

대구불교 '자비행 · 정진' 기원

한국불교대학 '사회적 기업' 설립

감과 조원진 국회의원 등 각계 인사 300여명이 운집해 불법홍포를 다짐했다.

성문 스님은 신년사를 통해 "모든 불자들의 가슴에 자비와 지혜가 충만해 우리 사회 곳곳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큰 강물처럼 흘러 올해가 상생과 화합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대구 지역 유명사찰인 한국불교대학대관음사 한국불교대학도 신년교례회를 열고 계사년 힘찬 정진을 다짐했다.

한국불교대학은 1월 5일 대구큰절 옥불보전에서 대구큰절 주지 밀허 스님을 비롯한 국내 10개 도량의 주지스님들과 임미화



1월 4일 대구 프린스호텔에서 열린 대구불교총연합회 신년하례법회.



1월 10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열린 부산불교연합회 신년하례법회.

총동문회장 등 핵심임원진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인사를 나눴다.

이날 밀허 스님은 법어를 통해 "한국불교대학은 사회적 기업을 세워 수익금을 기아구호와 의료사업에 쓰는 등 올해도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널리 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며 신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또 이 자리에서 2013년 만명을 새롭게 포교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다짐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 손문철 대구지사장

사)대원불교조계종 신년하례법회

사)대원불교조계종은 총본산인 경남 양산 불광사에서 1월 7일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종정 청봉 석정산 스님을 비롯해 각 원장스님과 종단 종도 200여명이 동참했다.

청봉 스님은 신년인사로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경제적인 불황과 정치적 불안, 그리고 사회적 혼란이 계속 이어졌으며 세대와 계층 간의 갈등도 많았다"며 "어려움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을 먼저 베려하고 남을 마음속 깊이 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봉 스님은 "선행을 베풀고 덕을 많이 쌓아 원하는 일이 원만성취되며 국운 또한 융성해 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란다"고 덕담했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동화복지재단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위탁

대구 동화사 부설 '동화복지재단'이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위탁 운영업체로 선정됐다.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과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1월 4일 수성구청에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위탁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진발골 정상에 위치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은 국비와 구비 등 41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천 500여 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됐다.

이르면 2월 중 개원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월정사, 스페셜 올림픽 호스트 타운 운영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가 올해 열리는 스페셜올림픽을 위해 1월 26~29일 호스트타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호스트타운 프로그램은 경기 전 선수들이 개최국에 머물면서 시차 · 기후적응을 비롯해 개최국의 다양한 문화체험을 하고 스포츠훈련을 통해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를 준비할 수 있는 문화행사 프로그램이다. 홈스테이 개념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는 헝가리 선수단 46명과 60여 청소년 자원봉사단이 참여한다. 참가자들은 염주만들기, 연꽃등 만들기, 전통문화체험, 사물놀이체험, 작은음악회 등을 체험한다.

신중일 기자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불법수호와 무관한 장승 조형물

장승은 나무나 돌로 만든 기둥의 윗면에 신이나 장군의 얼굴을 새기는 일종의 신상이다. 사찰에서도 들어가는 입구에 장승을 만들어 세웠는데, 그 전통은 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사찰에서 볼 수 있는 장승의 유형을 보면 비보나 방위표의 기능을 가진 장생표(長生標)가 있고, 청정법역 수호의 기능을 가진 호법장생(護法長柱)이 있다.

초기에 만들어 세운 호법장승에는 방생정계(放生定界), 호법선신(護法善神), 가람선신(伽藍善神) 등과 같이 경내의 청정함이나 사찰수호를 염원하는 명문이 새겨졌다. 이후 점차 상원주장군(上元周將軍), 하원주장군(下元周將軍) 등과 같이 중국의 장군이름이나 금귀대장(禁鬼大將) 등과 같이 벽사에 관련된 명문을 새겨 넣었다.

이러한 호법장생들은 시간이 갈수록 불법수호라는 고유의 기능으로부터 변질되어 마을수호, 방위수호, 산천비보 기능을 가진 법수, 장생 등과 큰 차이가 없어지게 된다. 장승에 새긴 명문도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등 일반적인 것으로 바뀌게 되며, 세우는 장소도 사찰이 위치한 마을까지 영역을 확대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직까지도 고찰에 가면 사찰 올라가는 길 좌우에 대칭으로 만들어 세운 오래된 장승들을 볼 수 있다. 불법을 수호하기 위해 세워진 이 장승들은 험악하고, 위압적인 모습을 하고 있어야 마땅하나, 그 모습들을 보면 하나같이 퉁방울눈에 유난히 큰 주먹코를 한 것들이 많다. 이것을 보면 악귀나 잡신들이 부처님도량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 세운 장승에서조차 한국인의 해학적 표현방법을 볼 수가 있어 미소가 절로 나온다.

최근에 여러 사찰의 입구에 장승을 무더기로 만들어 세운 경우를 볼 수가 있다. 이 절, 저 절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이러한 모습은 장승의 본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장승을 하나의 조형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장승에 새겨진 명문도 사찰의 수호나 불법의 수호와는 관련이 없는 애매한 것들이 많다. 그야말로 무엇 때문에 장승들을 무더기로 사찰입구에 만들어 세웠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지금까지 우리 사찰에 도입된 조형물들은 하나같이 불교의 교리와 연관된 것이거나, 불법을 수호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거나, 사찰의 격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들이었다. 이것을 단순한 조형물의 개념으로 이해해서 마구잡이로 만들어 세우는 것은 곤란하며, 본래의 조형의도와 다른 것들은 과감히 철 거 해 야 할 것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충청남도 ㄱ사찰 올라가는 길에 만든 장승공원의 장승



역사와 전통 그리고 새로운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신심과 원력의 수행도량!

– 운문사 승가대학에서는 2013학년도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운문승가대학 신입생 모집 공고

▣ 자 격 : 1. 2013년 봄 수계자까지 가능
2. 타 승가대학생인 경우 1년 이상 휴학한 스님
▣ 모집인원 : 사미니과 ○○명
▣ 시험과목 : 면접, 사미니율의, 불교 기초교리, 초발심자경문, 불교의식
▣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2. 은사스님 추천서
3. 본인 사미니증(승려증) 사본 및 은사스님 승려증 사본
4. 본인 법명 도장 및 증명사진(장삼 · 만의 착용) 2매
5. 건강진단서(보건소 제외) 및 최종학력 증명서
▣ 준 비 물 : 만의, 장삼, 사미니증(승려증), 필기도구
▣ 모집기간 : 2013년 1월 15일(음력 12월 4일)~2013년 1월 30일(음력 12월 19일)
(사전에 우편 혹은 전화, 직접 방문 접수 가능)
▣ 도착일시 : 2013년 1월 30일(음력 12월 19일) 오후 4시까지
▣ 시험일시 : 2013년 1월 31일(음력 12월 20일) 오전 7시
▣ 교 통 편 : 대구 남부 버스정류장에서 오전 7시 ~ 오후 7시까지
운문사행 시외버스 수시 운행(운행간격 1시간)

운문승가대학 회주 법계 명성 · 학장 홍륜 · 주지 일진

2013년 한문불전승가대학원 · 보현율원 신입생 모집

▣ 모집대상 : 기본교육기관을 졸업하고 비구니계를 수지한 스님
2013년도 봄 수계예정자 포함
통학도 가능함
▣ 모집인원 : ○○명
▣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 율원 · 대학원 소정양식)
2. 수행이력서
3. 은사스님 추천서
4. 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5. 기본교육기관 졸업(예정)증명서
6. 건강진단서(보건소 제외)
7. 증명사진 2매
▣ 전형방법 : 서류심사, 면접
▣ 준 비 물 : 가사, 장삼, 승려증
▣ 전형일시 : 2013년 1월 30일(음력 12월 19일) 오후 2시

운문사 승가대학원장 명성 · 보현율원율주 홍륜 · 주지 일진

♣ 승가대학 신입생, 보현율원 및 한문불전승가대학원 신입생 모집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 문의 (054-372-8800, 370-7100)와 운문사 홈페이지(www.unmunsa.or.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라인은 왜 사리를 탑 상층부에 모셨을까

신라인들의 탑파 신앙

염불사지부터 남산리까지 답사

경주 남산은 신라 불교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노천 박물관이다. 산 곳곳에 147개의 절터와 120여 구의 불상, 99기의 석탑과 22기의 석등이 천년 신라의 시간을 간직한 채 산재돼 있다. 본지와 신라문화원은 공동으로 경주 남산의 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불적 답사를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총 12회에 걸쳐 진행한다. 남산의 탑파 신앙, 설화, 불상 등 테마별로 진행되는 불적 답사를 지면에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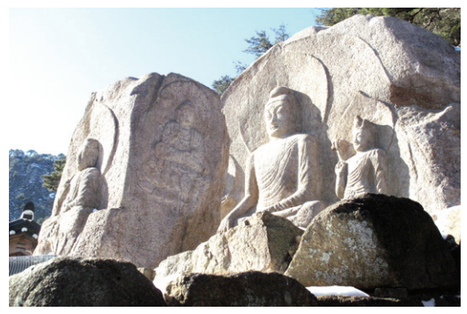
2002년 복원된 용장계 못골 모전 삼층석탑에서 신라문화원 답사단이 모전석탑의구조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있다.



남산에 산재된 불탑에 대한 안내를 참가자들이 듣고 있다.



최민희 신라문화원 부설연구소장이 탑파신앙에 대해 설명 중이다.



칠불암 마애석불군. 앞의 사방불은 단층석탑으로 추정된다.

7세기이전 목탑, 기단에 사리 봉안
석탑 대부분 7세기경 조성 추정
원측의 '불설조탑공덕경' 영향
칠불암 사방불은 본래 단층석탑

매서운 동장군의 기세가 물러설 줄 몰랐다. 경주 남산에도 그간의 서설(絮雪)이 하얗게 내려앉아 얼었다. 눈이 흔하지 않은 경주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풍경이다. 1월 5일 신라문화원의 경주 남산 불적 답사는 추위와 눈과 함께 시작됐다. 그래도 신라불교의 면모를 알기 위해 서울, 부산, 울산 등 전국에서 모인 40여 명의 참가자들의 열기는 뜨거웠다.

첫 답사의 주제는 '신라인들의 탑파신앙을 찾아서'. 염불사터로 올라가는 길에서 답사의 설명을 담당한 최민희 신라문화원 부설연구소장은 답사 코스와 남산의 대략적 특징에 대해 설명했다.

"경주 남산을 오를 때에는 오전에는 동남산을 오르는 것이 좋고, 오후에는 서남산을 답사하는 게 맞습니다. 유적을 답사할 때는 광선의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라시대 전형적 가람, 염불사지

처음 만난 유적은 남산 입구 봉구곡의 염불사지 동서 삼층석탑. 염불사의 조성 설화는 〈삼국유사〉권제5 효선 제8에서 찾을 수 있다. 신라 시대 경주 남쪽에 '피리사'라는 사찰이 있었다. 이곳의 스님은 매일 시간을 정해두고 염불을 외웠는데 그 소리가 경주 17만 8천 호에 들리지 않는 곳이 없었다. 사람들은 스님을 공경해 '염불 스님(念佛師)'이라 불렀다. 스님이 입적하자 사람들은 스님의 소상을 민장사에 모시고 주석처를 '염불사'라고 고쳤다.

유구한 역사를 가진 염불사는 현재는 동서의 삼층석탑을 제외하면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다만 2003년 발굴을 통해 중문지와 동서 회랑지, 석탑 하부 기단성토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최 소장은 염불사지를 통해 신라시대 평지 사찰 구조를 엿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평지에 조성된 신라시대 사찰들은 중문지와 동서 석탑, 회랑 그리고 대웅전 등의 전각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염불사뿐만 아니라 경주의 사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산에 조성된 사찰들은 탑과 불상이 가장 위에 있고, 전각들이 아래 있는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염불사지의 동서 삼층석탑은 모두 현대에 복원된 것으로 서 삼층석탑에서는 2, 3층에서 사리공이 확인됐다. 이 역시 감은사 이후 조성된 신라 탑파들의 형식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게 최 소장의 설명이다. 감은사 이전에 세워진 탑들은 대부분 목탑에 부처님의 사리도 아래에 모실 수 있게 만들어졌지만 682년(신문왕 2)에 세워진 감은사 이후에는 삼층석탑으로 정형화됐다. 사리공이 탑의 상층부로 올라간 것도 이 시기부터다.

왜 신라인들은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는 사리공을 위로 올리고 삼층석탑을 조성했을까? 최 소장은 '경주 남산은 아는 것은 없고, 모르는 것은 많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다만 당시 원측 스님(613~696)이 번역해 들여온 〈불설조탑공덕경〉의 영향을 받지 않았겠냐고 추정했다.

"원측 스님이 역경했던 〈불설조탑공덕경〉에 따르면 '탑이 없어서 능히 그 가운데 세우려는 이는 그 형상이 높고 묘해 삼계(三界)를 지나게 하거나 내지 지극히 작게는 암라과(菴羅果)와 같게 하라'고 설했습니다. 여기서 '삼계'에 대한 표현을 위해 신라인들은 삼층의 석탑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독특한 조형양식 칠불암과 신선암

남산의 길을 따라 오르니 곧 험로(險路)가 펼쳐진다. 칠불암의 일곱 마애부처님을 만나기란 좀처럼 쉽지가 않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길 40여 분. 기암괴석에 아담한 절 한 채가 답사단을 맞이한다. 그 옆에는 경주를 굽어보고 있는 일곱 분의 마애불이 조성돼 있다.

서쪽 거암에는 마애삼존불이 조성돼 있고, 그 앞에 6면 입방체의 바위에는 사방불이 있다. 수 백년의 시간을 비바람을 맞으면 지냈지만, 거의 완벽하게 보존된 모습에 경건함마저 든다.

탑파 신앙의 주제와는 달리 마애불을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 의문은 이곳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수 십차례 답사를 다닌 최 소장의 설명으로 정리가 됐다.

"마애삼존불과 사방불은 원래부터 현재의 모습으로 조영된 것이 아니라 삼존불만 조성되고 사방불은 다른 곳에서 옮겨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불은 단순히 불상의 역할이 아니라 단층석탑 형식으로 지어졌을 것입니다. 실제 사방불 위에 탑신석과 옥개석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칠불암은 마애삼존불을 주불로 하고 사방불 단층석탑으로 구성된 사찰 이었습니다. 또한 남산에 현존하거나 탑재만 남은 석탑 중 큰 석탑에 해당되는 만큼 왕실과 관련될 가능성이 큽니다."

칠불암에 왔으면, 함께 봐야하는 곳은 바로 신선암 마애보살상이다. KBS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의 촬영으로 더욱 유명해진 신선암 사지의 풍광은 말 그대로 장관을 이룬다. 깍아질 듯 한 절벽에 아로새긴 신선암 보살상은 조성 위치부터 상호까지 모든 것이 신비롭다. 무엇보다 좁은 공간에서 보살상을 조성한 옛 석공(石工)의 불심과 노력은 경건함을 넘어 애절하기까지 하다.

모전석탑의 흔적 용장골, 남산리

봉화대를 넘어 다시 발길을 재촉했다. 용장계 못골(茸長溪 池谷)로 가기 위해서다. 용장계는 남산에 있는 어느 골짜기보다 길고도 깊다. 이곳은 남산 용장계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이기도 하다.

능선을 타고 1시간여를 걸으니 용장계 못골 제3사지가 나타난다. 이곳에서는 탑지와 더불어 서향의 건물지, 담장지가 발굴됐다. 제3사지의 석탑은 발견 당시에는 무너져 흩어져 있었다. 다행인 것은 노반석과 상륜부를 제외한 전 부재가 확인돼 2002년 3월 복원했다.

이 탑은 경주에 있는 다른 석탑들과는 생김새가 조금 다르다. 탑의 지붕돌이 전탑 형식에서 볼 수 있는, 상하 모두에 옥개받침이 있는 모전석탑의 형식이다.

용장계를 내려와 신라인들의 탑파신앙의 대미를 장식한 곳도 비슷한 모전 석탑형식이 남아 있는 남산리 동서삼층석탑이다. 보물 제124호인 동서 삼층석탑은 서로 양식을 달리하면서 동서에 대립하는 특수한 쌍탑으로 이중 동탑이 모전 석탑 형식을 따르고 있다.

서탑은 전형적인 신라 석탑 양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기단부에 팔부신중이 부조로 조각돼 있다. 기단부에 신중을 새기는 것은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석탑 형식이라는 게 최 소장의 설명이다.

"석탑의 외부를 지킨다는 의미의 팔부신중은 경주 부근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이는 석탑 연대와 더불어 팔부신중 조각의 양식 계보 설정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답사단은 철와골 서출지와 이요당을 살펴보고 답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답사에는 스님뿐만 아니라 방학은 맞은 학생들이 함께 참가해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지난해 조계종 승려연수교육 남산불적답사에 참석한 후 남산에 매력에 빠졌다는 준오 스님(서울 팔정사)은 "마음챙김 명상을 하는 단체 회원들과 함께 남산에 왔는데 부처님의 가피가 면면히 담긴 불상과 탑을 만날 수 있어 좋았다"며 "한적한 길을 걸으며 내 자신을 들여다 보는 마음챙김 명상도 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부산에서 참가한 이정애(40)씨는 "책과 방송에서만 본 문화재들을 현장에서 볼 수 있어 감회가 새로웠다"고 말했으며, 아들 장석준(12, 부산 용수초)군은 "산 곳곳에 우리의 문화재가 있다는 게 신기했다. 힘들었지만 즐거웠다"고 밝혔다.

돌아가는 길, 남산 너머로 땅거미가 진다. 석탑들의 그림자도 길게 드리워졌으리라. 돌과 돌 사이 빈틈없이 세워진 석탑의 모습을 되새겼다. 층층이 쌓인 석탑에는 켜켜이 쌓이는 인연들의 나이테가 있었다.

경주=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현대불교신문사 · 신라문화원
경주 남산 불적 답사 일정

2/2	신라인들의 불상 조성 사상
3/2	남산에서 만나는 신라 전설
4/6	신라인들의 불상 조성 방법
5/4	서악에서 바라보는 남산
6/1	남산에서 불국토로 가는 길
7/6	신라 시조 탄생과 유상곡수 흔적
8/8	금강산에서 바라보는 남산
9/7	남산의 자연과 복원탑
10/5	낭산에서 바라보는 남산
11/2	신라인들의 수미산
12/7	신라 호국사상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054)774-1950, www.silla.or.kr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佛紀 2557年 癸巳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사)대한불교 무량종
비 룡 정 사
주지 박보산
신도일동
■ 인천시 중구 항동 1가 2번지 24/1 ☎ 032)763-1237

(주)에스굿 마하연투어 성지순례
황금의 땅! 불탑의 나라! 미얀마
미얀마 성지순례 더 가깝게 만나보세요
● 양곤 | 바고 | 시리암 5일 899,000 ~ 부터
● 양곤 | 바간 | 헤호 5일 1,399,000 ~ 부터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1,549,000 ~ 부터
● 양곤 | 바간 | 헤호 | 짜익티오 6일 요금문의
※ 짜익티오 파고다 정상 짜익토호텔 숙박 – 파고다 철야기도 등 가능
차별화된 가격! 품질! 불교행사를 경험 해 보십시오. "미얀마 현지 여행사 운영업체"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 129만원 (추가경비 일체 없습니다)
▣ 인도 완벽성지순례 (8대성지) 11일 요금문의
▣ 인도 완벽성지순례 (8대성지) 14일 요금문의
▣ 스리랑카 성지순례 7일 요금문의
▣ 라오스 직항 5일 135만원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02)365-7747

생태사회와 불교

생태적 사회를 위한 원칙 : 비폭력

비폭력은 생태사회의 필수적 요소





2002년 진행된 여성 종교인들의 공권력 오남용 근절 시위〈사진 위〉와 2008년 불교계를 중심으로 진행된 생명평화탁발순례〈사진 아래〉. 진정한 생태사회가 되려면 개인의 폭력뿐 아니라 구조적인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평화를 원하면 내가 평화가 되어라

산업사회는 경쟁사회이다. 경쟁은 기본적으로 이기고 지는 관계이다. 상대를 속이는 한이 있어도 이겨야하는 치열하고 비정한 승부의 사회이다. 때론 손해보지 않기 위해 상대를 먼저 기선제압하고 시작하려한다. 무시당하거나 호락호락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한다. 상대를 이용하지 않으면 내가 이용당하는 냉혹한 사회이다.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은 승리감에, 지는 사람은 피해의식과 패배감을 느낀다. 피해의식과 패배감은 개인에게 억압적 정서를 만든다. 세상은 승리자보다 패배자가 더 많다. 아니 패배의 감정을 갖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한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다른 경쟁에서 계속 이기라는 보장이 없다. 어쩌면 잠깐의 성취와 승리감만 있을 뿐 대다수의 사람은 열등감과 피해의식을 더 많이 경험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살고 있다. 한국 자살율이 세계 1위인 것은 '더빨리, 더 높이' 를 추구하는 압축성장의 속도중심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그만큼 정신적 피로도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것이 원인이다.

이러한 싸움터에서 종교는 싸움을 말리는 역할을 할까? 아니다. 오히려 이 싸움터에 깊숙히 편입되어 어느 한쪽을 응원하는 일을 한다. 사업 성공을 위해서 입시와 승진경쟁서 이기게 해달라고 부처님과 하나님에게 기도한다. 종교인들은 이런 사람들의 구복

산업사회, 비정한 승부의 경쟁사회
이 싸움터서 종교 한쪽 편만 들어
자비심 가질때 상대방 구제 가능

적인 욕망을 거부하도록 가르치기 보다는 반대로 조장하고 그 속에서 이익을 보는 집단이다. 버리고 버려 무소유의 삶을 살라는 부처님 가르침과는 거꾸로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끊임없이 달라고 기도한다. 불교뿐아니라 우리나라의 종교심은 크게 또는 작게 "믿습니다 주시옵소서"의 정서가 지배하고 있다.

적과 나를 가르지 않아야

싸움은 필연적으로 적(敵)과 나(我)를 명확히 구분하게 만든다. 이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 적에 대한 적개심을 최대한 강화시키고, 분노와 증오심을 증폭해 자기 세력을 공고히 결집시켜 적에 대한 공격적 파괴력을 높이려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대립은 상대에게 저항의지를 생성시킨다. 그래서 설령 싸움에서 이긴다 하더라고 패배한 사람의 저항의지를 포기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의 승리자가 향후 약화되었을 때, 혹은 패배한 상대방이 강해졌을 때, 다시 복권을 시도하려 싸움을 벌인다. 그래서 전투는 중단되지 않고 반복된다.

"자비로서 섭수하라"는 부처님 말씀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의미할까? 진정한 승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백전백승이 선의 선이 아니고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선의 선이다' 라는 말은 손자병법 제 2원칙이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저항의지나 적개심을 갖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동일한 평면, 동일한 수준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보다 한차원 높은 곳에서 상대를 안타까워하며 그를 구제하겠다는 자비의 발심을 가질 때야만 가능한 것이다. 싸움에서 설령 이겼다고 해도 상대방이 적개심과 저항의지를 포기시키지 못했다면 완전히 승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대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의 대립을 조직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서도 파괴된다. 증오의 정서는 자신을 황폐하게 만든다.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는 완전한 승리, 최종 승리는 불가능하다. 또한 증오의 감정도 상대에게 포섭된 마음이며 미워하면 닮게되기 때문이다. 실제 괴물과 싸우는 과정에서 자신도 괴물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았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한 첫 번째 원칙은 처음부터 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적과의 '대립' 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연대와 협동' 곧 '자비와 사랑' 에 집중하는 것이다. 상대와의 싸움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으로 섭수하는데 집중하는 것이다. 그를 돕기위해 이익을 주는 방법을 찾아 노력하는 것이다. 미운사람을 자기사람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를 좋아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하지만 근본은 아(我)와 적(敵)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다. 더 나아가 아에 승리에 집착하지 않고 목적이나 의도마저 갖지 않는 것이다. 무심(無心)한 상태이다. 무엇을 걷거나 이익을 보거나 승리하겠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래서 단지 상대에게 자비로운 마음 을 갖고 정진하다보면 목적은 어느덧 달성되게 된다. 아니 그 이상을 얻게 되며 이 과정에서 목표는 오히려 과정의 부산물일 뿐이다. 근본적으로 이익이나 무엇을 얻겠다는 손익계산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생태사회는 이분법적 사고를 부정하고 다양성의 사고를 지향한다. 자신은 천사라고 생각하고 상대를 악마라고 생각하는 이분법을 반대한다. 그래서 나와 다른 것을 '틀린 것' 이 아니라 '다른 것일뿐' 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양성이다. 다른 것이 오히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자신의 입장과 가치의 절대성, 배타성을 내려놓아야 가능하다.

폭력은 비폭력사회를 만들 수 없다

녹색사회, 생태사회는 비폭력사회이다. 폭력적으로 비폭력사회를 만들 수 없다. 따라서 생태사회를 이루는 방식도 폭력적 일체의 방식을 거부한다. 목적을 위해서는 그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이 과정에서 보여져야 하기 때문이다. 대체로 폭력은 '개인적인 폭력' 과 '구조적인 폭력' 으로 나눈다. 생태사회는 개인적으로 가해지는 폭력 뿐아니라 국가와 제도에 의해 가해지는 국가폭력과 억압 모두를 종식하고자 한다.

따라서 생태사회에서는 개인과 집단에서 자기 결정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한 분쟁해결을 위한 비폭력적 수단과 방법의 평화교육을 강조한다. 국가 자체는 폭력기구이기 때문에, 생태적 미래를 구상하는 사람들에겐 경찰과 검찰, 군사 등 각종 폭력기구가 어떻게 억압적으로 이용되지 않게 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다. 그리고 폭력의 집결체인 정부와 군산복합체에 의해 촉진되는 군비증강과 무기경쟁에 대해서 적극적인 저항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녹색대안사회는 사회화된 폭력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부장제사회에서 흔히 보는 여성과 어린이, 그리고 성적소수자, 재외국인 등 소수집단에 대한 일체의 폭력과 억압이 종식되는 사회를 꿈꾼다. 그래서 철저한 평등을 지향한다. 그리고 사람과 자연간의 폭력적인 관계를 상호균형과 존중의 관계로 변화시키고자 한다. 독일 녹색당의 초대 당수였던 '페트라 켈리'는 "비폭력은 생태주의적 사회에서 필수요소"라고 말했다.

비폭력 행동이 가지는 힘

나쁜 사람과 착한사람이 싸울때 단기적으로 착한 사람은 불리하다. 아니 오히려 쉽게 패배한다. 왜냐하면 나쁜 사람은 비열한 방법을 포함해 온갖 전술을 동원할 수 있지만, 착한 사람은 전술동원에 제한받는다. 즉 착한 방법 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긴다. 당장은 자신이 폭력과 고문속에 패배한 듯하지만, 그의 도덕적 행동은 주변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다수의 감정을 변화시켜

녹색사회, 생태사회는 비폭력 사회
분쟁해결 위해 평화교육 강조
동일 평면에 투쟁과 대립 파괴 자초

거대한 힘으로 작용되기 때문이다.

총 드는 것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대체복무제도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무기라고 하는 폭력적 도구를 들지 않을 양심과 신념의 자유를 위해 감옥을 비롯해 어떠한 시련도 감내하며 불복종운동을 전개해 왔다. 결국 이들의 감동적 행동이 전세계인의 인권과 평화에 눈 뜨게 했고 마음을 움직였다. 그래서 이제 유엔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권 차원에서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슷한 수준, 동일 평면에서의 투쟁과 대립은 서로 파괴만 자초한다. 한단계 위에서 자비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자신감있게 그들을 섭수하는 것, 이것이 비폭력행동이다. 과거 혁혁한 독립운동가였지만, 독립이후 독재자가 돼 수많은 민중을 죽게하고 도탄에 빠트렸던 지도자가 하나둘이 아니었다. 불교의 개혁 또한 사회민주화나 정치혁명처럼 총무원의 지도자를 폭력적으로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불교개혁은 부처님의 정법을 올바로 세우는 것이 목표이다. 사회개혁과 다른 점은 바로 이것이다. 개혁하는 과정의 모습이 이들 이후에 만들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비폭력은 폭력적 사회를 구원하는 수단이자 이후 사회를 만드는 방법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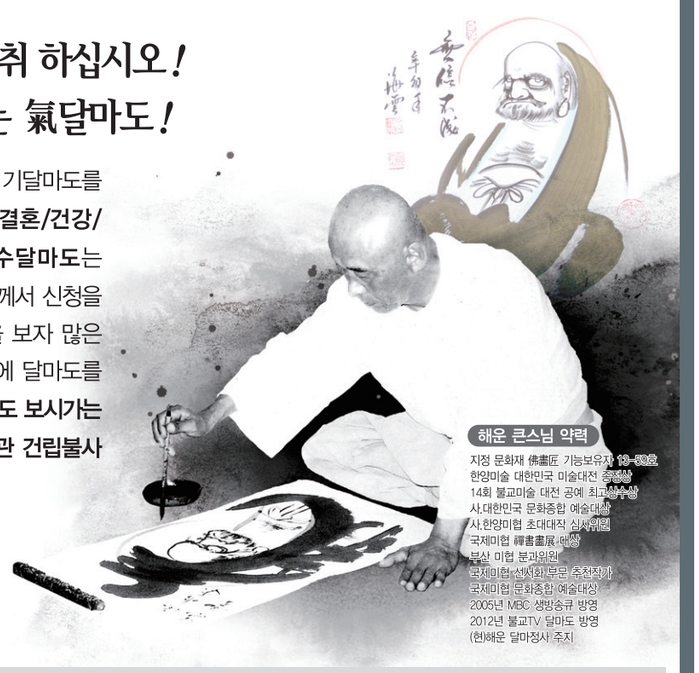


유정길 (에코붓다 前 공동대표
생태사회 연구소 연구원)

해운큰스님 2013 계사년
영험의 소지용 氣달마도

영험의 재수달마도로 소원성취 하십시오!
개인의 사주에 맞춰 그려주는 氣달마도!

해운큰스님은 전국의 불자님에게 10만여장의 기달마도를 그려주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기달마도**는 **결혼/건강/회사원/운전/취직**을 원하시는 분들이 **재수달마도**는 **자영업/주식/승진/사업/부동산**을 하시는 분들께서 신청을 많이 합니다. 달마도를 받으신 분들이 효험을 보자 많은 분들의 신청이 쇄도한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달마도를 소지하시어 원하는 바를 이루어 보십시오. **달마도 보시가는 3만원**이며 수익금 전액은 **해운스님 달마복지관 건립불사에 사용**되어 집니다.



해운 큰스님 약력
지정 문화재 佛畵匠 기능보유자 19-56호
한양미술 대한민국 미술대전 준우승
14회 불교미술 대전 공예 최고상수상
사.대한민국 문화종합 예술대상
사.한양미협 초대대작 심사위원
국제미협 禪書畵展 대상
부산 미협 분과위원
국제미협/선백화부문 추천작가
국제미협 문화종합 예술대상
2005년 MBC 생방송규 방영
2012년 불교TV 달마도 방영
(현)해운 달마정사 주지

신청전화 080-300-1080

氣달마도 족자/액자 주문하실 분은 별도 신청 가능합니다.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소원성취 인등 및 사리함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크리스탈 인등

A/S 법당 전선 10년 외곽 전선 5년

불제개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81-1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 반도체로 되어 화재의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 6", 7", 8", 10.5", 13", 20", 30"

건전지 초(행사용) 탑돌이 방생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불교와 미학

붓다의 미소

윤회 고통서 벗어난 영겁의 미소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반가사유상〈사진 왼쪽〉과 국보 제84호 서산 마애삼존불〈사진 오른쪽〉.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자 했던 고통스러운 예수의 성상과 달리 불상은 고통을 벗어나 적멸에 드는 즐거움을 고요한 미소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언젠가 나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던 분이 물었다.

"스님, 이 사진 보세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머뭇거리고 있으려니 그 분이 말씀하셨다.

"이 얼굴이 평화로워 보입니까? 아니지요. 고통으로 찌들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 사진 속의 인물은 굵게 파인 주름살에 약간 딱딱해 보이는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순간, 나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테레사 수녀의 사진이었다.

가난한 사람의 성자, 불행한 자들의 어머니, 마더 테레사는 이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한 사람이다. 나 역시 그를 깊이 존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테레사 수녀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의 소유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직하게 말한다면 테레사 수녀의 얼굴은 아름답지 않다. 만약 그 사진 속의 인물이 인도에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 평생을 헌신한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성직자라는 정보가 없었다면, 어쩌면 그냥 고생 많이 한 평범한 노파의 얼굴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삶에 대한 관념 때문에 그 얼굴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는 고통의 자국을 무시했던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관념을 덧씌워서 본다. 그 분의 질문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내 어리석음을 질타한 것이다.

그 분이 정말 묻고 싶었던 것은 "과연 테레사 수녀는 행복했을까?"라는 문제이다. 성직자에게 웬 뚱딴지같은 소리! 헌신적이고 금욕적인 삶을 산 성인에게 어쩌면 고통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중에도 테레사 수녀에게 행복을 말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에게 이 질문은 오랫동안 불교수행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테레사 수녀가 만년에 쓴 일기 중에 "내 안에 어둠이 가득합니다. 도대체 신은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한 대목이 있다. 침묵하는 신 앞에서 느꼈던 좌절과 실망, 고독과 번민은 자신에게 철저하고 진실했던 그의 내면을 보여준다. 근거 없는 자신감과 값싼 용기가 횡행하는 이 시대에 찾아보기 어려운 솔직함과 용기이다. 그래서 그의 진솔하고 인간적인 매력에 빠져들기도 하지만 왠지 그의 삶이 행복했던 것 같지는 않다. 그는 정말 행복했을까?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의 헌신이 오로지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신에 대한 복종과 의무감에서 나온 것이었을까?

불교의 입장에서 볼 때 테레사 수녀의 희생은 어떻게 평가될까? 불교수행에서는 '자리이타'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는다. 그러므로 남의 행복을 위해 나의 행복을 희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간주되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의무적으로 하는 일,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일은 올바른 수행이 아니다. 그러므로 대승보살은 끝없는 이타행을 실천하더라도 마음에 고통을 느끼는 일이 없다. 금강경에서 말하듯이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어도 보살의 마음은 평화롭다. '내가 한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적멸의 즐거움이 주어진다. 그러므로 불교수행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자신의 행복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나만큼 행복하게 하고, 남의 행복으로 내가 행복한 그런 사람이다.

부처님의 즐거움, 부처님의 행복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사진술이 있었을 리 만무하므로 사진도 없고, 초상화가 그려졌다는 기록도 없으니 부처님의 얼굴이 그림으로 남아 있지도 않다. 그러므로 보통 인간을 뛰어넘고 신의 단계도 뛰어넘는 이 위대한 존재의 비범한 특성을 인간의 모습으로 형상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세상에서 가장 선한 존재인 예수와 가장 악한 존재인 유다를 그리기 위해 마지막까지 고심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불상을 만드는 장인들에게도 불상의 제작은 벅찬 과제였을 것이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의 상상력과 종교적 감성을 모두 발휘하여 이 위대한 존재를 형상화했을 것이다.

부처님의 위대성을 나타내는 32상과 80종호라는 도상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탁월함을 감성적으로 체험하게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더구나 이 위대한 존재의 초월적이고 정신적인 특징은 육체적인 특징만으로 표시할 수 없지 않은가? 그 분의 정신적 고결함을 한 눈에 알아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마도 장인은 자신의 종교적 체험 속에서 그 모습을 고심하였을 것이고 그 중 가장 깊은 정신적 상태를 표시하는 모습으로 형상화했을 것이다.

그 간절한 그리움과 깊은 종교적 체험 속에서 불교예술은 미소를 발견했다. 놀랍게도 고통을 인간의 보편적인 조건이라고 설파하는 종교가 고통이 아니라 미소에서 자신의 상징을 찾은 것이다. 영원히 고통에서 벗어난 자, 열반의 즐거움을 누리는 자라면 가질 법한 적정 삼매의 고요한 미소를.

불상, 종교적 감성 더하는 예술품
부처의 미소 통해 불교 핵심 표현
이 시대 수행자는 어떤 얼굴인가
진정한 부처 찾기위해 관념 넘어야

미소야말로 고통에 찌든 보통 사람들과 부처님의 경계를 나누는 가장 확실하고 뚜렷한 표지이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그 감화력과 구제력도 가장 구체적이고 직관적인 표현인 깨달음의 미소로 표현되었다. 그리하여, '적멸의 즐거움', 곧 미소는 불상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다.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가 예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 그의 대속(代贖), 즉 십자가에 못박힘과 비교해보면, 불교적 감성과 기독교적 감성의 차이가 더 뚜렷해진다. 종교의 정신과 이념은 그 종교의 상징적 조형물 가운데 가장 잘 구현되기 때문이다. 예수의 고통과 추종자들의 비탄의 표현에 집중하는 기독교 도상과 달리, 거의 대부분의 불교 도상은 평화롭기 그지없다. 지옥도나 아귀도에서나 고통스러운 도상들을 볼 수 있을까, 불교에서 고통을 표현하는 도상을 찾기는 쉽지 않다.

하기는 고행하는 모습의 불상도 있지만, 거기서 강조하는 것은 수행과정에서 겪은 고통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노력이다. 인간의 보편적인 조건으로서의 고통이든, 그것을 없애기 위한 수행으로서의 고행이든, 불교는 고통을 부처님을 부처님답게 만드는 자질로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불상은 고통보다 고통의 해소에서 오는 적멸의 고요함과 즐거움을 형상화하는 데 전념한다. 혹독한 수행을 표시하는 저 앙상한 몰골의 고행상마저도 미소를 띠고 있지 않은가?

세상에는 아름다운 불상도 많고 거룩한 불상도 많고 거대한 불상도 많다. 특별한 종교적 경험을 불러일으키는 불상도 있다. 바라보기만 해도 신심이 절로 우러나는 불상이 있는가 하면, 오래 보아 아름다운 불상도 있다. 각각의 불상은 저마다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불상의 미적인 아름다움은 진정한 종교적 체험에 대해 부차적일 뿐이다. 불상이 아름다운가 그렇지 못한가는 부처님을 향한 불자들의 예경심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거대하기만 하고 조잡하기 이를 데 없는 불상 앞에서도 우리는 아무 거리낌 없이 몸을 낮추어 절을 한다. 그러므로 종교적 감성을 깊게 하는 불상이라면 좋은 종교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금강경에서 색이나 음성으로 부처를 구하지 말라고 했지만, 불상은 우리의 종교적 감성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성숙시키는 불모(佛母)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불자들은 자신의 본사에 있는 불상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느낀다. 나 역시 예외는 아니다. 나의 출가본사에는 작은 인법당에 어울리는 자그마한 불상이 모셔져 있다. 대부분 불상이 그 절 주인의 얼굴을 닮는다고 하지만, 그 부처님을 처음 보았을 때 나는 불경스럽게도 속가 친구 여동생의 얼굴이 생각났다. 참한 조선미인인 그 동생은 선이 고운 눈썹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처님이 바로 그런 길고 가는 눈썹을 가지고 있었다.

탁자 밑에서 무릎 꿇고 예불 드리기를 기다릴 때면, 가만히 부처님 얼굴을 올려보기만 했다. 그 깊은 눈매 속에서 나는 조용히 빛나는 적멸의 세계를 느낄 수 있었다.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 마음이 고요해졌고 그렇게 행자생활의 어려움을 견디며 수행을 익혀갔다.

그 후 몇 년 뒤 개금불사를 하면서 불모(佛母)가 동그랗게 눈썹을 고쳐 그리는 바람에 그 곱고 깊은 눈매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다. 본래 가지고 있던 맑고 단정한 모습은 여전하지만 왠지 모르게 요란스러워져 버려서, 요즘은 가끔 본사에 들리는 일이 있어도 그 동그란 눈썹을 보면 조금 불편한 생각이 일어나 그냥 절만 하고 물러나온다.

우리 시대의 불상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과거 우리 조상들이 표현한 그 정신적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세속화의 시대에 불상의 아름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불상을 오로지 숭배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지 않는지 반성해 볼 일이다.

하지만 불상의 얼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수행자들의 얼굴이 아닐까? 테레사 수녀의 이야기를 했지만 그만큼 진실한 얼굴도 드물기 때문이다. 마흔을 넘기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 시대의 수행자들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가? 우리 시대의 부처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형상의 한계에 갇혀서 부처를 만나도 부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형상과 형상 없음 사이에 있는 참된 부처를 만나려면, 형상에도 속아 넘어가지 않고 관념에도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할 일이다.



명법 스님 (조계종 교수아사리)

우리는 행복을 원하면서도
불행을 선택한다!

심리학자가 들려주는 상식과는 조금 다른 정직한 행복학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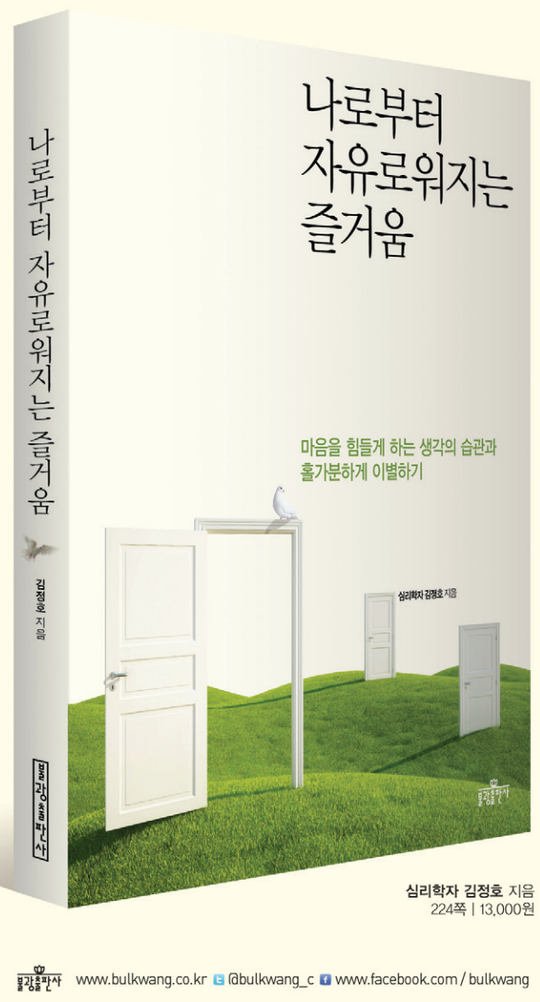
다른 사람의 기준에 나를 맞춰야 한다는 생각, 내 기준에 다른 사람을 맞춰야 한다는 생각,
무언가를 반드시 가져야 하고 무언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 생각들……
이 생각들 속에 행복이 있을까?

우리에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가만히 나를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이 있다.
가만히 내게 귀 기울이면 들리는 것이 있다. 그 속에 당신이 가야 할 길이 있다.

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즐거움

마음을 힘들게 하는 생각의 습관과
홀가분하게 이별하기

최신간



심리학자 김정호 지음
224쪽 | 13,000원

불광출판사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 / bulkwang

심리학의 눈으로 새롭게 풀이한 불교 핵심 교리
치유하는 불교읽기

원래 의학에서 '치유(healing)'라는 말은 손상된 조직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치유하는 불교 읽기'가 우리가 타고난 본래 건강한 마음을 회복하는 마음 치유 과정에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그리하여 더 많이 사랑하고 감사하는 삶을 꿈꾸는 이들에게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 〈여는 글〉 중에서



서광 스님 지음
288쪽 | 14,000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는 힘
반야 참회

'반야 참회'란
전통적인 불교의 번뇌론과 선정 수행론을
기존 참회에 적용해 수행 차원으로 체계화시킨
새로운 참회 수행법이다.
반야 참회는 불교 입문자들이 단시간 내에
수행의 효과를 직접 체험하고
일상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는
수행의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혜용 스님 지음
288쪽 | 13,000원

조석으로 법 받아 심인으로 지니다가…

수불 스님의
전심법요 선해
〈2〉



배휴의 서문

당나라 하동 배휴가 모으고 아울러 서문을 쓴다.

대선사가 계셨으니 법휘는 희운이고, 홍주 고안현 황벽산 취봉 아래 주석하셨다. 조계 육조의 적손이요, 백장의 사법 제자이며, 서당의 법질이시다. (이하 원문 번역은 경허스님이 엮고 범어사에서 펴낸 〈선문촬요〉를 저본으로 한국간화선연구소에서 했다.)

홍주는 지금의 강서성이다. 황벽사는 강서성 이평에 있다. 선종 사찰은 대부분 깊은 산 속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넓은 분지가 있는 지형에 자리 잡고 있는데, 황벽사 또한 예외가 아니다. 얼마 전에 방문했을 때, 황벽사는 허름한 창고 같은 건물이었다. 옛 법당은 벌써 허물어졌고, 마을사람들은 문화혁명 때 홍위병의 눈을 피해 창고처럼 법당을 지었다고 한다.

법당 안으로 들어가니 흙바닥이었고, 정면에는 '전심법요'라는 글자가 주련처럼 크게 걸려있었다. 법당 앞 넓은 분지의 한복판엔 거대한 대웅전이 중창불사 중이었다. 아마 지금쯤은 완공되었을 터인데, 규모는 크겠지만 급작스럽게 짓느라 격을 갖추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60대 중반으로 순박한 인상의 주지 심공(心空)스님과 황벽촌 불자들의 환대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논둑길 너머 산자락 대숲에 있는 황벽선사의 묘탑을 참배하며, 전심법요를 전해주신 은혜에 감사했던 기억이 새롭다.

황벽스님은 육조혜능의 4세이다. 육조의 법은 남악을 거쳐 마조에게 전해졌다. 마조의 많은 제자 중에 서당, 백장, 남전 등이 뛰어났다. 우리나라 신라 구산선문의 대부분이 마조 문하에서 개창되었다. 특히 맏상좌 서당지장의 법을 대한불교조계종 종조로서 추앙받는 도의국사께서 우리나라로 가져와 조계종의 뿌리가 되었다.

백장선사는 "강서의 선맥이 모두 동국으로 가는구나!" 하고 탄식했다고 한다. 서당의 직계로 홍척의 실상산문(남원 실상사)과 혜철의 동리산문(곡성 태안사) 그리고 도의국사의 손상좌인 체징의 가지산문(장흥 보림사)이 있다.

한편 〈마조록〉에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한다.

서당, 백장, 남전이 마조스님을 모시고 달구경을 하던 차에 스승이 말하였다.

"바로 지금 같은 땐 무얼 했으면 좋겠는가?"

서당스님은 "공양하기에 좋겠습니다." 했고, 백장스님은 "수행하기에 좋겠습니다." 하였다. 남전스님이 소매를 뿌리치면서 그냥 가버리자, 스승이 말하였다.

"경(經)은 서당에게 들어가고, 선(禪)은 백장에게 들어가는데, 남전만은 격외로 벗어났구나!"

스님은 단지 최상승만을 지니고, 문자의 그림자를 여의셨다. 오로지 한마음만을 전했을 뿐, 다시 다른 법은 없었다. 마음의 체가 비어서, 만 가지 인연이 모두 공적했다. 마치 큰 태양이 허공 가운데 떠올라 광명을 비추는 것처럼,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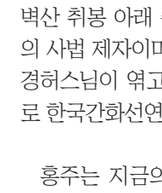
'최상승'이란 달마가 직접 전한 불법의 본령이자, 조계정전의 정통선을 말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남종선의 돈오법문을 가리킨다.

이 법을 깨닫는 데는 오늘과 옛날이 없고, 얕고 깊음도 없다. 이 법을 설하는 데도 알음알이를 세우지 않고, 종주(宗主)를 내세우지 않으며, 파를 형성하지도 않는다. 즉시 이것이며, 생각을 움직이면 어긋난다. 이런 다음에라야, 본래의 부처가 되는 것이다.

해서 그 말씀이 간명하고, 그 이치가 직절하다. 그 도는 준엄하고, 그 행은 고고하시다. 사방의 수행자들이 황벽산을 바라보고 달려와 운집했다. 선사를 뵙고 깨치니, 왕래하는 대중의 수가 항상 천 명을 넘었다.

내가 회창 2년(842) 종릉의 관찰사로 재임하면서, 스님을 산중으로부터 고을의 용흥사에 모시고 조석으로 도를 여쭈었다. 대중 2년(848) 완릉의 관찰사로 재임할 때, 다시 정중히 개원사에 모시고 조석으로 법을 받았다. 곧 물러나와 기록하였는데, 열 가운데 한둘 밖에는 얻지 못하였다.

이를 심인(心印)으로 삼아 지니고 다니면서, 감히 드러내어 발표하지 못했다. 이제 신령스런 경지에 드신 그 정밀한 뜻이 미래에 전하여지지 못할까 두려워서, 드디어 이 기록을 꺼내 문하생인 태주, 법건스님께 드려서 황벽산의 광당사로 돌아가 장로들과 청법 대중에게 지난 날 친히 듣던 가르침과 차이가 없는지 알아보았다. 때는 당나라 대중 11년(857) 10월 8일에 쓴다. **범어사 주지**



주성원의
기초 교리 〈47〉

육신통 · 해탈 위한 선정의 4가지 덕목

삼십칠보리분법(三十七菩提分法)
③ 사신족(四神足)

명상을 통해 어느 정도 마음의 경지에 도달했다 해도 명상에서 깨어나면 다시 번뇌에 휩싸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죽을 때까지 꼼짝 않고 명상 상태에 계속 머무를 수도 없다. 이렇듯 명상 그 자체는 수단일 뿐 목표인 열반은 아니다. 그래서 붓다는 보다 근원적으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 연기법을 '통찰'했고 중도를 '실천'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붓다가 의식을 집중하는 명상인 선정을 무시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선정은 열반을 증득하려는 수행자에게 필수적이다. 선정을 통해 표면적으로는 의식하지 못하는 잠재의식의 깊은 곳까지 헤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정을 위한 초기불교의 대표적인 실천행이 바로 사신족(四神足)이다. 사신족은 사여의족(四如意足)이라고도 하며 사여의분(四如意分), 사여의(四如意)라고도 한다. 뜻한 대로 할 수 있는 신통을 얻기 위한 뛰어난 선정에 드는 네 가지 방편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신통이란 수행명상을 통해 갖추게 되는 불가사의한 능력을 말한다. 보통은 어디든 마음대로 갈수 있는 신족통(神足通) · 세상 어느 곳이든 꿰뚫어 볼 수 있는 천안통(天眼通) · 어느 곳의 소리든 마음대로 들을 수 있는 천이통(天耳通) ·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타심통(他心通) · 전생을 알 수 있는 숙명통(宿命通) · 번뇌를 모두 소멸해서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누진통(漏盡通)등의 육신통(六神通)을 뜻한다. 이러한 신통을 얻기 위해서는 뛰어난 선정에 들어야 하고 그 선정에 들기 위해서는 네 가지 기반[四神足]이 있어야 한다.

그 첫째가 욕신족(欲神足)이다. 욕신족은 우선 무언가를 얻으려면 얻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말하자면 신통을 얻기 위한 뛰어난 선정에 들고자 한다면 우선 그 선정에 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 마음에 집중하여 마음을 통일하는 것이 욕선정이고 이 과정에서 얻어진 선정의 상태를 욕삼마지(欲三摩地)라고 한다.

두 번째는 정진신족(精進神足)이다. 무언가를 얻기 원했다면 그 다음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뛰어난 선정에 들려고 노력하고 그러한 정진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정진신족이고 이로부터 얻어진 선정의 상태를 근삼마지(勤三摩地)라고 한다. 세 번째는 심신족(心神足)이다. 심신족이란 뛰어난 선정에 들려고 하는 마음에 집중하고 그 마음의 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말한다. 그로 인해 얻어진 선정의 상태를 심삼마지(心三摩地)라고 한다.

네 번째는 사유신족(思惟神足)이다. 사유신족이란 뛰어난 선정에 들려고 깊은 통찰력으로 관찰하고 사유하며 그 마음에 집중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로 인해 얻어진 선정의 상태를 관삼마지(?三摩地)라고 한다.

사신족은 이와 같이 뛰어난 선정을 통해 열반에 이르기 위한 수행의 한 덕목이다. 선정에 들고자 하는 바램과 실제로 선정에 들려고 하는 노력과 선정에 들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선정에 들려고 하는 주의 깊은 통찰과 관찰을 통한 삼매의 힘을 말한다. 이에 기반 해서 여러 가지 불가사의한 신통의 힘이 나타나므로 사여의족(四如意足)이라고도 한다.

초기불교의 명상은 의식을 집중하는 선정이고 사신족은 이 선정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상윳따 니까야〉라고 하는 초기경전에서는 이 사신족을 닦으면 세간의 이쪽 언덕[此岸]에서 출세간의 저쪽 언덕[彼岸]으로 갈 수 있다고 설한다. 또한 사신족에 네 가지 성취수단이라는 의미를 부여한다. 여기에서 성취란 일반적인 성공, 특히 신통과 같은 정신적인 성취를 뜻한다. 이 정신적인 성취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위에서 한편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신통, 구체적으로는 육신통을 뜻하고 한편으로는 번뇌로부터 벗어나 해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의 성취를 뜻한다. 그러므로 사신족은 열반을 목적으로 하는 선정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日 용곡대 불교학석사 · 前 본지기자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㊷



이러한 보살은 성문聲聞의 지위에 오른 사람에게서 법을 들을 때조차 마음에 의심은 없다.

〈소품(小品) 반야바라밀경〉

진짜 고수(高手)의 화광동진

벌써 근 40년이 다 되어간다. 대구에서 자취를 하면서 학교를 다녔다.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그때 빠져든 것이 무협지였다. 손바닥으로 바람을 날리고, 손가락 끝에서도 바람을 날리는 이야기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몰랐다. 훗날 "아, 그때 세계문학의 명작을 읽었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으나, 이미 다 지난 일이다.

무협지에는 수많은 고수가 나온다. 고수는 무술이 빼어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칼싸움을 잘 한다든가, 손바닥으로 바위라도 단번에 쪼갤 수 있는 바람을 내뿜을 수 있다든가 …. 그들은 대개 보검(寶劍)을 등에 지니고 다닌다. 얼



그림 · 박구원

굴에서부터 표가 나는데, 눈꼬리가 위로 올라가 있고, 말이나 표정에서부터 벌써 상대를 위압(威壓)한다.

그런데, 무협지는 가르쳐준다. 진짜 고수는 따로 있음을. 겉으로 볼 때, 전혀 고수같지 않고, 심지어는 무술 자체를 전혀 알 것 같지도 않은 백면서생(白面書生)이 알고 보니까, 비할 데 없는 무술을 감추고 있는 것 아닌가.

영화 〈취권(醉拳)〉도 그런 이야기다. 술에 고주망태가 된 사람이라면, 자기 몸 하나 가누기 어렵다. 음주운전이 위험한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 당연히 어떤 고수라도 술이 취한 상태에서는 무술을 못하기 마련일 것이고, 상대에게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더 강력한 무술을 발휘할 수 있다니.

이러한 반전(反轉)과 역설(逆說)이 10대 중반의 나를 사로잡았다. 나중에 내가 알게 된 것은, 그러한 무협지의 진짜 고수를 낳은 철학이 〈노자〉에 나온다는 점이었다.

"화광동진(和光同塵)"이라는 말이 바로 그러한 '진짜 고수'들을 낳은 어머니였다. 무술을 많이 연마하면 실력이 늘어난다. 그것이 '빛'이다. 그런데 진짜 고수는 그 빛을 누그러뜨려서(和), 남들로 하여금 자기의 무술실력을 알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스스로는 전혀 무술을 모르는 사람이나 무술실력이 낮은 사람들과 하나가 된다. 마치 스스로를 '먼지'와 같이 낮은 존재로 만들어서 말이다.

더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노자의 화광동진은 우리 불교에도 깊은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 아닌가. 선사(禪師)스님들이 "저자거리에 들어가서 손을 쓴다"라는 의미의 입전수수(入廛垂手)를 가장 궁극적인 이상으로 삼았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이다. 경허 스님같은 분은 "나는 성품이 화광동진을 좋아한다"라고 고백했다.

성문의 법을 듣는 보살

그런데 나는 오늘 또 알게 된다. 그러한 화광동진이 〈노자〉에만 있는 것도, 선사스님들만의 전유물만은 아니라는 것도.

〈소품 반야경〉에서는 더 이상 물러남이 없는 경지(이를 avaivartika/아유월치/아비발치로 말한다)에 이른 보살들도 성문(聲聞)들이 법을 설하는 것을 듣는다고 말한다. 성문의 가르침은 물러섬이 없는 경지에 이른 보살은 이미 예전에 다 학점을 따서 졸업한 것 아니던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보살이니까, 당연히 성문의 가르침은 이제 더 이상 들어도 보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물러섬이 없는 경지에 이른 보살 역시 스스로 몸을 낮추어서 성문의 법석(法席)에 참여한다. 진짜 보살이기 때문인데, 그는 성문의 이야기나 보살의 길에서 듣는 이야기나 근본은 하나임을 알고 있는 것이다.

원효 스님이나 경허 스님처럼, 저자거리에 내려온 스님들을 좋아하는 나의 취향은, 어쩌면 저 무협지 시절을 통해서 심어진 DNA같기도 하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2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 (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3년 1월 중
◆ 개강일시 : 2012년 1월 개강.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최신판"
띠별(十二支神像型)삼재풀이용봉

호신진언【옴치림】



※ 속지 6장식 들어있음!
2013년(계사년)부터 들어오는 삼재해당자(돼지, 토끼, 양띠) 들께서는 본인의 띠와 같은 봉투에 속옷하나 넣고, 이수에 따라동전을 넣고 스님들이나 법사, 보살님들에게 전달한 후 삼재를 풀어달라고 하면 됩니다!

◆ 청담아트월드 社 www.cdsa.co.kr
주문전화 : 031)912-7114

◆ 90부 이상 우송!
(일반 신도분들은 개별적으로 근처 불교 만물상에서 구입하시오!)
계좌번호 : 638701-01-163513 (국민은행) 예금주 : 청담사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백련암
● 창건주 : 법련 (오영자)
● 주 소 : 경남 고성군 마암면 보전리 산 105-1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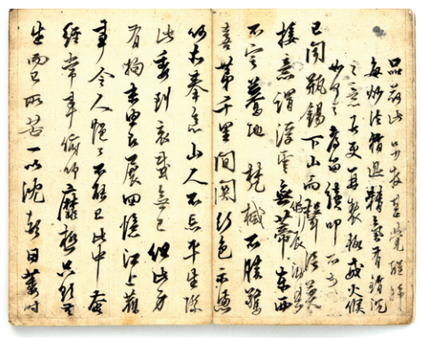
2013년 1월 16일

한국불교미륵종 총무원장 법하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차 덖는 법 지나쳐 정기 사그라진듯”

조선 후기 금강산은 승속을 불문하고 누구나 유람하기를 열망했던 승경지였나 보다. 초의스님이 처음 금강산 유람을 계획한 것은 1834년의 일로, 이 해 가을, 그는 제자 취연과 함께 유람을 계획하고, 철선(鐵船1791~1858)과 만휴(萬休1804~1875)도 함께 가려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신헌(1810~1884)의 〈금당기주〉에 ‘두 선사가 산천(김명희1788~1857)과 함께 금강산을 유람하기로 약속했다. 초의는 천리 길을 달려와 약속을 지켰지만 산천이 병이 나서 그만 두었다’ 고 한 것을 통해 저간의 사정이 밝혀지게 된 셈이다. 그가 다시 금강산 유람을 도모한 것은 1838년 봄의 일이다. 이 편지는 〈완당전집〉〈여초의〉 8과 〈주상운타〉에 수록된 것으로, 소치에 대한 언급은 문집에만 수록되었다. 그 내용은 이렇다.



도판은 〈주상운타첩〉이다.

이미 그대가 (대둔사)산을 내려왔다고 하는데 소식을 접하지 못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마치 뜬 구름이 뿌리 없이 이리저리 흘러가는 것과 같다고 여겼습니다. 뜻밖의 그대 편지에 놀랍고 기쁜 마음을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천릿길을 헤매는 (그의)행색에 고달픔이 배어나니 무엇을 해야 할지 걱정이 됩니다. 산인(초의)과는 평생토록 잊지 못할 사이인데 이즈음에 나를 찾아 왔으니 애달픈 마음 멈추질 않습니다. 다만 이 몸이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만나 강상의 옛 일을 회상할 수가 없어 사람의 마음에 답답함이 사라지지 않게 합니다. 이런 가운데 언뜻 상사(常事: 부친의 제사)가 지나가 하늘을 우러러보고 땅을 살펴보아도 망극하여 살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고통스러운 병도 더욱 깊어지고 날로 시들어지고 때로 스러지니 (이) 또한 (운명에) 맡길 따름입니다. 머물고 있는 혜암(慧庵)에게 언제나 머무실 건가요. 가까운 절은 갈만 한 곳이 없을 듯하고, 또 이곳에서 연락하기도 여기보다 나은 곳이 없을 듯합니다. 다른 번거로움이 없다면 방편으로 삼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만난 회포를 풀 기약도 인연을 따라 얻어질 것이니 다시 도모해야겠습니다. 금강산으로 가는 것을 누가 다시 막겠습니까. 다만 금강산으로 떠나기 전에 나를 한번 만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보낸 차품은 심폐가 시원해지는 것을 느낄 만큼 좋지만 매번 차를 덖는 방법이 조금은 지나쳐서 차의 정기가 사그라진 듯합니다. 만약 다시 만든다면 (차를 덖을 때) 불의 온도에 주의하심이 어떻겠습니까. 무술(1838)년 4월8일. 허소치의 그림은 과연 기이한 재주입니다. 어찌 함께 오지 않았습니까. 그의 소견은 낙서(윤덕희(1685~1776)의 호, 공재 윤두서의 맏아들)의 그림법을 배운 것에 불과합니다. 만약 한양으로 와서 배우게 한다면 그 진척된 모습은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남평 관아에서는 소식이 없습니까. 근聞甁錫下山而聲信莫接 意謂浮雲無蔕東西不定 驀地梵椷不勝驚喜 第千里間關行色示憊 何等奉念山人不忘平生 際此委到 哀感無已 但此身有拘 未由即展回憶江上舊事 令人悒悒不能已 此中奄經常事 俯仰靡極 只欲無生而已 所苦一以沈頓日萎時銷 亦任之耳 住處當於慧庵始終也 近寺顧無可去處 且自此接連 恐無過是 能無他惱 可得方便耶 一展之期亦有因緣可得 且在再商耳 金剛之行誰復遮住 但行前與此一見亦佳 未知何如 茶品荷此?存 甚覺醒肺 每炒法稍過精氣有銷沈之意 若更再製 輒戒火候 如何如何 戊戌佛辰 許痴畵果是奇才也 何不携來耶 所見聞不過駱西一法 若使來遊京洛 其進不可量也 南平衙中無聲信耶

당시 추사는 1837년 부친 김노경의 사망으로 경황 중에 있었다. 초의가 상경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산인(초의)과는 평생토록 잊지 못할 사이인데 이즈음에 나를 찾아 왔으니 애달픈 마음 멈추질 않습니다’ 고 하여 서로 회유(回遊)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토로하였다. 특히 그가 초의차에 대해 ‘매번 차를 덖는 방법이 조금은 지나쳐서 차의 정기가 사그라진듯합니다’ 고 한 점이 눈에 띈다. 이는 초의차의 원숙한 경지가 추사의 조언을 통해 완성되었음을 확인케 할 뿐만 아니라 추사와 소치 허련(1809~1893)의 인연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밝힌 셈이다. 당시 소치의 그림을 가지고 상경했던 초의는 당대 최고의 감식안을 가졌던 추사에게 제자의 그림을 보여 준 것. 한 눈에 소치의 재주를 알아본 추사가 아니었던가!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WORLD BUDDHISM LEADER

나라와 종단 어느 승가를 불문하고
전 세계 모두가 공감하고 찬성하고 모시고자 하며
불교국 승가 종정들이 역시 그 분이라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존경받는
불교의 최고 어른을 선정하여 모시고자 준비하는

세계 법왕 및 승왕 추대 추진위원회
세계 불교 지도자 500인 선정 발기 협의회
불교계 고승 및 원로 추대
(종사, 대종사 급만 동참 가능)
*법하께서도 추진위원회 발기인으로
활동하시겠습니까?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를 보내주십시오.
모든 스님 누구나 동참 자격이 있습니다.

종단불문, 법납, 속납까지 불문하여
세계불교 고승 및 원로로 모시게 됩니다.
새롭게 거듭나는 승가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한국 불교의 대 변화와 개혁을 이루는
초석이 되어 보십시요
한평생 부처님의 은덕으로 수행해온
큰스님들께서 앞장서 후학들에게
무언의 가르침을 행으로 보여 주신다면
불교사에 새로운 역사와 기운이
샘솟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 서 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 소개서
■ 접수처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추진 집행위원장 大僧正 木 鐸 - 慧 恩
전화 02)733-5665. 5670. 011-229-6061 / 팩스 733-5671

“평생 공부한 영어

김영로 선생 (영어불서 번역가)

“제가 악과 심한 고통으로 시달리는 불운한 중생들을 볼 때마다 마치 희귀한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제가 그들을 귀하게 여기게 하소서. 비록 제가 도움을 주고 큰 희망을 가졌던 어떤 사람이 이유없이 저를 해친다해도 제가 그를 저의 성스러운 스승님으로 보게 하소서…”(랑리 땅빠 보살님의 마음수행 팝송중에서)

매일 티베트 밀교 경전들을 읽고 번역하며 인생의 후반부를 불서 번역가이자 재가 수행자로 살고 있는 〈영어순해〉의 저자 김영로 선생(72)은 “불자들이야말로 영어를 꼭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어로 번역된 양질의 불서를 직접 읽으며 공부할 수 있지요. 제가 10년 동안 불교공부를 해보니까 결국 저는 바로 이 공부를 하기 위해 평생동안 치열하게 영어공부를 해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설명했다.

영어교재 편찬의 살아있는 전설

김영로 선생은 7080세대 대학생이라면 대부분 영어공부의 필수품으로 들고 다닌 빨간색 〈vocabulary 22000〉과 〈영어순해〉를 펴내며 베스트셀러화 시킨 영어 교육계의 살아있는 전설이다.

이렇게 평생 영어 교재 편찬에만 전념해 온 그가 6년전부터 영한대역 〈행복수업〉과 〈한영 보현행자의 서원〉 등을 출간하며 문서 포교를 해오고 있어 불교계는 물론 세상을 또한번 놀라게 했다.

특히 명상 언어집 〈김영로의 행복수업〉은 티베트 밀교(密教)인 금강승(탄트라) 불교의 가르침을 담은 책으로, 영어로 된 밀교 경전과 잠언집에서 김씨가 전하고픈 내용을 추려 엮었다. 평생 영어로 된 글 읽는 법만 가르친 업인지, 무상법(無上法)을 설하는 이 책도 영한대역, 원문과 번역문과 해설 순으로 정리했다.

영어 교사, 외국어 전문학원 강사 등으로 살아온 김씨는 1983년 쓴 수험서 〈영어순해〉로 일약 유명해졌다.

이후 펴낸 교재마다 불티나게 팔려 나갔고, 그 가운덴 밀리언셀러도 있다. 그런 그가 2002년부터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의 인적 드문 곳에 터를 잡고 수행승과 다름없이 살고 있다.

추상미술을 전공한 부인도 탱화 그리는 불모(佛母)가 됐다. 종교적인 전원 생활이 떠오를 수도 있지만, 실은 난방비 아끼느라 실내 온도도 낮게 해놓고 사는 등 검소한 삶을 살고 있다.

그동안 인세로 많이 벌었음직도 할텐데 그 돈은 다 어쨌냐는 조심스런 물음에 김씨는 “이곳 저곳 나가는 돈이 많아서 경제적으로 나는 예나 지금이나 하층민”이라고 답했다. 그는 개인사에 대해서는 무척 말을 아꼈는데 그의 주변을 탐문해보니 “모두 사람들 도와주는 보시행 펼치다 그렇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2002년 스승 만나 탄트라 수행에 입문

김씨는 “참 희한하지요. 이곳으로 이사오기전 서울 구기동서 오래 살았는데 그때는 불교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관음리로 오기전 제 아내가 관세음보살님 꿈을 꾸었어요. 그 이후 인근에 계신 탄트라의 구루(스승) 법사님을 만나 밀교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불보살들이 나를 수행의 길로 이끈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행복했던 적은 없어요.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이 책들 한 권이 저에겐 빌게이츠의 수많은 재산보다도 더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부처님을 만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엔 풍족하지만 불행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한 공부를 나누고자 이 책을 썼습니다.”



수행하고 있을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김영로 선생.

하루 20시간 가까이 수행한다는 그에게 불자들에게 다소 생소한 밀교에 대해 묻자 “부처님께서 준비된 제자들에게만 은밀하게 전수한 가르침입니다. 즉 소수정예자들인 엘리트들을 깨달음(空性)에 이르게 해 큰 기쁨(大樂)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가르침”이라고 설명했다. 상근기에서만 공부할 수 있어 초심자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욕망과 고통마저 깨달음의 에너지로 환원해 무한한 자유를 향해 가는 것이 밀교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꿈꾼다. 하지만 어느 순간 행복인 줄 알고 좇아갔던 것이 불행의 씨앗이 되기도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갈팡질팡한다. 그 뒤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 고민하며 길을 찾아 헤맨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적 고민은 ‘행복’이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서 ‘행복수업’을 실시하는 학교가 늘고 있고, 인기도 높다고 한다. 지금은 행복 수업이 필요한 시대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바로 김영로 선생이 지금 공부하는 탄트라가 행복수업이라는 것이다.

수백권 불서읽는것도 행복 위한 수행방편

영어로 된 수백권의 불서를 읽고 공부하는 것도 바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다. 이제 그의 관심은 불교와 영어를 동시에 배우게 하는 것이다. 영어로 된 불서에는 기존 번역본보다 불교에 대한 정보가 더 많아 이를 소개하고 싶다는 욕구가 크다. 여기에 기존 번역 불서들을 훑어보니 오류가 너무 많다는 것도 또 하나의 이유다.

10년 동안 불서 번역하며 탄트라 수행
불교번역서 논리력 부재로 오류 많아
“영어경전 읽으면 불교공부 시간 단축”
영어교재 인세 대부분 보시행으로 사용
지금 공부하는 탄트라 바로 ‘행복수업’

“영어 불서에는 용어의 엄격함과 비논리적인게 없습니다. 지혜와 깨달음의 불교엔 논리의 치밀성이 있지요. 바로 이들간의 결합은 논리력에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번역본과 원본을 대조하며 공부하는데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 출판사의 베스트셀러 번역서들에서도 오류가 많이 눈에 띕니다. 부분 오류는 논리적 오류로 이어지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부족한게 원인이라기보다는 치밀한 논리력과 사고력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불서들은 물론 불교적 지식이 뒷받침돼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그는 불교의 치밀한 논리가 정확성과 연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번역본의 오류는 ‘번역의 재번역’이란 두 단계 번역 과정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그는 티베트 불교의 영어 번역에 관심이 높다.

“산스크리트어와 빨리어로 된 경전은 13세기 경 이슬람의 침공으로 소실된 경우가 많지만 티베트는 외세침입이 거의 없어서 경전들이 보관이 잘 돼 있는 편이며, 산스크리트어 자체를 모델로 만들었기 때문에 정밀하게 번역이 돼 있습니다. 또한 티베트 스님들이 영어권에 들어가 영어경전을 많이 제작하기도 했지요. 티베트어 경전이 아닌 경우 영어불서를 많이 읽지 않으면 상징적 언어들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역 불서를 많이 읽지 않으면 밀교가 전하는 성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번역 작업도 일종의 수행

그는 번역 작업도 일종의 수행이라고 생각한다. 정확히 번역하려면 더 많이 공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불자들이 영어공부를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까를 물었다.

“우선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글의 순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지요. 읽으면서 이해되도록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면 됩니다. 눈으로 먼저 보게 되면 감각이 걸어 잠기고 닫혀버립니다. 즉 자신의 책 제목 처럼 ‘문맥순해’를 강조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영어경전 읽기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문장을 두려움을 갖고 쳐다보지 말고 알고 있는 내용처럼 내려다보는 자세가 영어를 쉽게 풀이하는 기본 방식이지요.”

그는 이런 방법으로 영어 불서를 읽다보니 불교 공부에 빠졌다고 경험을 말한다.

“불교 책 중에는 영어 문장 하나하나 옮겨 놓으면 그대로 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논리가 완

불교 공부 기초 공사”



김영로 선생은 … 서울대 문리대 영문과를 졸업한 김영로 선생은 대학 재학중 코리아 헤럴드 주최 전국 남녀 대학생 영문 백일장에서 1, 2회 연속 장원을 차지했다. 특히 1983년 편찬한 〈영어순해〉는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다. 숭문고 영어교사와 현대외국어학원에 재직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연대 고대 숙명여대 한양대 등에서 강사를 역임하기도 했다. 1969년부터는 브리태니카 한국지부 문화부장으로 3년간 재직했고, 〈영어순해〉 〈문맥순해〉 등의 영어 관련 저서를 내다가, 2007년부터는 〈김영로의 행복수업〉 등의 불교 저서와 〈산티데바의 행복수업〉 〈한영 보현행자의 서원〉 등 번역서를 출간했다. 법명은 부동(不動, 아찰라)이다.

벽하고 치밀하다는 근거지요. 광덕스님의 〈보현행자의 서원〉 영역 작업에서 절실히 느꼈지요. 옮겨서 그대로 말이 되면 논리가 완벽하고, 언어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논리적으로 가장 완벽하고 언어의 장벽도 쉽게 넘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 논리의 치밀성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에 티베트불교가 기여했고, 그만큼 티베트의 수행자들이 남긴 책과 가르침은 논리적이라서 영역 작업도 손쉬웠다는게 그의 생각이다.

특히 〈보현행자의 서원〉중 핵심 내용들은 많은 이들이 읽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에서 무료로 모 출판사의 달력에 가려 뽑아 주기도 했다.

60세가 넘어 보살계와 탄트라계를 받은 그는 곌상 가쵸스님의 영어기도문을 외는 것이 일상이다. 가쵸스님은 영국서 선원을 열었고 ‘금강승의 전파자’로서 티베트불교를 국제무대에 폭넓게 알렸다. 그가 공부한 티베트 스님들의 경전과 책은 논리적 치밀함이 매력이었다. 여기서 금강승 수행은 고통과 질병도 깨달음의 자원으로 본다. 질병을 수행의 기회로 여길 정도로 모든 것이 깨달음의 자료이다.

그는 다 읽고 난 후 저절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책, 산티데바(Shantideva)스님의 〈입보리수행론〉을 번역했다. 번역하면서 그는 ‘하루종일 기도한 느낌’을 받았고 ‘행복하다’는 생각에 젖었다고 했다.

공성수행 위한 교재 개발 절실

김영로 선생은 마지막으로 한국불교 발전을 위한 세가지 제안을 덧붙이며 말을 끝맺였다. “첫째 영어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영어로 나와 있는 부처님 가르침이 너무도 많은데 영어를 모르면 이 귀한 자료를 이용할 수 없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둘째는 티베트 불교 연구소를 세워 로종(마음수행)과 람림(깨달음의 길의 단계), 바르도 퇴돌(티베트 사자의 서)을 도입해야 합니다.

람림과 같은 안내서가 없다는게 우리 한국불교의 취약점이며, 경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자격을 갖춘 스승의 바른 안내가 필요합니다. 또한 죽음에 대한 수행도 절실합니다. 그래야 자살을 하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셋째로는 공성수행(깨달음)을 위한 쉬운 교재를 개발해야 합니다. 공성은 불교의 가장 높고 심오한 공부이기 때문입니다.”

글=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o@hyunbul.com



김영로 선생이 그동안 펴낸 저서들과 현재 공부중인 불서들이 그의 서재에 꽂혀 있다.

전법일기

원력 없으면 삶만 피곤해져

운불련, 빈 택시의 법문

대전의 포교당에서 지낼 때 운전기사불자연합회(운불련)법회를 1년 동안 맡게 되었다. 외부법회는 보통 한 두 차례 보아주고 마는데 운불련의 특별한 사정 때문에 1년간 법회를 보게 된 것이다. 당시 기사불자들은 택시의 가, 나, 다, 라의 4개 조로 편성된 영업 일자로 인해 각각의 쉬는 날에 맞추어 4일간 계속 같은 내용의 법회를 해야 했다. 그런데 4일을 계속 한 스님께 부탁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다른 스님을 모시기도 여의치 않았다. 그런 사정을 들으신 은사스님께서 나에게 1년간 법회를 맡아서 봐주도록 하라고 하신 것이다.

그렇게 결정이 되고 운불련의 회장과 임원들이 인사를 왔다. 회장님을 비롯한 운불련 불자들의 첫인상은 무척이나 겸손하며 부드럽고 따뜻하였다. 대부분 신심도 충실하고 교리공부도 많이 한 분들이었다. 한 분은 운불련 법요집을 편집 제작하여 사용하게 할 만큼 풍부한 경륜과 지식을 갖고 있기도 했다. 다들 신심이 있고 교리에 밝을 뿐 아니라 택시운전을 하며 세상사 많은 경험을 한 분들이라서 속에서 은근한 걱정이 되기도 했다.

첫 법회를 보는 날 법사를 모시러 택시가 왔다. 여러 차례 법회를 다녀봤지만 그렇게 차를 가지고 온 경우는 처음이었다. 비록 택시였지만 법회에 가는 마음이 무척 가볍고 기뻤다. 법회분위기 또한 활기차고 힘이 넘쳤다. 굵은 남성들의 염불소리가 자신 있고 우렁차게 법당을 울렸다. 대부분 남성인 기사들과 부인 및 가족들이 함께한 법회라서 여성들이 중심인 일반사찰의 법회와는 차이가 있었다. 그렇게 4일 동안 같은 법문을 하면서 첫 법회를 하였다.



그림 · 박구원

1년간 대전운불련 법회 법문 맡아
어느날 잊지 못할 법문 한가지 청탁
“손님 모시듯 인생도 목적 갖고 살자”

법회를 하면서 임원들과 상의하여 목탁 및 의식교육을 하기로 했다. 각 조별로 법회를 볼 때 목탁을 치는 법과 염불의식이 차이가 있어 통일을 시키기로 한 것이다. 한 달간 1주일에 1~2회 시간을 내어 목탁과 염불의식을 교육했다. 그런데 새로 배우는 사람보다 오랫동안 습관이 들어있는 사람을 고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애초의 계획보다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완전하게 교정이 될 때까지 거듭 반복하여 교육을 했다. 이 때 이후로 목탁 및 의식교육을 할 때마다 반드시 하는 말이 있다. “누가 묻거든 주경스님에게서 배웠다고 해도 좋습니다. 단, 제가 가르친 대로 제대로 하면서 그렇게 말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제게 배웠다고 하면 곤란합니다.”

어느 날 운불련 불자중 한 분이 택시기사들이 잊지 않고 기억할 만한 딱 좋은 법문을 한 가지 해 줄 수 없냐고 부탁을 해왔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빈 택시의 법문’이다. “운불련 기사님들은 신호와 법규도 잘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시죠, 하지만 아무리 운전을 잘하고 하루종일 쉬지 않고 다닌다고 해도 승객을 태우지 못한다면 수입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불자로서 목적과 원력이 없는 하루하루와 일생은 피곤하기만 할 뿐 소득이 없습니다. 하지만 승객을 태운다면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운불련 기사님들은 늘 귀한 손님을 모시듯 그날그날 또는 해마다 일생을 이롭게 할 좋은 목적과 원력을 가지도록 하십시오.”

1년간 법사를 맡은 동안 시내에 나가면 언제나 운불련 택시를 만나곤 했고, 그때마다 대전시내에 불자들이 가득한 듯 느끼곤 했다. ‘달리는 법당, 거리의 포교사’ 신심과 자신감이 가득한 운불련의 표어이자 상징이다. 지금도 운불련과의 오랜 인연이 귀하에 이어짐에 감사한 마음이다.



주경 스님(서산 부석사주지)

철리와 과학, 수행법을
구체적으로 해설한 부처님 경전

마음은 무엇이며 그 수행은 어떠한 것인가?
천명일 선생의 명쾌한 해설로 부처님 말씀을 생생하게 듣는 듯합니다.

최신간 (완간)

수능엄경 (首楞嚴經)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가르침에 의하여 말하고 나의 가르침과 같이 도를 수행하면 곧 보리를 성취하고 다시 마의 장난이 없느니라.”

육도(六度)와 삼현십지(三賢十地)의 수행이 다 들어 있고, 삼제(三諦: 空 · 假 · 中)를 총섭하여 가르쳐주는 부처님 말씀 수능엄경.



수능엄경(首楞嚴經) | 천명일 해설
가격 | 상 20,000원, 중 20,000원, 하 27,000원, 세트 전3권 값 67,000원)
도서출판 지혜의나무 (전화 02-730-2211)

산성 할아버지의 이야기 천자문



케이블TV “산성 할아버지의 신新 사고思考 한문이야기”로 방영된 한문과 천자문, 그리고 불교이야기를 풀어낸 바로 그 책

이 책은 붓다의 가르침으로 보는 이야기 천자문이다. 천자문을 기존의 해설이나 풀이 방법이 아닌, 본연의 나를 찾는 깨달음의 경문으로 풀어낸다. 한자의 구성과 그 본연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이야기와 예문,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 등을 인용해 알기 쉽게 엮어내었다. 참 나를 찾는 붓다의 가르침을 통해 보는 천자문 이야기는 깨달음으로 가는 해탈의 길로 우리를 안내해 준다.

천명일 지음 | 신국판 | 536쪽 | 값 18,000원 지혜의 나무

절로 가는 길



절이 지닌 의미와 깨침의 미학

심신心身의 모든 감성과 마음까지도
환히 깨닫는 절 이야기

사찰은 본래 우리 내면의 각성세계를 밖으로 잘 대비시켜 놓은 것이다.
사찰의 안과 밖의 참 면목을 마치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만나게 되듯 지극히 편안한 마음으로 안내하며, 사찰의 구조적 풍광과 모든 조형의 조각물들이 모두 문자로 보이고, 형색의 도설이나 자신의 내면의 소리로 들려 우리를 깨달음의 세계로 안내 해 준다.

천명일 지음 | 신국판 | 597쪽 | 값 20,000원 지혜의 나무

곰파 프라하(Gompa Praha) 올 가을 개원

8년간 17억여 원 마련 … 체코 불교계 랜드마크 세운다
홀레쇼비체 버려진 산업시설 … 대중 수행 · 신행 공간으로

체코불교의 중심이 될 매머드 불교센터가 프라하에 들어선다.

프라하 데일리(Prague Daily)는 9일 "홀레쇼비체(Holesovice) 인근 옛 산업 시설이 불교센터로 개조되고 있다"며 "콤파 프라하(Gompa Praha)로 명명된 이 불교센터는 체코불교계의 랜드마크(landmark)로 주목받으며, 명상 수행 · 불교 강의 · 불교 전시 등의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곰파 조직위원장 이안 마츠스카(Jan Matuska, 이하 '이안')의 말을 인용 · 보도했다.

곰파 프라하 조직위 측에 따르면 '곰파 프라하 프로젝트'는 체코불교계가 8년간 준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28,000,000 체코 크라운(약 17억 원 상당)의 기금을 조성했다. 곰파 프라하 조직위는 이 기금으로 낡고 버려진 산업 시설과 관련 부지를 매입한 데 이어, 올해 가을 개원을 목표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체코공화국에는 현재 50여 곳의 불교(혹은 명상) 센터가 개원해 있지만, 소규모이고 이주민 공동체 중심의 지역불교에 머물러 있다"고 전제한 이안 조직위원장은 "프라하의 역사 이면으로 사라진 옛 산업 시설을 개조, 250여 명이 함께 정진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춘 매머드 불교센터 곰파 프라하를 개원하는 것은 체코불교 한계라고 할 수 있는 지역불교의 굴레를 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를 보였다.

이와 함께 곰파 프라하 조직위 측은 곰파 프라하를 중심으로 2000평방미터 이내에 산재한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도 할 수 있도록 프라하 시당국과 계약을 체결한 점을 강조하고, 이곳의 산업 시설에서 평생을 보냈던 지역 주민들을 위해 옛 시설의 중요 부분으로 그대로 보존, 상설 전시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불교센터를 향한 일반인들의 발걸음이 늘어나게 되면, 포교의 길도 넓어질 수 있다는 게 이 방침의 배경이다.

"체코불교계는 이렇게 광범위한 프로젝트를 처음 진행한다"고 전한 이안 조직위원장은 "곰파 프라하는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우리 센터가 위치 한 홀레쇼비체에서 문화와 종교생활을 풍요롭게 도움을 주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곰파 프라하가 들어선 옛 산업 시설 전경. 그 옆으로 공동주거시설 등이 보인다. 프라하 홀레쇼비체 지역에서는 현재 버려진 산업 시설을 주거 · 금융시설로 리모델링하는 붐이 한창이다.

이를 위해 곰파 프라하 조직위 측은 매일 아침과 저녁 마다 명상 프로그램을 개설 · 운영하고, 매주 토요일 대중법회를 봉행하는 것은 물론 불교 강의나 불교 음악 등을 들으며 신심을 단련하는 프로그램 등도 속속 기획할 방침이다.

"곰파 프라하의 불교 시설과 프로그램은 유럽불교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추론한 이안 조직위원장은은 "이는 체코공화국이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유럽 각지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유럽을 여행하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곰파 프라하를 방문하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체코불교는 1930년대 초, 주로 지식인층에서 학문적 접근을 하는 차원에서 움트기 시작했다. 이후 사회주의 체제 속에선 뚜렷한 활동이 없다가 구소련 제체가 무너진 1990년대 학문의 영역을 넘어 대중에게 다가서기 시작했다.


프라하 소재 티벳불교계 금강불교센터에서 진행하는 대중법회에 동참한 체코 현지 불자들의 모습.

현재 티벳불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그외 스리랑카 · 베트남 · 일본 · 한국불교계에서 불교센터와 포교당을 개원?운영하며 포교에 매진하고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트위터 하루만에 삭제

브래드 피트 中계정 트위터 남겨

할리우드 배우 브래드 피트가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에 의문의 글을 남겼다가 이 글이 하루만에 삭제돼 각종 의문을 낳고 있다고 1월 8일 AP통신이 전했다.

피트의 게시물이 누구에 의해 삭제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피트가 중국의 티베트 강압 통치를 다룬 지난 1997년 작 '티베트에서의 7년'에 출연할 것 때문에 중국 정부로부터 입국 금지조치를 당했다는 점 등을 미뤄볼 때 중국 정부가 웨이보 측에 삭제를 요청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브래드 피트의 것으로 확인된 웨이보 계정에 지난 7일 "사실이다. 옙(yepp), 내가 간다"는 글이 게시됐다. 이 글은 3만 1000건이나 리트윗되며 급속히 퍼져나갔다. 댓글도 1만 4000개나 달리는 등 중국인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줬다. 브래드 피트의 웨이보 계정을 팔로잉(following)하는 사람 수도 순식간에 1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이 글은 8일 오전쯤 사라졌고, 피트의 계정에는 계정만 만들어놓고 아무런 글을 남기지 않은 이들의 경우처럼 "아직 트윗을 하지 않으셨습니다"란 메시지가 올라왔다. 이나은 기자

우명주 박사의
암베드카르와 현대 인도불교 〈3〉



마누법전 불태워 카스트제도 부조리에 저항

불가촉천민들을 위한 노력과 개종 결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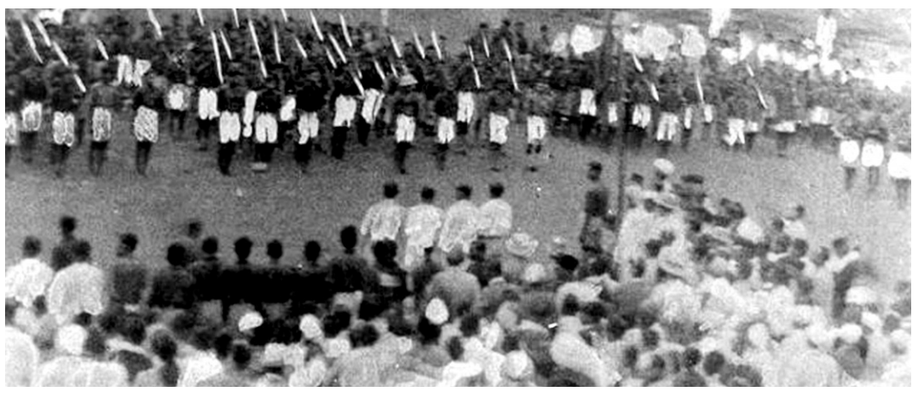
해외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온 암베드카르는 1924년 변호사일을 시작한다. 당시 인도는 정치사회적으로 격동기를 맞고 있었다. 독립운동도 최고조에 달해 있었고 억압받는 계층을 위한 해방활동도 활발했다.

공부를 끝마치기 전에도 불가촉천민을 위한 잡지를 발간해왔던 암베드카르는 귀국한 후 본격적으로 불가촉천민 해방운동에 착수했다. 그 첫번째는 불가촉천민들이 마을의 공용 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었다. 1923년에 불가촉천민들이 공용 우물을 사용해도 된다는 법안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층계급 힌두들은 불가촉천민들이 마을의 공동 우물에서 물을 떠가는 것을 막고 있었다. 암베드카르는 이에 항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고 1500명의 참가자들이 뭄바이 근처 마하드 지방의 초다르 저수지로 가서 물을 마셨다. 이 소식이 퍼지자 상위계급 힌두들이 몰려와 물을 마신 참가자들을 심하게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들은 저수지에서 정화의식을 한 후 암베드카르와 그의 지지자들을 고소했고 이후 지역법원은 불가촉천민들이 공용 우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법안을 철회하고 말았다.

이에 암베드카르는 다시 회의를 열었고 공개적으로 마누법전을 불태워버렸다. 마누법전은 힌두교의 전통법전으로서 카스트에 따른 차별을 지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면, "브라만은 베다를 가르치고 배우며 제사를 지내는 일을 하고 크샤트리아는 인민을 보호하고 보시 · 제사를 해야하며 베다 배우는 일을 해야 한다. 바이샤는 가축 기르기, 보시하기, 제사지내기, 장사하기, 토지를 경작하는 일, 베다를 공부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신이 수드라에게 정한 유일한 업은 원망과 슬픔없이 다른 세 계급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등의 내용들이 담겨있고 심지어는 "만약 수드라가 베다를 독송하거나 소리를 들으면 그의 귀에 불에 녹인 쇳물을 붓거나 혀를 잘라내야 한다"는 끔찍한 내용도 실려있다.

불가촉천민 위한 분리선거구 요구
신분차별 원인은 힌두교…개종선언

약 2천년간 힌두들에게 숭배받아 온 마누법전을 불태운 것은 불가촉천민을 부조리한 차별에서 해방시키려는 암베드카르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때에도 암베드카르는 힌두교를 떠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힌두교 안의 카스트 제도로 인한 차별을 없애고자 했지만 그것을 힌두교 안에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평등사회모임'이라는 조직을 결성해 불가촉천민과 다른 카스트간의 식사나 결혼 등을 주선하려는 노력도 했다.


암베드카르는 불가촉천민들과 함께 계급해방에 앞장섰다.

이 당시에 그는 불가촉천민들의 문제는 정치적 문제이며 불가촉천민들의 정치적인 힘을 가지지 못하는 한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불가촉천민들이 정치적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활동에 착수했다. 그 일환으로 그는 불가촉천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불가촉천민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도록 불가촉천민만의 분리선거구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단식도 불사한 마하트마 간디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성사되지 못했다.

여러 경험들을 통해 암베드카르는 불가촉천민들이 정치적 힘을 가지는 것도 어렵지만 설령 그런 힘을 가졌다고 해도 그들이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얻을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불가촉천민에 대한 차별문제는 정치적이기보다는 종교적 문제라고 생각하게 됐다. 자신들이 결코 힌두들로부터 동등한 힌두교도로 받아들여질 수 없고 힌두교 내에서 카스트제도로 인한 차별이 결코 철폐될 수 없음을 알고 암베드카르는 마침내 힌두교를 떠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1935년 10월 13일 암베드카르는 욜라에서 열린 집회에서 공식적으로 힌두교를 버리고 개종을 하겠다는 선언을 한다. 그는 "불행하게도 나는 힌두로 태어났다. 그러나 나는 힌두로 죽지 않을 것을 엄숙하게 선언한다"라고 선포했다. 집회에 참석한 만명의 불가촉천민들도 그들에게 평등함을 안겨줄 종교로 개종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때까지도 어떤 종교로 개종을 할 것인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 선언 이후 그는 왜 자신이 힌두교를 버리고 개종을 하게 된 것인지를 여러 차례에 걸친 연설에서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힌두교안의 카스트 제도는 어느 인류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불평등한 제도라고 말하며 이런 불평등을 겪은 이유가 힌두로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자신들의 목표는 힌두사회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힌두교의 테두리를 떠나 다른 종교로 개종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종교를 위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종교가 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따라서 자신들을 인간으로 대접해주지 않는 종교에 더 이상 머물 필요성이 없음을 강조하며 불가촉천민들에게 개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렇게 개종을 결심한 그는 그 결정에 대한 상위계급 힌두들의 비난과 싸우며 자신들의 새 종교를 결정하기 위한 오랜 탐색을 시작했다.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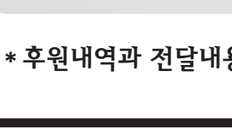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2013년 마음다이어리



마음의 흐름을 담는 빈 그릇

2013년도 '마음 다이어리'는 대행 선사를 추모하며
스님의 유품과 말씀을 엮은 특별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매달 생활의 지침이 될 법어와 임효 화백의 그림이 어우러져
다이어리의 가치와 품격을 더하였습니다.
마음의 흐름을 담는 빈 그릇, 마음 다이어리와 함께
2013년 한해 마음의 길 환히 밝혀가길 바랍니다.



구입문의 : 02)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십장생 福 포대화상 도자기



십장생 복 포대화상 도자기를 모셔둔 家에는 언제나 밝은 웃음이 그치지 않고 하는일 마다 만사형통하여 큰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매산 김선원



청곡 이한동

천하를 다 포용하고도 남을 큰배와 언제나 밝게 웃는 모습으로 포대자루 속에든 복을 꺼내어 중생에게 나누어 주시는 포대화상 (앞면)

도자기 옆면과 뒷면은 십장생 그림으로 사슴이 불로초를 물어다가 거북에게 건네주는 신비한 장면이며 아래위 여백을 살려 시원하게 처리 하였습니다.

「KBS 진품명품」에서 해박한 지식으로 서예 감정을 하여 그 이름을 떨치신 **매산 김선원 교수**님의 글씨와 한국 화단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소림사 한국본부문화원 미술원장을 맡고 계신 **청곡 이한동 화백**의 그림으로 합작하신 십장생 포대화상 도자기

※ (높이 37Cm× 둘레 100Cm 제조원 여주 다양도예 최고급 여주 백자
(손으로 일일이 만든 작품이라 약간씩 차이가 있음)

도자기 선물 SET

도자기 외 사은품 6종 가격
할인가 ₩ 99,800원

1 십장생 장수 반상기 세트 6P (밥그릇, 뚜껑, 국그릇, 2벌)



세끼 식사를 거르지 않고 제대로 하는 것이 천가지 보약보다 낮다고 합니다.

중요한 시사를 하는 반상기(밥그릇, 뚜껑, 국그릇) 또한 소중하게 선택되어야 합니다.

2 소품 연화 다기 5P



짙은 약이나 차를 따라 드실 때 편리한 소품으로 된 약찻잔 5피를 청곡화백의 작품으로 연꽃이 들어간 예쁜 잔입니다.



3 용달마 순금카드 1점

달마 순금카드를 남편 지갑에 넣고 다니게하면 늘 남편을 지켜 줄 것입니다.

주문은 현불샵 / 02)2004-8216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 서비스] 검색 →
114 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주 · 야 상담 합니다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稀潭石 희담석 www.jawonet.com

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전자파 걱정 없는 희담석 온열매트로
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를!!
희담석 에너지가 고객님의 건강을 증진시켜 드립니다.

희담석(稀潭石)의 가장 큰 특징은 탁월한 에너지 방사능력이며, 제오라이트(Zeolite) 또한 '생명의 돌'이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에너지 및 탈취 효과가 뛰어난 원석입니다.
희담 원석 중에서도 최고의 재료만을 엄선하여 만든 희담석 온열매트는 수면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를 충분히 보충해 드리며, 언제 어디서든 수맥파로부터 고객님을 보호할 것입니다.

희담석 온열매트
● 1인용 : 58만원 ● 2인용 : 85만원

제품 사양
• 내용물 : 희담석 볼 (희담석 60% + 제오라이트 40%)
• 열 선 : 실리콘 테프론 무자계 열선
(전자기장으로부터 안전한 열선으로 고가의 침대에서만 사용하는 열선)



2인용
1인용
● 크기
1인용 : 100㎝ × 200㎝
2인용 : 150㎝ × 200㎝

정신 집중이 잘 되고 머리가 상쾌해지는
희담석 방석

사용방법
좌선용, 학생 및 사무용 의자, 소파, 차량 등에 사용하십시오.
희담석 방석은 오랫동안 앉아서 생활해야 하는 운전자, 학생, 사무원, 스님 등 수련하시는 분들께 매우 유익합니다.



고급신형
● 50,000원 (색상 : 황토색) (사이즈 450mm×450mm)
※ 오래 앉아 있어도 땀이 차지 않습니다

명상과 함께 하는 -
희담석 염주목걸이

건강과 활력을 주는
희담석의 무한한 에너지 방사능력을 체험해 보세요.



이런 분께 권합니다.
· 수행하시는 스님 및 불자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분
· 목의 뻐근함을 느끼시는 분
· 피로가 누적된 분
·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수험생
· 컴퓨터를 많이 하시는 샐러리맨

정 가 ~~66,000원~~
↓
할인가 56,000원

합장주 ~~35,000원~~ → 할인가 30,400원
염주목걸이+합장주 SET → 84,000원

숙면으로 이끄는 -
희담석 베개용 패드

사용방법
베개 위에 올려놓거나 베개 커버를 벗겨서 패드를 올려 놓은 후 다시 커버를 씌우고 사용합니다.
(뒷면 미끄럼 방지 도트 처리로 밀리지 않습니다.)
· 아침에 일어나서도 개운하지 않는 분
· 두뇌 활동이 많은 학생
· 스트레스로 인해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분 등



● 25,000원 (황토색)

www.jawonet.com에서 카드 구입시 2, 3, 5개월 무이자 할부가 됩니다.
제품문의 011-9230-2335
자원넷 JAWONET CO.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8-4호 금구빌딩 B103호 TEL (02)3476-2335 FAX (02)3476-2505

옴마니반메훔 금장시계

만사형통 소원성취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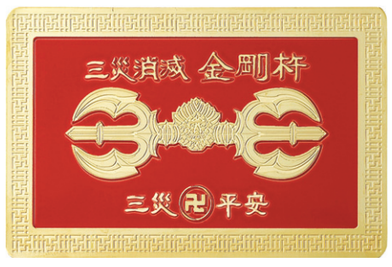
부처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리신 영험의 비방이 옴마니반메훔 육자대명왕진언으로 항상 외우고 간직하면 모든 문제가 놀랍게 해결된다고 설하셨다. 옴마니반메훔은 부처님 영험으로 중생들의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고 승리하게 해주신 영험의 진언이다.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일들이 신통묘통하게 해결 된다는 옴마니반메훔을 마음속으로 흠모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신통하게 묘한 일이 일어나 해결된다. 금장시계 앞면에 동서남북에서 복이 들어오며 만사형통하게 육자대명왕진언 "옴"자를 넣었고 고통과 역경이 와도 승리하며 소원성취하는 행운의 법구가 금장시계 뒷면에 부착되어 있다. 모든 일이 신통하게 잘 풀리는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훔 금장시계는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며 고급무브먼트와 고급문자판을 사용하고 방수처리와 금장처리한 금장시계로 선물로도 품격이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남성용 여성용

가 격 : 남성용 75,000원 / 여성용 7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전 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2013년 # 양띠 토끼띠 돼지띠 드는삼재 조심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삼재소멸과 닥쳐올 삼재화를 미리 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2013년 드는 삼재 2014년 묵는 삼재 2015년 나가는 삼재 양띠, 토끼띠, 돼지띠 중생들은 2015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쥐띠, 용띠, 원숭이띠 삼재기간 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 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 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양띠, 토끼띠, 돼지띠 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 중 삼재화와 삼재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 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 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 격 : 45,000원
전 화 : (02)741- 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진경산수화로 피어난 사찰 풍경

이호신 작가 〈가람전경〉 펴내

이호신 작가는 25년 동안 우리의 산사를 화폭에 담아왔다. 이처럼 '우리 산천 곳곳에 꽃처럼 피어난 가람의 향기'를 찾아 전국 곳곳을 누비며 완성한 수묵화를 담은 이호신 작가의 〈가람진경〉이 출판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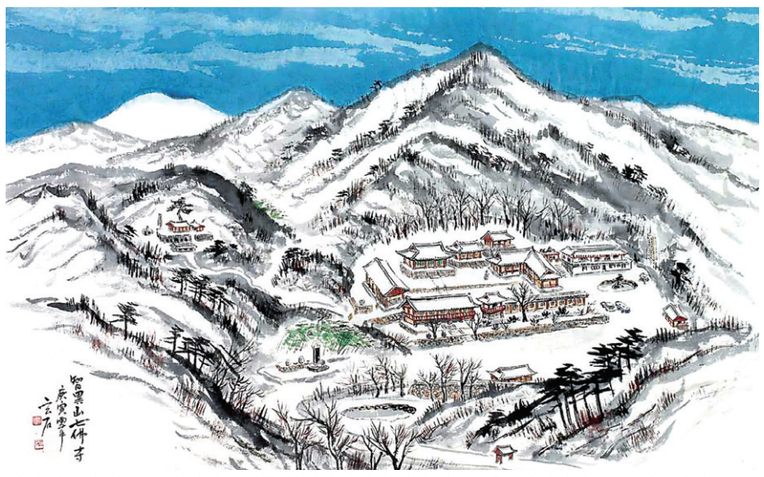
작가는 이번 책에 83개 사찰 130여 점의 작품을 수록했다. 여기에는 그림 작품은 물론 각 사찰의 연대기와 작가의 단상을 함께 담아냈다.

작가는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사찰 주변의 산을 수차례 오르내리며 산세와 계곡물의 흐름 지형을 살폈다. 그리고 사찰의 건축물, 조형물, 조경, 원림 등을 세심하게 관찰했다.

"며칠씩 절에서 잠을 자고 산을 오르내리며 여러 각도의 풍경을 화첩에 담아내다 보면 내가 완성할 그림이 눈에 보여요. 때로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죠. 지리산 실상사 같은 경우는 그림을 완성하는데 20년이 걸렸어요. 실상사는 평지 사찰이라 구도가 잘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도법 스님을 만나 절에서 몇날 며칠 자면서 구도를 새롭게 잡아 완성한 그림이죠. 운주사 천불천탑은 8년을 걸려 완성했어요. 지금은 영국의 대영박물관에 소장돼 있죠"

그렇다면 작가는 왜 이렇게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산사를 그려온 것일까? 그것은 한국의 문화유산을 온전히 담아내 기록에 남기고 싶다는 사명감 때문이라고 한다. "사찰을 그리다 보면 가람의 배치 건축물 탑 등 정확하게 그려내야 할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또 저의 시각으로 풀어내야 하는 작가적 사명도 있죠. 이 두 개를 조율하는 것이 저의 일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선시 되는 것은 우리의 전통 문화유산인 불교 문화재를 온전히 그림으로 남겨 세상에 회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작가는 이와 함께 지리산의 하루와 사계절을 그린 〈지리산진경(智異山眞景)〉도 함께 내놓았다. 정혜숙 기자



작가 이호신 씨는 20년 넘게 산사를 찾아다니며 작업한 작품들을 〈가람전경〉으로 펼쳐냈다.

죽음은 하나의 문…닫히면 다시 열린다

윤회사상 모티브 영화 '클라우드 아틀라스' 개봉

'500년의 시간, 반복된 만남! 시간을 관통하는 거대한 운명!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

'매트릭스' 시리즈로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앤디&라나 워쇼스키 감독과 매혹적인 스릴러 '향수'의 톰 티크베어 감독이 공동 연출을 맡은 '클라우드 아틀라스'가 1월 9일 개봉했다.

서구의 감독들은 불교적 연기법과 윤회사상을 바탕으로 500년 동안 여섯 생의 이야기를 펼친다. 영화는 무게감 있는 철학적 메시지는 물론 흥미로운 구성을 동시에 제공 관객들의 눈길을 끈다. 출연진도 화려하다. 톰 행크스, 할 베리, 짐 스터게스, 배두나, 벤 위쇼, 휴 그랜트, 수잔 서랜든, 휴고 위빙 등이 출연한다.

6개의 이야기는 1849 'Mystery'-1936 'Romance'-1973 'Thriller'-2012 'Comedy' 2144 'SF'-2321 'Fantasy'로 각각 구성된다. 옴니버스 형식을 가지고 가지만 각각의 이야기가 나열된 것이 아니라 스토리의 토막토막이 계속 이어지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점도 독특하다. 각 이야기의 캐릭터가 연관성을 갖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독립된 이야기의 주최로 존재하며 이야기의 절정을 함께 이끌어 간다. 하지만 이야기 모두가 각각 분리되는 건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각각의 이야기는 어떤 연관성을 갖고 퍼즐조각 맞추듯이 하나하나 해답을 준다.

클라우드 아틀라스는 국내에서는 배두나의 할리우드 진출작으로 제작단계부터 뜨거운 화제를 낳았다. 배두나가 출연하는 '2144 SF'는 나라의 경계가 무너지고 언어와 문화가 뒤섞인 미래세계 2144년 네오 서울을 배경으로 한다. 세계의 발전지이자 중심지인 네오 서울의 레스토랑 '파파송'에서 일하는 클론 종업원 손미. 그녀의 일상은 매일 19시간을 일하고 4시간만 수면을 취하며 비누 음료를 마시는 것으로 생명을 이어간다. 단순한 삶을 반복하는 손미는 그렇게 복제인간의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미는 혜주라는 순혈인간의 도움으로 '파파송'에서 탈출하게 되고 난생 처음 마주한 바깥세상에서 클론의 이면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사랑을 하게 된다.

복제인간을 연기하는 배두나의 표정은

워쇼스키 · 톰티크베어 감독 연출
500년 동안 6개의 이야기 구성
과거 현재 미래 오가며 흥미 유발
배두나 복제인간으로 출연 '화제'

일관되게 담담하고 무표정하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인간의 근원적 감정을 깨닫고 복제 인간의 부당한 운명에 의혹을 제기하는 순간부터 그의 표정도 조금씩 흔들리게 된다. 그 미세한 감정의 변화를 예리하게 포착해 가는 배두나의 연기는 흥미롭기까지 하다.

1936 'Romance'는 천재작곡가 프로비셔와 식스미스라는 두 남자가 금기된 사랑을 펼치는 이야기다. 프로비셔는 천재 작곡자 비비안 에어스를 찾아가 스승으로 삼고 그곳에서 작곡을 배우게 된다. 아름다운 심포니 '클라우드 아틀라스 6중주'가 탄생하기까지 강렬한 욕망과 로맨스가 펼쳐지지만 그에게는 얘기치 못한 또다른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 뿐인데……

이처럼 19세기부터 근 미래까지 약 500년의 시공간을 넘나들며 펼쳐지는 여섯 개의 각기 다른 장르와 스토리는 한 편의 거대한 서사로 귀결된다. 그래서 영화 '클라우드 아틀라스'는 화려한 영상미, 압도적인 스케일로 사건의 전개가 조화를 이루며 위기와 절정을 맞이하고 결말까지 끌어가는 하모니가 하나의 이야기로 관통된다.

배우들의 '1인 다역 연기'라는 발상도 재밌다. 덕분에 관객들은 한 작품에서 이 모든 배우들의 다양한 변신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톰 행크스는 6개의 스토리에서 각각 6개의 다른 캐릭터로 분해 다시 한번 놀라운 연기 스펙트럼을 선보인다. 할 베리는 진실을 파헤치는 당당한 매력의 여기자와 미래시대 다른 행성에서 온 여전사를 소화해낸다. 배두나 역시 복제인간 손미-451과 어윙의 아내 틸다 역 등으로 연기한다.

6개의 각각 다른 삶이 펼쳐지지만 이들의 삶은 각각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우리의 삶은 우리 것이 아니다. 자궁에서 무덤까지 우리의 삶은 연결돼 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우리가 악행를 범하고 선행을 베풀 때마다 새로운 미래가 탄생한다"

"죽음은 하나의 문에 불과하다. 그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만약 천국을 상상한다면 그건 완벽한 희망이다"

이처럼 영화는 우리의 삶 그리고 과거와 현재 미래가 서로 연결돼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연기법 등 동양적 철학을 바탕으로 하지만 결국 통속적 결말로 향하는 영화는 헐리우드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불교 철학의 옷을 입었지만 서구의 이분법적 시각에 머무는 한계성도 아쉽다. 정혜숙 기자





윤회사상을 모티브로 한 헐리우드 영화 '클라우드 아틀라스' 1월 9일 개봉했다. 영화는 화려한 영상미와 독특한 이야기 전개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이 영화는 한국 배우 배두나가 출연해 화제를 낳기도 했다. 아래 사진 중간이 배두나.

"2013년 三毒과 無明 벗어나길"

무진본 스님 독자들에게 휘호 전달



무진본 스님의 신년 휘호

서예가 무진본 스님이 2013년 계사년을 맞아 현대불교 독자들을 위해 신년 휘호를 보내왔다.

'脫却三毒無明 ⺣生心皖即是佛(탈각삼독무명해 중생심환즉시불)'

무진본 스님은 "중생이 허물을 벗기 위해서서 삼독과 무명을 벗어던지면 중생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져 부처를 이룰 수 있다는 뜻이다. 2013년은 뱀의 해다. 뱀은 허물을 벗는 동물이다. 현대불교 독자들도 이처럼 삼독과 무명을 벗어던지고 환하게 마음을 밝혀 부처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무진본 스님은 새천년 희망의 용특별전, UN 평화기금 조성을 위한 무진본 스님 특별전 초대 국제전 등 다시의 전시회를 펼친 바 있다. 정혜숙 기자

"박물관에서 배우는 인문학의 모든 것"

국립중앙박물관 수강생 모집
불교미술 등 명강사 100여 명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소강당 앞은 매주 활력이 넘친다.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정돈하고 강의를 듣기 위해 몰려드는 중후한 수강생들 때문이다. 수업 전 삼삼오오 모여 커피한잔과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영락없는 대학생이다.

국립중앙박물관회가 제 37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박물관에서 찾는 제 2의 인생'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번 강좌는 불교미술, 사상사, 미술사학 등 최고의 석학들에게 1년간 다양한 인문학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최고의 석학 100여 강사진으로 참여하는 이번 강좌는 △국립박물관장을 역임한 지건길 경주박물관장 △신광섭 민속박물관장 △이원복 광주박물관장 △곽동석 부여박물관장 등이 참여한다. 또한 한명기 교수의 한국사 △이선복 교수의 고고학 △이평래 교수의 '아시아문화' △윤용이 교수의 '도자기' △이태호 교수의 '한국회화' △배재호 교수의 '불교조각' △김병모 교수의 '인류학' △전경수 교수의 '인류학' 등의 수업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박물관 특설강좌는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1회씩 총 33회에 걸쳐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소강당에서 진행되며, 큐레이터가 직접 설명하는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실 교육, 전국의 산재된 문화재들을 찾아가는 고적답사, 그리고 세계문화유산과 인류문명의 발생지를 찾아가는 국외고적답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모집대상은 전통문화에 관심이 많은 시민이며 모집인원은 화요반 200명 목요반 200명이다. 교육장소는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소강당이다. 강좌 신청은 2013년 홈페이지 또는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에서 선착순 모집하며 수강료는 480000이다.

자세한 모집요강은 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회 홈페이지(www.fnmk.org)에서 볼 수 있다. (02)2077-9790~5 정혜숙 기자



국립중앙박물관회 수강생 답사 현장



국 내 산
'적하수오' 판매
■ 적하수오, 적하수오 된장 필하신분 연락바랍니다.
(청도 불광사 사찰 內 재배)
• 하수오 : 1 kg 3만원 • 하수오 된장 : 1 kg 5만원
스님들께서는 사찰을 운영하시면서 적하수오 재배시 최고의 소득작물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으며, 또한 불자님들께서도 재배하실 수 있는 부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수오 된장, 간장 등 하수오를 사용하여 만드는 법도 전수는 물론, 농약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노하우(방법)도 전수해 드립니다.
적하수오
1.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오 모종을 예약 분양합니다.
2. 묘목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3㎡(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 서룡 농장 : 010-8442-4444 (상담)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1리 368 묘목 재배
계좌번호 : 농협 302-0332-7864-61 예금주 김남필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5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존귀한 분께 귀의합니다”

정율 스님 4집 앨범 발표



4집 발표한 정율 스님.

-나모 땃서 비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붓닷서(존귀한 분, 공양받아 마땅하신 분 바르게 깨달으신 그분께 귀의합니다)-

정율 스님이 4집을 발표했다. 붓다완다나라는 ‘부처님께 예경하는 노래’라는 뜻이다. 빠알리어로 된 ‘나모 땃서 비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붓닷서’가 되풀이 되는 이 음악은 부처님에 대한 찬탄과 존경을 담은 만트라다.

스님이 이 노래를 만나게 된 사연은 독특하다. 우선 이 노래의 원제작자 신디(Shindi, 말레시아)의 사연부터 말하자면 이렇다. 그는 어느날 시내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잘못된 길을 몇번이나 반복하며 같은 자리를 맴돌았다고 한다. 그때 부처님을 향해 간절한 기도를 했고 그때 어디선가 멜로디가 들려왔다고 한다. 평소 음악을 좋아했지만 작곡 능력이 없는 그에게는 매우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멜로디를 녹음해 피아니스트를 찾아갔다. 그리고 이를 곡으로 쓰고 음반을 만들게 되었다.

그럼 정율 스님은 어떻게 이 곡을 만나게 됐을까? 9년전 정율 스님은 스리랑카에 여행을 가게 됐다. 음성포교 17년 차에 접어들면서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스님은 휴식을 취하고자 스리랑카로 가게 됐다. 그리고 한 불교 백화점에서 이 노래를 듣는 순간 마음이 평온해졌다고 한다. 담당자를 찾아 음반 복사본을 받을 수 있었고 스리랑카를 떠나 미국에서 포교활동을 하면서도 내내 이 음이 머릿속에 맴돌았다고 한다.

스님은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평온해졌고 호흡이 내려앉으며 절로 명상에 들게 하는 음악이었다. 이 음악은 내가 노래하고 싶다는 발원을 갖게 했다. 화두처럼 머릿속에 떠나지 않게 하는 그 음율이 말이다. 그렇게 작곡자를 찾게 되었고 나는 환희심으로 이 음악을 노래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이 음악은 조계종 교육원 빨리어 강좌 동영상 배경음악으로도 쓰여질 예정이다.

스님은 “2월부터 전국 승가대에 빨리어 강좌가 의무화 되면서 제 노래가 빨리어

스리랑카서 노래 듣고 감동
예경 · 찬탄 빠알리어 만트라

동영상 강좌에 오프닝 음악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음반을 전국 승가대에 3백개 보시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승가대 학생들이 빨리어를 좀더 자연스럽고 친숙하게 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해외공연도 갖는다. 상반기 뉴욕 원불교 교당과 LA관음사 등에서 공연을 갖고 상반기 안에 두 개의 빨리어 음반을 더 낼 계획이다.

스님은 “5집은 ‘삼보에 귀의하는 노래’가 될 것이고 6집은 ‘부처님께 약속하는 노래’가 될 것입니다. 이들은 동남아에 있는 많은 불자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염불로 많은 이들에게 신심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전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시전문지 〈유심〉 1월부터 월간 발행

문학토크 등 읽을거리 풍성



격월간으로 발행되던 시전문지 유심이 2013년 새해를 맞아 월간지로 새롭게 태어났다. 이번 호에서는 유심문학토크, 기획특집 나에게 시란 무엇인가, 시와 예술의 만남, 시집 속의 시 등 다양한 코너를 만날 수 있다.

기획특집 ‘나에게 시란 무엇인가’는 시인 8명에게 듣는 시론이다. 시인은 왜 시를 쓰고 언제 시를 쓰며, 그렇게 쓴 시들 중 가장 아끼는 작품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답을 글로 풀어낸다. 여기에는 김종길, 김후란, 문덕수, 박희진, 성찬경, 오세영, 유안진, 이근배 시인이 참여했다.

오세영 시인은 “시를 쓸 때만큼은 우주의 중심입니다. 저에 의해서 이 세계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고 저로 인해서 세계는 그 관계가 재정립 되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한다.

시와 예술의 만남에는 음악을 주제로 얘기한다. 신상호 전북대 음대 교수는 ‘시는 노래의 영혼’이라는 주제로 고대 그리스의 시와 음악, 성가 음악가 힐데가르트, 음유 시인들 등을 통해 시와 음악의 연관성을 찾아간다.

이밖에도 유심문학토크에는 권혁웅 시인이 참여했으며 권두논단에는 박현수 시인이 ‘왜소한 시를 넘어서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글을 실었다. **정혜숙 기자**

한국미술의 틀린 용어 바로잡기 꽃병→만병 ⑧

용·연꽃은 영화시킨 ‘물’ 상징

靈化

용 얼굴 화반 채색분석

지난번에 여러분은 처음으로 꽃병으로 알던 것이 꽃병이 아님을 알았을 것이다. 그리고 만병이란 용어도 처음으로 들었을 것이다. 그러면 왜 만병에서 갖가지 영기문이 솟아나왔을까? 그것을 이해하려면 용의 얼굴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풍남문에는 만병 화반과 용 화반이 번갈아 가며 배치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배치했을까. 개방적인 사찰의 누각이나 성(城)의 문루에는 반드시 그 원칙을 지키고 있다. 조형미술에서는 가능한 한 같은 조형을 반복하지 않는데 조형은 달라도 상징은 같아야 한다. 풍남문의 용 얼굴 화반을 채색분석해 보면 용의 입가에서 영기문이 뻗쳐나가는 광경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용의 입에서 ‘무엇이 나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우선, 용의 본질을 모르고 용의 입에서 여러 가지 ‘무엇’이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이다.

100년 동안 귀신의 정면 얼굴을 귀면(鬼面)이나 도깨비로 불러 왔으므로 그 입의 양쪽으로 발산하여 나오는 무엇을 전혀 보이지도 않았고 상징은 더 더욱 알 수 없었다. 귀면은 틀린 용어이지만 이미 우리 국민 대다수가 용의 얼굴임을 알고 있으니 따로 항목을 두어 설명하지 않겠다. 그렇게 잘못 알고 왔으니 입에서 나오는 것에는 명칭이 있을 리 없어서 내가 부여하지 않을 수 없다. 동양 최고의 신(神)을 귀신이나 도깨비라고 불렀으니 그 불경죄는 크고도 크다. 그것은 마치 여래를 귀신이나 도깨비로 부르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래가 바로 용이란 진실도 앞으로 자연히 풀려질 것인데, 용이나 여래를 귀신이나 도깨비로 부르면 화탕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 뻔하다.

일반적으로 용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면 귀신의 얼굴이라 하고, 용의 모습을 옆으로 길게 표현하면 용이라 인식한다. 그런데 용의 정면 얼굴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용을 정면으로 보기 때문에 몸이 보이지 않을 뿐이다. 그러므로 용의 얼굴을 정면으로만 표현한 것은 단축법(短縮法*, foreshortening)으로 용을 나타낸 것이다. 이 진실은 이 글을 쓰면서 나 자신도 처음 인식한 것이니 기쁘기 그지없다. 용의 얼굴만이 있을 수 없다. 몸이 없는 얼굴이 있을 수 있는가. 몸이 없이 인간의 얼굴을 정면으로만 표현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옛 예술가는 그 오해를 풀기 위해 간혹 용의 정면 얼굴 양쪽 바로 옆에 다리를 두는 경우가 있다. 풍남문인 경우에는 만병에서 나오는 영기문과 용의 입에서 나오는 것과 비슷하다. 다만 만병인 경우에는 갖가지 영기문을 잔뜩 솟아나올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으나, 용의 얼굴인 경우 양쪽 공간이 좁아 간단히 영기문을 표현하였는데 만병의 영기문의 모티브와 같은 것을 선택하여 나타내었다. 그런데 바로 용의 입에서 나오는 영기문과 만병에서 나오는 영기문에서 만물이 탄생하므로 영기화생(靈氣化生)이라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전주성 풍남문의 용 얼굴 화반을 채색분석해 보면, 지난 회에 소개한 만병에서 솟아오르는 영기문과 같은 것임을 알 수 있다.(그림①, 그림②) 이 화반들은 왜 만병이나 용의 얼굴(龍面)을 조각하여 배치하였을까? 외람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세계에서 인류역사상 조형언어를 처음으로 해독한 사람은 바로 필자이다. 그러므로 이 연재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조형의 구성원리와 상징구조를 처음으로 밝히는 것이다. 내가 한국인으로써 한국 뿐의 조형언어가 아니라, 더 나아가 세계의 보편적 조형언어를 최초로 풀었다는 것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고구려 무덤벽화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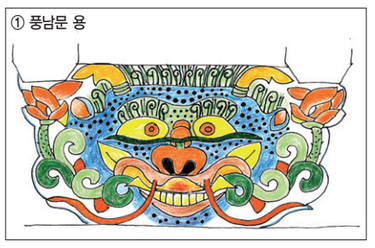
만병 안에는 물이 가득
물을 정수=영수=성수화

고려-조선의 불화에서 해독하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세계문화를 선도하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으므로 문화적 사대사상(事大思想)에서 비로소 헤어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런데 아직도 믿기 어렵다면 아주 쉬운 예를 들기로 한다. 해인사 홍제암(弘濟庵)에 가보면 표충사(表忠祠)중층(重層) 누각의 건축양식이 특이하다. 사명대사가 열반에 든 곳이라 사찰의 건축양식이 다른데서 보기 어렵다. 홍제암 건축의 화반을 보면 용의 입에서 양쪽으로 나오는 영기문이나, 만병의 중심에서 위로 뻗어 올라간 연꽃의 양쪽으로 뻗어 나간 영기문은 똑같다.(그림③, 그림④) 그러니 용과 연꽃은 같은 것이 되고, 전체적으로 용과 만병은 똑같은 것이 되어 만물의 근원이 된다. 이론적으로 정확하지 않은가. 더 이상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영기문이란 조형언어를 문자언어로만 설명할 수 없으므로 채색분석하면서 구성원리와 상징구조를 그림 옆에 기록하여 두도록 한다. 그래야 여러분도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조형언어는 조형언어 이외의 방법으로는 풀 수 없다.

보이지 않는 신령스러운 기운, 즉 영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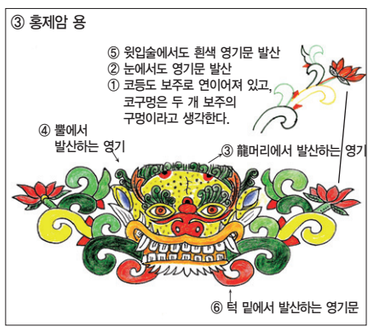
① 풍남문 용



② 풍남문 만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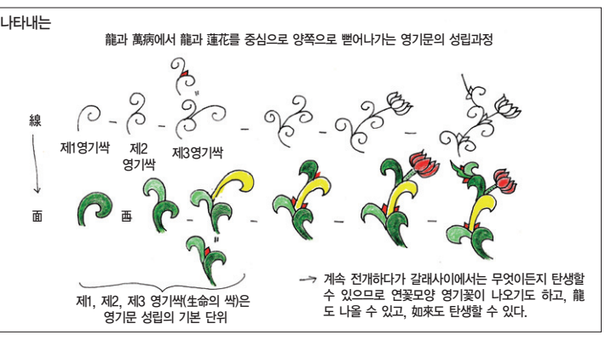
③ 홍제암 용



④ 홍제암 만병



⑤ 동양의 우주생성론을 나타내는 영기문의 성립과정



를 옛 예술가들은 갖가지로 조형적으로 표현하였는데, 혹은 추상적으로 혹은 구상적으로 표현하였으나, 현실에 존재하는 형태는 하나도 없다. 혹 현실에서 보는 형태를 그대로 표현했다고 해도 항상 영화(靈化)시켜 영기문으로 창조했다. 그러면 무수히 많은 영기문의 변주 가운데, 해인사 홍제암의 화반들을 채색분석하여 보면 모든 것이 분명해진다. 영기문은 반드시 조형의 구성원리가 조형언어문법에 따라 일관성을 띠며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상징구조를 밝혀낼 수 있다. 제1영기싹이란, 영기문을 이루는 최소 단위로 생명생성의 가장 근원적인 싹이지만 현실의 싹이 아니고 영기문으로 승화된 생명의 싹이다. 제1영기싹에서 제2영기싹이 성립하고 다시 제3영기싹이 성립하여 만물이 생성하는데, 이 모두를 영기문의 최소 단위로 묶어 조형소(造形素)(문자언어의 형태소에 대비하여 필자가 만든 용어)라 부르기로 한다.(그림⑤)

홍제암 표충사 누각에도 풍남문에서와 마찬가지로 화반은 용과 만병이 교대로 배치되어 있는데 홍제암 용과 너무 같아서 놀랍다. 용의 입에서 발산하는 영기문과 연꽃모양 영기꽃에서 발산하는 영기문은 똑같으므로, 용과 연꽃모양 영기꽃은 두 가지는 같다고 쉽게 증명할 수 있다. 그러면 왜 같을까? 용과 영화된 연꽃은 모두 물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물을 형상화한 것이 용이라는 조형이요, 물을 상징하는 것이 영화된 영기꽃이므로 두 가지에서 발산하는 영기문이 같은 것이다. 더구나 만병 안에는 물이 가득 차 있다. 물도 영화시켜 정수(淨水)=영수(靈水)=성수(聖水)로 만들어야 한다. 현실에서 보는 모든 사물은 영기문으로 영화시켜야 만물이 탄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축법 (foreshortening, 短縮法)이란 회화나 부조에서 특정한 물체나 인물의 공간적 깊이를 표현하는 기법이다. 예를 들어 누워 있는 인물을 발치에서 찍은 사진에서는 렌즈에 가장 가까운 발부분이 비정상적으로 커 보이고 멀리 있는 머리 부위는 비정상적으로 작아 보인다.



강우방 (일향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 · II
– 광명 만덕 · 자재 만현 –
운주사 불교서적 연속 12주 베스트셀러 1위
교보문고 종교서적 연속 7주 베스트셀러 1위
개정판


불과 이룬 대성자의
경천동지할 대사자후!!
우주 탄생과 영혼체의
비밀에 대한 초유의 선언!
삼매에서 친견한 부처님의 친설을 담아
윤회와 사후세계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춘천본사 T.033)243-1795, 243-1787 불서총판 운주사 T.02)3672-7181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리브로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무엇인가? 인간의 탄생 –
우주 삼라만상은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등
만고의 비밀을 파헤친
이 시대 최고의 철학 · 종교서!


붓다의 가르침에 따른
세계종교 비교
감수 · 자재 만현 큰스님
글 · 법장 김중섭
720쪽 | 값 25,000원
▶ 달라이 라마Dalai-Lama XIV의
우주기원 5대 의문에 대한 대답을 제시한
이 시대 인류가 읽어야할 양서!
※ 전국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깨끗한 물 만든다는 사실 기억해야



그 강에는 물고기가 산다
김익수 지음
다른세상 펴냄
1만7천원

"많은 기후학자들이 2050년에는 지구의 평균 온도가 2℃ 이상 올라갈 것이라 예측한다. 2℃의 차이는 전 지구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의 3분의1 이상이 멸종될 것이며, 아마존을 비롯한 대부분의 열대림과 산호초가 파괴된다. 무엇보다 강과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은 기온 상승의 결정적인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김익수 교수의 민물고기 이야기다. 저자는 17종의 신종 민물고기를 발표한 세계적인 어류학자로, 민물고기의 학명과 속명 중엔 그의 이름이 붙은 것이 있다.

"다양한 전설과 설화 속에서도 물고기들은 상서롭고 이로운 존재로 등장한다. 이 옛 이야기들에서 물고기는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이로움을 주는 존재로 나타나고 있다. 불교에서 목탁과 목어로 표현된 물고기는 늘 깨어 있으라는 각성의 의미를 가진다. 나무를 물고기 모양으로 깎아 두드리며,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도록 했던 것이 바로 목어이다. 후에 목어는 목탁으로 바뀌면서 물속 중생에 대한 계도의 의미에서 모든 중생에 대한 계도의 의미로 그 뜻이 확대되었다."

물고기는 어떤 동물일까. 물고기는 4억 5천만 년 전에 지구에 처음 출현했다. 이때부터 물고기들은 민물, 바닷물 등 여러 환경에 적응해 살면서 지금과 같이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해 왔다.



불교에서 목탁과 목어로 표현된 물고기는 늘 깨어 있으라는 각성의 의미. 불영사 목어



화사한 줄무늬가 인상적인 쉬리



큰 가시고기 수컷이 혼인색을 띠면 붉은 색이 나타난다.

2050년 강에서 물고기 사라질지도
물고기는 인류에게 꼭 필요한 자원
'깨끗한 물' 만큼 소중하게 생각해야
강 개발보다 강 속 물고기 살펴야

책은 고사와 문헌을 통해 물고기에 얽힌 이야기와 그 이야기 속에서 물고기가 인간과 어떤 관계이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일깨우며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대로 간다면 2050년의 강에는 물고기가 없다. 아이들은 물고기라는 생물을 오직 책과 박물관에서만 보게 될 것이며, 강과 바다는 생명이 없는 죽음의 물이 될 것이다." 물고기가 사라진다는 것은 수만 년 혹은 수백만 년 동안 우리 자연환경을 만들어 온 국보급 문화유산들이 사라지는 것이다. 책은 "물의 중요성은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물속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들에 대해서는 조금 먼 이야기로만 느낀다.

물과 물고기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비롯한 물속 생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물의 중요성만큼 강조되지는 않고 있다. 깨끗한 물을 지키자는 구호는 당연하게 여기면서,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한 물속 생물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책을 통해 물속의 물고기와 같은 여러 생물들이 물을 살리고 자연과 생명을 살린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

"감돌고기는 산란기가 되면 치열한 눈치작전을 펼친다. 꺽지가 산란장을 만들면 감돌고기들은 꺽지 몰래 그곳에 알을 낳는다. 꺽지는 그것도 모른 채 지극정성으로 알들을 돌본다." 책은 신비롭고 아름다운 물고기들의 이야기들과 사라져가는 우리 물고기들의 이야기, 물고기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해야 할 일 등을 총 일곱 개의 장에서 이야기 하고 있으며, '은빛으로 춤추는 쉬리', '수박향이 나는 은빛 은어', '춤의 명수 큰가시고기' 등 총 105종의 물고기들이 사진과 함께 소개되고 있다.

저자는 "우리는 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많은 생명들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며, 이상 기술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깨끗한 물에서 물고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비롯한 다양한 생물들이 깨끗한 물을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강을 살리는 길은 보기 좋게 강을 꾸미는 일이 아니라 물속 생물들의 서식처를 복원하고 보존하는 일인 것이라고 말한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1/8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만덕, 만현	현지궁현지사
2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정목	공감
3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4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5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6	법륜스님의 금강경 강의	법륜	정토
7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김원수	공경원
8	기도	법륜	정토출판
9	진리의 화원	덕현	법화
10	치유하는 불교읽기	서광	불광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나' 를 찾아가는 철학적 시간

나에 대하여

김유정 지음 | 자유정신사 펴냄 | 1만2천5백원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한 8가지 방법' 을 제시한다. 저자는 우리 삶의 개선을 위해 가장 우선적인 해결책으로서 나의 존재를 찾으라고 말한다. 책을 통해 변화되는 자신을 느끼고 변화된 시각으로 삶을 자유롭고 투명하게 살아가는 힘을 제시하려 했으며, 제시하는 80가지의 삶의 새로운 시각과 예지를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을 변화시키고자한 철학적 시도다.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을 자연스럽게 치유하는 저자의 새로운 시선이 눈에 뜨인다. 자유 정신, 고귀함, 제3의 탄생, 존재의 투명성을 주제로 80가지의 삶의 예지를 제시하며, 잃어버린 나를 찾는 비밀의 문으로 안내한다. 삶의 목적이 흔들리고 삶이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 고독감을 느낄 때, 상쾌한 소나무 향 실린 가을바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책은 우선 '나' 를 잃어버림에서 시작된다. 사흘 동안의 여정에서 변화된 저자의 모습을 통해 그리고 있다.

"붉게빛남은 조금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친구들이여! 모든 것이 극화되어버렸다. 우리, 인간적인 사유의 본질은 희극이나 비극적인 것과는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연극을보는 것과도 같이 우리 삶을 먼 시점에서 한번 보자. 우리들의 삶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 우리들은 자신의 본래 모습과는 다른, 무언가 꾸며지고 불편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

저자는 붉게빛남이라는 예지자와 사람들간의 대화를 제3자의 입장에서 기술해 나간다. 독자 자신이 관찰자가 되어 삶과 존재에 대해 조망하게 한다.

책은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나' 를 찾아가기 위한 대화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작은 대화의 분절마다 새로운 철학적 사유를 들이고, 다시 이어지는 대화는 잃버린 나를 찾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

독자는 책을 읽는 동안, 물음표 없는 물음과 마침표 없는 대답들 사이에서 철학과 만나게 된다.

"삶이 극화되면, 자신을 적절하게 치장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래도 그에게 위안이 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칭찬하고 뒤따를 것이라는 비극적 확신이다. 친구들이여! 극장 속 관중에 둘러싸인 연극 속에 자신을 가두지 말기를."

결국 저자는 붉게빛남에게 자신의 삶과 그 목표에 대해 한참을 설명했다. 그러나 결국은 자신의 삶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자신도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그에게 우리의 삶에 대하여, 정확히는 이와 같은 우리들의 삶의 혼돈의 원인에 대해 묻는다.

"내일을 기다리며. 잃어버린 '나' 는 어디 있는가. 진리는 어디에 숨어 있는가. 이 책 속에 있는가. 그는 이 책 속 어디에 감추어 두었는가. 오늘밤, 잠자리에서 오늘 이야기 한 자유 정신, 고귀함, 탄생, 투명함을 생각하며 '나' 를 찾아 나설 것이다. 가지지 않은 것들이 오히려 쓸모가 될 것인가. 문틈으로 들어오는 산바람에 섞인 소나무 향에 취해 잠 속으로 빠져든다. 내일은 나를 찾을 것이다."

박재완 기자

불심으로 이겨내는 산골의 병영생활

병사와 풍경소리

병사와풍경소리 | 보경 함현준 | 운주사 | 1만원



연예병사 신분으로 국내 탑 탤런트인 김태희 씨와의 연애로 화제에 오른 탑스타비. 복무규정 위반 등 규정 위반과 별개로 그에 대한 성토가 빗발치는 것은 수많은 이들이 군대에서 힘든 생활을 겪어야 했던 기억 때문일 것이다.

"군대 안갈 방법은 없을까? 누구는 신의 아들이고 나는… 어쩔 수 없이 가는 것 요령껏 생활하다 시간만 때우자…"

똑같은 군 생활이지만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디딤돌이 될 수 도 있고 걸림돌도 될 수 있음에도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매주 일요일 저녁 6시 BBS불교방송 '장병의 시간 - 아름다운 병영이야기' 에 소개된 사연들은 이런 장병들과 예비 장병들에게 또 다른 생각을 하게 한다.

"살벌하고 군기 엄한 최전방이지만 그 곳에도 따스한 정이 있습니다. 여자 친구에 대한 걱정도 있고, 병석에 누워계신 고향의 아버지 이야기에, 전역 후 진로고민까지 그들의 고민을 듣다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부족함을 아쉽게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현직 군종참모로 장병들과 함께 생활해 온 저자는 그들과 함께하며 직접 겪고 들은 이야기들을 소개한다. 저자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군 입대 시간이 결코 시간 낭비나 허송세월이 아니라고 역설한다.

"군복무는 고통과 번민의 시간이 아니라 정신적 성숙과 새로운 희망을 찾는 기회입니다."

저자는 신세대 장병들의 다양한 군 생활과 그 속에서 그들이 겪는 시련과 갈등, 그리고 역경과 난관을 극복하며 기쁨과 보람을 얻고 주체적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모습을 담았다. 현역 장병들이 힘든 생활 속에서 좀 더 성숙한 성인으로 자라나는 과정을 전한다.

저자의 이야기는 병사들에게만 그치지 않는다. 춘천 마라톤에서 아들의 전투모를 쓰고 풀코스를 완주한 어머니의 이야기, 군대 내 강남스타일 열기 등 가볍게 미소 짓게 만드는 이야기 등을 함께 전한다.

동국대와 동 대학원에서 불교학과 미술사학을 공부한 이후 1994년 군법사로 군문에 들어와 백두산부대, 열쇠부대, 특수전사령부 등에서 근무한 저자. 현재 3군단 군종참모와 호국 봉암사 주지법사를 맡으며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낀 군 포교에 대한 애정이 드러난다.



이 책은 현재 군복무 중인 젊은이들이 보람 있고 의미 있는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하나의 멘토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노덕현 기자**

저자 · 함현준



“지혜복은 무량겁 보물 되니 많이 지으라”



대나무 그늘
활산문도회 간행
올리브 그린 펴냄
비매품

“복을 빌고 짓는 일만 서두르지 말고, 지어놓은 복이나마 잃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어리석어 돈을 모아놓고 쓸줄 모르며, 복을 지어 놓고도 가질줄 모릅니다. 부처님이 원하신 복은 유루복이 아닌 무루복이요, 쇠함 없는 밝은 지혜복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루복은 무량겁의 보물이 되지만, 유루복은 삼생의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삼생의 원수’란 한 생은 복 짓느라 수고하고, 한 생은 복받느라 수고하며, 또 한생은 복이 다해 무너짐에 정신 못 차라니 원수라는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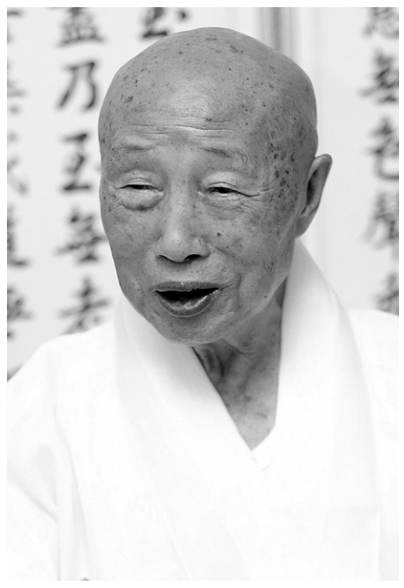
지난해 4월 15일 열반하신 활산당 성수 대종사의 어록집 〈대나무 그늘〉이 간행됐다. 성수 스님은 “다른 것 다 버리고 보물을 찾아라. 보물을 찾아서 알고 살면 잘 사는 것”이라며 “시방세계가 눈을 깜박이는 순간 다 보아도 모자라는데 무엇이 그리 바쁜가. 볼 때는 내 것이고 안 볼 때는 남의 것이다. 그러나 욕심낸다면 내 것이 아니다”고 후학들의 정진을 당부하고 우리 곁을 떠나셨다.

벌써 스님의 열반 1주기가 다가온다. 성수 스님 제자들이 1주기를 앞두고 스님의 생전 법어와 자필 원고, 사진첩 등 10권중에서 평소 강조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이 책은 출재가를 가리지 않고 눈 밝은 선지식이 될 불종자를 길러내는데 일평생 매진하신 스님의 발자취를 담았다. 주로 이 책에 들어 있는 법어들은 40여년 전부터 하셨던 대중설법과 상단법문을 모은 것이다. 그래서 때론 직설적이고 투박한 화법이 다소 강렬하거나 낯설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 꾸밈을 싫어하신 스님의 소박하고 올곧은 성품이 그대로 나타나 바로 옆에서 스님이 직접 들려주는 듯한 현장감이 전해진다.

성수 스님은 부산 내원사서 성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1948년 부산 범어사에서

성수 스님 열반 1주기 맞아 어록 출간
직설적 투박한 화법, 곧은 성품드러나
한국불교 이끌 인재불사에 평생 매진



동산 스님을 계사로 수행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1967년 조계사를 시작으로 범어사 해인사 고운사 마곡사 등 주요 사찰의 주지를 거쳐 10.27 법난 직후인 1981년 제18대 총무원장에 취임해 혼란스런 종단을 수습했다. 2004년 종단 최고 품계인 대종사(大宗師) 법계를 받았으며, 2005~2008년에는 종단 스님들에게 계를 주는 전계대화상을 역임했다.

생전에는 서울 강남구 세곡동 법수선원을 비롯해 경남 산청 해동선원, 함양 황대선원 3곳을 창건해 조실로 주석하기도 했다.

특히 스님은 조계사 어린이 법회를 비롯해 중고생 및 대학생, 심지어는 교도소 재소자 법회에 이르기까지 전법이 필요한 곳이면 한걸음에 달려가 부처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성수 스님은 지위고하와 장소의 귀천을 불문하고 전국의 법회 현장을 종횡무진 누비시다보니 시간을 아끼기 위해 속도위반(?)을 하신 적도 있다고 이 책에서 털어 놓으셨다.

법수선원 법우회 김상규 명예회장은 “차에만 오르면 빨리 갈 것을 재촉하는 이유를 묻자 스님은 다니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 아까우니 그 시간에 공부하기 좋은 자리를 찾기 위해서 라고 답했다”고 회고했다.

김 회장은 “스님은 10시간 차를 타도 피로를 느끼지 않았는데 아마도 사자 새끼를 키우기 위한 좋은 자리를 찾아 급하게 동분서주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책을 읽다보면 청년시절 구도여정을 통해 여러 스님들과의 인연도 엿볼 수 있다. 한번은 상주 갑장사서 금봉 스님과 성철 스님이 서로 생식하고 동고동락하기로 하고 수행 탁마하는데 성수 스님이 우연히 여기에 동참하게 됐다. 그런데 두 스님이 서로 의견이 엇갈려 ‘아상’을 보이자 금봉 스님 보고 “성철 스님 보따리 못풀면 스님도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쏘아 부쳤더니, 금봉 스님이 “성수가 그 말 참 잘했다. 내가 항상 성철 공부 병통을 일러주길 원했는데 마침 제발로 걸어왔으니 이 기회에 성철의 병을 못풀어 주면 성수 네가 천하에 다니면서 내 욕을 해라”고 호언장담을 했다. 하지만 끝내 성철 스님은 여전히 함구무언을 했고, 금봉 스님이 참회를 하려 하자, 성수 스님은 “이게 무슨 장난이오?”라며 할을 하면서 한마디 했다. “달 볼 마음이 없는데 손가락만 바쁘구려”라고. 성수 스님의 선기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이외에도 〈발심수행장〉과 〈자경문〉 같은 초심자들이 읽고 새겨야 할 경전들을 손수 해석한 경해편과 직접 지은 선시 등을 읽다보면 구도정진을 위해 불철주야로 동분서주한 스님의 수행자적 풍모도 느낄 수 있다.

활산문도회 대표 태응 스님(前 불교TV 회장)은 “은사 스님은 물질에는 욕심이 없었지만 사람 키우는 인재 불사에 만큼은 큰 욕심을 내셨다”면서 “열반에 드는 순간까지 ‘묵은 땅에서 새 사람이 나지 않는 법’이라며 한국불교를 이끌 새 인재를 길러내는데 온 힘을 쏟으셨다”고 설명했다. **김주일 기자**

“50경전 공부하면 불교 강의도 할 수 있어”

경전으로 시작하는 불교

지안 스님 지음 | 조계종출판사 펴냄
1만3천원



“경전 이름 50개만 알면 불교와 친해집니다. 경전 내용을 꿰뚫고 있는 일본 지식인들 7할은 강의가 가능하지만, 한국 불교 지식인들은 불교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봅니다. 이는 경전 내용을 얼만큼 많이 아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통도사 강주를 비롯해 조계종 교육원 역경위원장과 조계종 종립 승가대학원 원장을 역임한 후 현재는 조계종 고시위원장으로 승가교육에 매진중인 지안 스님(반야불교문화연구원 원장)이 50개 경전의 핵심 내용을 가려 뽑은 책을 펴냈다.

교외별전(教外別傳) 불립문자(不立文字)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 등등. 부처의 가르침을 말이나 글에서 찾지 말고 마음에서 찾으라는 뜻의 이 말은, 깨달음을 강조하는 선불교의 종지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은 달마 대사가 교리와 지식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당시 풍토를 꼬집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며, 오히려 풍성한 불교 교리와 방대한 경전의 실체를 방증하는 말이기도 하다. 불교에는 그만큼 고차원적인 교리와 수많은 경전이 있다. 종종 경전을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비유하는데 이것은 문자가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경전을 등한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저자는 말한다. 교리와 경전을 바탕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저자는 거듭 강조한다.

이 책의 저자 지안스님은 불교를 진정으로 자기 삶에 활용하고, 길잡이로 삼으려면 교리를 배우고 경전을 읽어야 한다고 경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불교에서는 삶의 옳고 그른 기준이 되는 계(戒), 마음을 맑고 고요하게 하는 정(定), 지혜를 말하는 혜(慧) 이렇게 세 가지 용어로 불교 전체를 설명한다. 이 용어들을 현대에서 통용하는 언어로 바꿔 얘기하자면 곧, 윤리, 신앙, 철학이 된다. 이렇게 세 가지가 조화된 종교가 바로 불교라고 저자는 말한다. 그렇기에 불교 공부는 마음뿐만 아니라 삶 전체



를 돌보게 하고, 개개인을 성숙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경전으로 시작하는 불교〉는 이렇게 현대인들에게 불교의 이해를 전반적으로 도와주기 위하여 엮은 책이다. 1부에서는 불교 교리의 핵심을 간결하면서도 알기 쉽게 설명하였고, 2부에서는 경전 오십 종을 선정하여 소개하고 있다. 가장 먼저 만들어진 초기경전을 대표하는 〈숫타니파타〉부터 대승경전 최고의 경전으로 평가받는 〈화엄경〉까지 50종의 경전을 골라 그 내용을 간략히 기술하여 불교 경전의 전반을

50경전 핵심 가려뽑아
경전통한 교리 이해 중요
불교는 윤리, 신앙, 철학 조화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팔만대장경이라고 말하듯 불교에는 너무나 많은 양의 경전이 있다. 경전 전체를 다 읽을 수 없다 하여도 이 책에서처럼 몇몇 경전 내용을 해설해 놓은 것을 읽는다면 경전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김주일 기자**

▲저자 지안 스님은?

1947년에 태어나 1970년 출가했다. 통도사에서 벽안 스님에게 불도의 길을 배운다. 통도사 강원 강주를 비롯해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고시위원 및 역경위원장을 역임했다. 35년간 교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힘쓰는 중이다. 현재는 대한불교조계종 종립 승가대학원장으로 승가 교육에 매진하고 있으며, 반야불교학당과 반야경전교실을 개설하여 많은 재가 불자를 위한 교학 교육에 관심이 많다.

저서로는 〈기신론 강의〉 〈신심명 강의〉 〈기초경전해설〉 〈보현행원품 강의〉 〈학의 다리는 길고 오리 다리는 짧다〉 〈처음처럼(초발심자경문)〉 등과 역서로는 〈대반니원경〉 〈대승기신론강해〉 〈왕오천축국전〉등이 있다.

티베트 밀교의 삶과 죽음 다룬 경전

티베트 사자의 서

파드마삼바바 지음 | 정성준 옮김 | 일빛 펴냄
2만8천원



모든 인간은 죽음과 직면한다. 사후의 의식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사람은 이르듯 늦든 간에 죽음을 맞이한다. 이 책은 우리들이 어떻게 생명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어떻게 죽음을 받아들이며, 임종을 맞이하는 자와 죽은 자 그리고 슬픈 마음으로 그 곁을 지키는 가족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다. 또한 스승과 그 조력자가 낭독, 낭송하는 방식을 통하여 임종하는 자가 평화롭게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하고, 육체가 분해되는 공포스러움 경계들을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 책은 티베트 밀교의 삶과 죽음을 다룬 경전으로 저승으로의 여행에 대한 지침서라 할 수 있다. 이 책이 우리들에게 펼쳐보이는 것은 죽음과 재탄생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광경이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대로라면 여행자는 이 과정에 있을 때는 단지 육체가 존재하지 않는 의식체일 뿐이다.

하지만 경전 내용은 평소 불교에 관심 많았다고 할지라도 일반 독자들이 읽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일단 죽음에 대한 막연함이 있고, 불교의 생사관도 난해함이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바로 그런 이들을 위해서 만들어 졌다.

이 책 도해 〈티베트 사자의 서〉는 ‘중음문 교구도대법’이라는 오래된 경전의 정수가 충분히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정성들여 수백장의 삽화와 도표를 설계 제작했고, 동시에 본문 다음에 생동감 있고, 구체적 마음에 대해 보충 설명을 곁들였다. 또한 쉬운 번역은 독자가 죽음을 통해 거치게 되는 모든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김주일 기자**

과학과 의학 접목 통한 호흡법 소개

참호흡 선법

수신오도 지음 | 팬덤북스 펴냄 | 1만5천원



저자가 그동안 수련을 하면서 직접 체험한 사실들을 현대 과학과 의학적 접목을 통해 체계를 이루어 구성한 호흡법에 관한 책이다. 호흡도 과학적이어야 하는 이유, 왜 활성산소가 만병의 근원인지, 호흡보다 먼저 해야 할 이완의 중요성, 장치기만으로 부처가 되는 비결, 자연호흡은 어떻게 하는지, 들숨과 날숨에도 각각 다른 호흡법이 필요한 이유 등 참된 호흡을 위한 수행 비결을 의학적으로 정리해 놓았다. 과거의 미사여구가 아닌 올바른 방법으로 호흡하여 신체와 정신의 건강 모두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많은 수행 지도자들이 지구촌 곳곳서 각기 자신들이 터득한 다양한 호흡법으로 수련과 수행 지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며 용맹 수련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러 수행의 고비를 넘어서지 못해 병들거나,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수행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그나마 자신의 호흡법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바로잡으려 할 때는 이미 호흡 근육들이 매우 심각하게 굳어진 상태인 경우가 많다는게 저자의 설명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사례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이 책은 바로 그런 사례를 일깨워주며 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졌다.

저자는 “자신이 하는 수행법이 올바른지, 아니면 잘못되었는지 그 이유도 모르며 주위에서 보고 들은 풍월 등으로 오로지 스스로 정하고 만족하기 위한 수행법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현실을 안타까워 했다.

김주일 기자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좋은 소리는
스피커와 마이크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파워드믹스 앰프


스테레오 앰프


• 高音質 무선마이크

전국 법당의 앰프 신규설치 및 교체 전문,
사용중인 앰프, 스프커의 소리보완 클리닉!!


• 무선 마이크
◆ 고성능 헤드셋 (귀걸이)마이크

• 법당전용 스피커


◆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일반 마이크
V-6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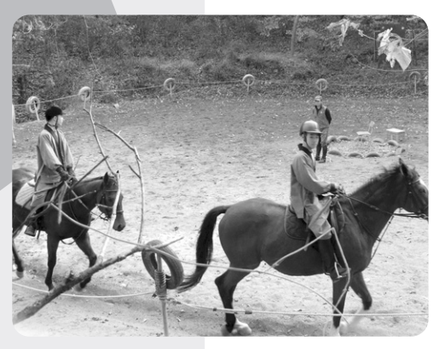

• 고성능 탁상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청소년 대안교육의 새지평 중, 고등과정
선무도 화랑사관학교 신입생 모집안내

21세기 신화랑 운동의 발원지이며 청소년 인성교육의 20년 전통인 **골굴사** 부설 (**선무도화랑사관학교**) 에서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본교는 검정고시를 대비한 교과학습 지도와 다양한 전통문화 실습과 선무도, 승마수련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인성을 치유하는 대안학교입니다. (경상북도 교육청 수탁교육지정 시설)

▶ 모집대상 및 기간
• 중등과정 20명, 고등과정 10명
• 2013년 1월 ~ 2월 중 수시로 개별상담



▷ **학교특성** 선무도를 비롯한 전통무예 수련과 승마교육
• 템플스테이 외국인 연인원 7천명과 원어민 영어교사가 함께생활
• 선무도 승단후 (약 1년) 공연단 참가시 장학금 지급
• 선무도 사범, 법사로 육성 · 국내,외 지원으로 파견
• 동진출가 발심자나 결손가정 자녀는 학비전액 무료

▷ 전 화 : 070-8870-0246, 054)775-1689
홈페이지 : www.golgusa.com,
cafe: daum.net/sunmudoschool (선무도화랑사관학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 하십시오.

대한불교 조계종 선무도 총본산 골굴사
재단법인 선무도대금강문, 선무도화랑사관학교

민족불교 성지 선학원을 되짚다

연재를 시작하며

선학원史에서 한국불교 정체성 찾자


현재 안국동에 자리한 선학원 전경. 민족불교의 성지이자 왜색 불교 정화의 산실인 선학원의 역사는 근대 한국불교사의 질곡을 그대로 담고 있다.

한국근대불교사는 시기적으로는 현대불교와 연결되어 있고, 그 성격이나 양상이 전시대인 조선시대와는 다르다. 이 시대는 수준 높은 사상이 더욱 발전한 것도 아니고, 불교계의 풍토가 세련되게 변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조선왕조 전시기 동안 철저하게 폐허가 된 지경에서 다시 일어나보니 세상은 뒤바뀌어 있었다. 산중에만 머물러 있던 시선이 도성 출입 금지가 해제되면서 저자거리로 옮겨져야 했다. 또한 다들 변화와 개혁을 목 놓아 부르니 자의든 타의든 체질개선과 굳어있는 근육을 쓰지 않으면 안될 시기가 온 것이다. 실로 경황없고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절이 시작된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불교계는 유난히 근대불교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사실 학계에서는 그동안 고대와 고려의 불교사상이나 신앙, 그리고 인물 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졌고, 근대불교사는 연구 범주 속에도 끼워주지 않았다. 당시만 해도 연구자 수나 연구 성과가 손꼽을 정도에 불과했다. 아마도 그 시절을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어른과 흔적들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과거라고 하기에는 오늘과 아주 가까운 시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또한 그 시기가 전통불교와 단절되었고, 식민지시기를 지나오면서 드러난 불편한 진실들이 여전히 우리가 사는 오늘에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던 것이 일제의 침략과 함께 항일불교·호국불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교계 각 문중의 선양사업 차원에서 진행된 이른바 불교계의 항일운동과 불교정화운동 연구는 지금도 인기 있는 주제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눈길을 끄는 글이 있다.

"우리 근대사나 현대사의 경우 그것을 보는 눈이 엄격해야하며, 미화(美化)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식민사학(植民史學)의 독소를 제거하는 문제, 역사의 주체성을 확립하려는 노력이 결코 역사를 미화하는 데로 나아가서는 안 되겠기 때문이다."

한국근대사 연구의 권위자 강만길 선생이 그의 저작 〈한국근대사〉(1984) 서문에 쓴 글이다. 조작된 역사를 경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교계 한 언론사에 칼럼을 연재했던 최병헌 서울대 명예교수의 지적은 주목할 만하다. 그는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정화운동에 대한 연구는 당시의 주도적인 인물들에 대한 개인적인 차원의 선양사업으로서의 성격을 띠는 것이 대부분이며, 비판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도 대단히 피상적이고 지엽적인 문제를 지적하는데 그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와 평가에 도달하기에는 아직 거리가 멀다"라고 평가했다.

결국 사실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이해가 부족하고, 그 결과 한국근대불교사를 바라보는 사관(史觀)이니 의식(意識)이라고 하는 것이 천박할 수밖에 없다. 2012년 가을, 불교전문평론지 〈불교평론〉에 실린 글이 특정 문중 어른의 덕화(德化)와 명성에 흠집을 냈다고 해서 자체 폐간되었다가 올해 봄부터 속간되는 해프닝이 그 단적인 예이다. 왜 후손들은 그 어른의 그릇으로 사실이나 구설수까지도 담아낼 수 없는 걸까. 우리가 진정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뿐인가. 요즈음 벌어지고 있는 승풍실추나 절 뺏기와 같은 일련의 상황이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일인가. 어떤 학자는 "오늘날 고질화된 불교계의 세속화와 파벌싸움의 문제는 식민지불교의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것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새겨들을 대목이다. 당분간 불교계나 불교학계의 글쓰기와 발표는 A가 준 설계도를 보고 B가 생산을 대신해 주는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이 지속될 것이다. 일개 범부(凡夫)가 함부로 입을 놀릴 소관사항 밖의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의 흔적을 따라 후손들도 걷는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우리의 근현대불교사 연구나 인식의 수준을 염두해 두고 선학원(禪學院)의 역사를 연재하고자 한다. 선학원의 흔적을 따라 근현대사를 이해하고 싶다. 눈이 밝다면 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내가 선 자리를 살피고 앞날을 준비할 수 있는 화두 하나라도 건질 수 있기를 바란다.

근대불교사, 인물 중심 조명
정확한 이해 · 왜곡 우려
올바른 역사 정립의 기회로

선학원의 역사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교계의 큰 어른들과 나이 많은 거사와 보살조차도 일부분이나마 선학원의 과거를 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단편적인 논문 한두 편, 개론서의 한 절(節)에 소개된 내용이 전부다. 최근에 와서는 선학원의 발자취를 엿볼 수 있는 흔한 기획기사조차도 찾아보기 힘들다. 소위 1921년 설립되어 굴절(屈折)의 물길을 돌리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흔적들을 생각한다면 품삯을 쳐주는데 너무 인색한 것 아닌가. 그래도 만해와 용성, 만공이 잡풀을 뽑고 자갈을 골라 터전을 일구었고, 청담(靑潭)·동산(東山)·효봉(曉峰)·향곡(香谷)이 대들보를 세우고, 기와를 얹고, 단청을 해서 지금도 굳건히 자리 잡고 있는데 말이다.

연재는 1차적으로 승려의 도성출입금지를 해제했던 1895년부터 1945년 해방이전까지로 상정하였다. 내용은 선학원의 직접적인 설립배경이기도 했던 임제종운동(臨濟宗運動)이나 한국불교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실제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던 선우공제회(禪友共濟會) 조직, 그리고 선풍진작과 대중화에 진력했던 여러 장면들을 소개할 것이다. 특히 1934년 재단법인 가와 곧이어 진행된 '조선불교선종(朝鮮佛教禪宗)'은 당시 불교계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 시절 왜 선학원이 종단까지 창종(創宗)했을까. 그리고 1941년 선학원은 유교법회(遺教法會)를 개최했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2008년 4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조계종 중흥의 당간, 41년 유교법회를 조명하는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발제자의 한 사람이었던 목정배 교수는 이 유교법회에 대해 "범망경(梵網經)을 씨줄로 하고, 유교경(遺教經)을 날줄로 하면서 자비참을 원융하게 하였으니 이 유교법회는 조계종이 지향할 바를 교시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밖에 유교법회에서는 조계종지(曹溪宗旨)에 대한 설법도 있어서 명실공이 조계종의 이념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다. 때문에 2008년 한불교조계종에서는 이 연찬회를 통해 "종단의 수행종풍 쇄신과 정체성 회복의 계기로 삼는다"고 하였다.

연재를 통해 부질없이 더 나은 앞날을 향해 내딛는 발목을 잡기보다는 올바른 불교사 이해와 역사의식을 정립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다. 왜냐고? 잊혀진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되기 때문이다. 너나 할 것 없이 지금의 한국불교를 염려한다면 걱정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우리는 앞선 세대보다 더 풍요로워져야 하고 후손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오경후(한국불교선리연구원 선임연구원)

오경후 연구원은…조선시대 불교사를 전공했고, 동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논문으로는 〈선학원운동의 정신사적 기초〉, 〈일제하 『선원(禪苑)』지(誌)의 창간과 그 성격〉, 〈경허·만공의 법맥과 한국불교에 미친 영향〉 등이 있다.

"객관적 근대불교사 조명 계기로"

인터뷰–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



선학원은 일본불교의 영향으로 한국의 승가가 급속도로 세속화되는 것을 개탄해 남전, 도봉, 석두, 만공, 용성 스님 등이 중심이 돼 창설된 선종의 중앙기관이다. 그만큼 근현대불교사에 있어서 선학원이 가지는 위치는 분명하다.

1월 9일 만난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도 선학원을 '민족불교의 성지'이자 '정화운동의 산실'로 정의했다. 본지와 함께 연재하는 '선학원사' 역시 객관적 입장에서 근현대사를 조명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은 한국불교를 병합함으로서 자신들의 통치 이데올로기를 구축하려 했습니다. 한국불교는 급속히 왜색화가 진행됐고, 이를 막기위해 남전, 석두, 만공, 용성 스님 등 민족불교의 선구자들이 나서서 선학원은 1921년 설립했습니다. 이 과정이 없었다면 현대 한국불교는 만들어질 수 없었습니다. 현재의 한국불교를 알기 위해서는 선학원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선학원은 민족불교의 성지
기념관 건립으로 100주년 준비
"종단과 마찰, 2001년 합의정신 지키면서 해결점 찾아야"

현재 불교계는 문중 스님들의 선양 사업을 통해 근현대불교사를 조명하고 있는 상황. 법진 스님은 위인을 통해 당시 역사를 재조명하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지만, 그 한계는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역사를 기술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불교계가 근대사를 조명하는 방식은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역사의 단편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현대 선지식에 대한 선양 연구들이 문중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객관성 면에 있어서 이는 일편 위험하기도 합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역사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당시 시대상을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법진 스님은 올해 설립 93주년을 기점으로 걸어온 100년을 되짚고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사업을 준비 중이다.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것이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 조성사업이다. 국고 29억 원이 지원되는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은 지상 2층, 지하 4층 규모로 올해 착공에 들어가 2015년 완공될 예정이다.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은 선학원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이곳을 독립운동과 민족불교 중흥에 힘쓴 선사들의 사상을 선양하는 구심점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선원의 발상지였던 만큼 시민들이 참선할 수 있는 수련장과 지역 특색에 맞춰 외국인들이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채울 것입니다."

선학원이 발전하기 위해서 해결돼야 할 것 중 하나가 종단과의 마찰. 스님은 2001년 합의정신을 종단에서 지켜준다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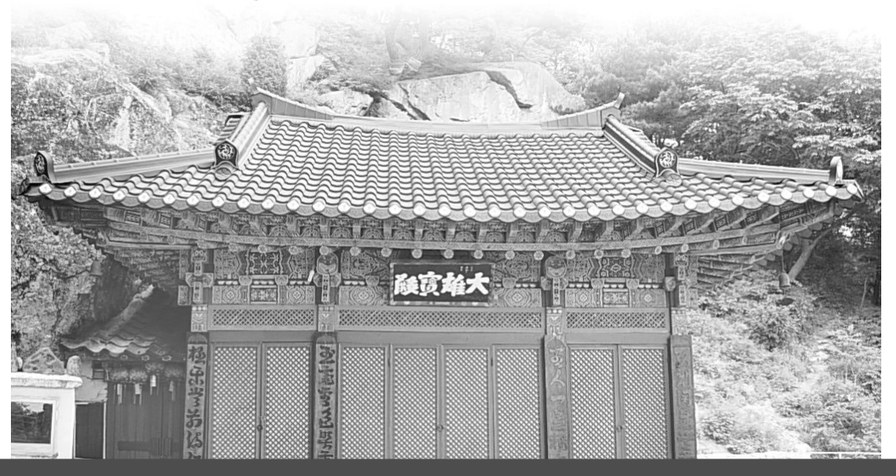
"종단과의 마찰은 2001년 합의를 통해 선학원은 정관에 '조계종 종지종풍을 봉대한다'고 명시했고, 총무원은 총무원법 제24조에 '선학원의 인사권, 재산권, 운영관리권 등 재단법인으로서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선학원은 종도로서 종단에 의무와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종단 역시 가장 오래된 재단법인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진 스님은 선학원의 역사를 통해 근현대 선지식들의 사상을 배우고 계승?발전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당시 스님들은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수행 정진하셨습니다. 그 분들이 꿈꿨던 한국불교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대불교의 태동지였던 선학원의 역사를 통해 스님들의 유지를 옷깃을 여미고 되새기길 바랍니다." 신중일 기자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법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주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그것을 가지지 말라.
남을 시켜 가지거나 남이 가지는 것을 묵인하지도 말라.
주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져서는 안 된다.

– 숫타니파타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무속 선, 앉은거리 장단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동양철학 특별할인 판매
동양철학 - 서화당인생풀이 Ver 2.2
(인장성명학과 네오헬스 CD 제공)
동양철학CD, 만세력 2045년까지 구성
생년, 월, 일, 시만 알면 *인생풀이가 척척*
인생총운, 가족운세, 애정운, 건강운 등
총44만원을 *50%할인 후* -> 22만원
www.사주천하.com
익일특급배송 010-8888-4684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발명특허 출원내용 : 뒤 틀인 척추, 골반, 고관절 각도, 다리길이 불균형을 바르게 하는 운동기법 디스크, 협착증, 좌골신경통, 척추분리증, 척추전방위 증, 척추측만증, OX다리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운동법
배울 분, 받을 분 한번 오시면 해결가능
혜경선사 011-829-7582

정선문 미래연구소
사 작 택
주 명 일
사주명리학 수강생 모집
실전 강의
02)733-8889
017-402-7848
종로 견지동 조계사 바로 옆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49재회향·바라무·
점안식·범음범패
이인연으로성불의씨앗되십시오
011-850-0176

찬찬히 잘 읽어 보세요
오래된 위장병. 대장질병. 심장병. 당뇨병. 간질. 화병. 우울증.무기력. 부부문제. 정신질환. 피가 탁해서 생긴 신장병. 신내림 병. 임신이 어려워 고생하는 불임증. 강박증. 성기능 장애 불면증. 비만. 강박장애. 암투병 등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고생하는 환자
문제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하고, 연락하세요.
Medicine Buddha MindOne (마인드원)
032) 434-5990
010-8730-5690

백발 백중 정확한 비방술을 출판하였다
*일반서점에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 정가 25만원
농협 :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전통사찰 등록
문화재 등록
법인 종교법인 등록
법인 아닌 법인 등록
서 류 대 행
010-9476-9001
성산개발

동영상 역학 강의
용신, 실전사주. 고급 - 일진내정법
(명반법, 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성명학, 저렴한 수강료.
단기간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양 도 공 고
(법원 등기된 종무법인임)
법인불교단체 양도
법인종단 양도
불교법인 양도
011-412-8040 법광

전수생 모집
사주 명리학, 천고비전 육임학
기초에서 실기까지
육임은 백법까지
성심껏 지도해 드립니다.
031)642-6011
011-729-6011

쉼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염불CD판매
〈 우리말 예불1집 〉
한문예불을 우리말로 변역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선용스님의 우리말 예불
〈정토선음악염불〉
극락세계 염불방법을 통해 쉽게 염불삼매를
성취하는 선용스님의 수행용 염불
구입처 : 전국불교용품점
010-8108-0715

천상을 여는
지장대사 원력으로
조상천도, 빙의, 퇴마, 천병, 신병,
우울증, 틱장애, 병명없이 아픈 분,
가정우환, 엑소시스트도
치료못한 환자도 치료상담
금 강 사
010-2418-622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사명산 상운사)
033)482-3382
010-3764-3661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김해)
011-9514-372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나이제한 없음)
055)835-8656

출가자 및 초보부전
(비구니) 모집
학력과 나이에 관계없음
3년 공부 후
소임부여
010-6429-5076

가족처럼 지낼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성남, 70세 미만)
011-212-9110

황토, 상황氣, 참숯,
참솔잎, 뜸, 훈증, 좌훈
침대 누워서 허리뜸,
배에는 전단뜸, 앉아서 좌훈뜸,
편안히 무릎뜸, 상황버섯
48시간 달인 물로 황토 반죽
직접 수작업 허리 관절 혈액순환
여성질환 잃어버린 건강 꼭 찾아
장수하세요.
www.wellgang.co.kr
운봉사 011-573-4438

기문둔갑 강의
역학을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기문비법을 전수합니다.
사업자, 성패에 대해서,
학업생 학과 선택, 남여결혼문제,
부부문제 등 세밀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스님직접 강의. 수시모집
011-544-9777
051)721-6444

심 와 기 도
• 神과 疏通하는 기도가 심와기도며
이 기도법을 원하는 스님에게 일러드립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무형문화재 범음범패
(사) 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제9호 영산재 연수원(바라 작법) 3개월 과정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제9호 천수바라 오공양작법무 사물 불교의식
특전 1) 본교(졸업)우수한 자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
2) 부산시 문화재행사 출전 실무
3) 다게 • 운심게 작법반
사찰행사 전문 (점안대법회, 산신, 수륙대재, 천도(49)재)
부전스님 사찰 연결드림 총무스님 010-5511-7000

사 주 운 세
10초 내 맞추면 수강 (여자) 신청하시고
상담은 통장 입금 상담
교재 : 사주첩경(이석영)통달
010-5498-5067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불교노인병원
한의사
구합니다
(경남, 60세 이상)
010-5579-0404

스님이 없는 절을
구합니다
대작불사를 통하여
절을 발전 시킬 수 있는
60대 비구승입니다
010-8934-2848

청정한 **남해바다**에서 잡아올린
싱싱한 **멸치**와 **멸치액젓(맑은 액젓)**을
자신있게 불자님과 모든 분들께 직거래로
소개하여 드립니다.
055)867-2259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 이제는 신(神)의 세계를 바로 알고
자신의 죽음 이후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 사람 몸 안에 사람을 지배하고
아프게 하는 존재인 악신이 있다!!!
• 신 내림을 통해 악한 신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성신의 도로 싸워야 한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영가찾는 법 교육생 모집
영가천도는 반드시 본인과 관련된 영가를 천도해야 영험이 있다.
간단하고 쉽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그 동안 공개되지 않은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간단한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백 암 역 리 원 동작구청(우리은행) 옆
02)597-1101 / 011-9150-2284

실천 사주명리학 (10기)

▶ 개 강 일 : (기초부터 고급, 교육강사 과정)	월요반(정규반)	1월21일	오후2시~5시(3시간)	6개월
	화요반(중급반)	1월22일	오후1시~5시(4시간)	6개월
	목요반(연구반)	1월24일	오후1시~4시(3시간)	6개월

▶ 교육과목 : 사주명리, 성명, 육효, 관상, 진로적성, 궁합 (5과목)
▶ 명리민간자격증 수여
약력 – (현)세종대학교 CEO 특강강사 (현)동방대학원 문화교육원 명리교수
(현)글로벌사이버대학교 동양학과 겸임교수 (현)케이블TV 3개방송 출연중
* 기초원리부터 용신, 운세분석부터 실전까지 * 월요반은 기초과정으로 스님 및 불자반으로 8名 모집
* 중급, 연구반은 현재 강의중입니다.
▶ 위 치 : (지하철2호선 대림역 6번출구 70M) (지하철7호선 대림역 10번출구 70M)
▶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 714-4 태연빌딩 302호
동 양 전 통 문 화 원 02)834-1113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동대문, 감포, 영천, 미국, 중국, 호주, 이스라엘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목, 금요일 오전반, 화요일 저녁반
– 실참(기도,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 힘" 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 문의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 초급 4개월 : 중급 4개월 : 연구 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 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 7시 ~ 10시. 수시접수
3) 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 9 ~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 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 원 역 리 학 회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지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점성(占)비법 전수자 모집
1. 吉凶 영가찾기 2. 이름작명 (한자速成학습법) 3. 풍수
* 스님 특별강좌 * 타로교육
◆ 역 술 상 담 법 ◆
• 기 초 반 : 4주 완성 (선착순 8명) / 교재비 포함 5만원.
• 고 급 반 : 24주 완성
• 점성영업법 : 6주 완성 (선착순 3명)
• 특전 : 사단법인 한국역술협회, 사단법인 한국역리학회 상담자격증 취득됩니다.
전화 02)977-1389 (수시상담 가능)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제행 지음 / 북갤러리출판
값 13,000원 (전국서점판매)
전화 주문 031-842-8023. 011-772-4606
농협 552-01-047918(대한불교비룡정사)
내용 (1)마음의 치유 (2)빙의퇴마 (3)무당 (4)사주팔자



사라져 가는 팔공산 범음 범패
염불소리를 살리고자 (동현)소승이
교육원을 개원하고
제 1기 수강생 을 모집합니다

교육현황

초급 의식 염불과정		
일반	6개월	(주1회 2시간)
속성	3개월	(주1회 3시간)

▷과 목 : 초발심자경문, 사미율법, 바루공양법, 요령목탁사용법, 천수경, 반야심경, 새벽도량석염불, 팔공산소리새벽종성염불, 각단예불, 각축원편, 사시마지불공, 관음시식

중급 의식 염불과정		
일반	12개월	(주1회 2시간)
속성	6개월	(주1회 3시간)

▷과 목 : 시련, 삼신이운, 104위신중작법, 시다림, 49재천도의식, 다비편, 방생편, 각종고사, 각점안식염불, 구병시식, 생전예수재의문

특수 작법	
6개월 과정	(주1회 2시간)
* 작법은 (일반) : 속성이 따로 없음	

▷ 복청게, 사다라니바라, 천수바라, 사물타법 도량게(나비춤), 오공양작법, 화청

모집인원
• 35명 (선착순) ※ 개강 이후 1기 졸업시까지는 중간에 수강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모집기간
2012년 12월 1일 – 2013년 2월 28일까지 마감
※ 신청하실분은 본원에 직접 나오셔서 접수하시고 교육일정 시간표를 꼭 받아가십시요.
그리고 수강신청 접수하시고자 본원에 오실때는 필히 명함판 사진 2매를 가지고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수강일
2013년 1월 22일 오후 3시 (초급반 일반부)
※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교육원 원장스님과 직접 상담하여 주십시요.
▶ 교육원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2동 871-1번지
TEL 053)781-4200, 851-2666 / H·P 010-3424-0108
대구불교의식 범음 범패 교육원 원장 동현 합장

제2기 영남 불교의식 (범음·범패) 학인모집
본 금수사 불교의식교육원에서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 정
초급과정 : 도량석, 쇳송, 천수경, 상단불공, 각단예불, 불공의식
중급과정 : 사물 (광쇠, 법고, 태징, 목탁) 요잡, 시다림
고급과정 : 49재, 천도재, 점안식, 예수재
작법무 (중급과정 부터)
1. 천수바라
2. 오공양 작법, 요잡바라
3. 화의재바라
개 강 일 시
2013년 3월 7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2시 ~ 오후6시까지)
■ 주소 : 부산 동구 초량6동 843 금수사
■ 전화 : 051)467-3316 종무소 010-8526-3356
행자 모집합니다
대한불교원효종 대본산 금수사 영남범음범패

퇴행성 류마티스 디스크환자 희소식
관 절 염 · 통 증
관절 연골을 보충해주는 한약
통증은 쉽게 호전되고 잠도 편하게자
7일 ~ 10일이면 호전되는 느낌있어!!!!!
◆한의원 문의상담 02)598-9833

희소식
당 뇨 · 고 혈 압
당뇨 천연 인슐린 개발
5일 ~ 7일이면 호전되는 느낌!!!
여주(모모르디카)하나로 해결!!! 보험보다 낫다.
방송에서도 식물 인슐린 여주(모모르디카)
화제집중 !!!
식물 인슐린 이름값 하네 혈당 강화!!!
항암효과 원기회복 관상식물의 반란!!!
◆주문상담문의 02)875-8858
맥스생명공학 ※대리점 모집중

불자정보 26 | 923호 | 전면광고

2013년 1월 16일 수요일 / 불기 2557년

▷ 마 감 : 매주 월 ~ 수요일.
▷ 문 의 : 02)2004-8215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0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 찰 안 내

삼보도량은 스님들의 도량입니다.

- 위치 : 서울
- 법당 : 40
- 요사 : 60
- 대지 : 230평
- 산신각 기도처
- 가액 : 20억

- 위치 : 금산
- 법당 : 20평
- 요사 : 40층
- 총 : 560평
- 가액 : 1억8천
- 최고 보시면OK

- 위치 : 서울
- 인법당 : 25평
- 가액 : 1억 3천
- 전세. 월세 급구 연락 주세요.

※서울 경기 근교 포교당 전세암자 급히 구합니다.
법률, 세무, 무료, 상담. 매매, 전, 월세, 경매, 분양 등 상담환영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찾고있는분 많음, 매물 접수 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기타건물 : 60평
- 부지 : 740평
- 가액 : 10억

- 위치 : 강원도
- 법당 : 15평
- 요사 : 35평
- 부지 : 640평
- 가액 : 3억5천

- 위치 : 경기도
- 법당 : 24(목)
- 요사 : 45평
- 부지 : 2,000평
- 가액 : 30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바다 전망 좋은 절

- 총 대지: 약 2.700
- 법당 약 50평, 요사채 40평, 산신각
- 바다전망 최고, 사찰 뒤편 산
- 텃밭 300평
- 가액: 6억 8천만원

대구 금오산 자락

- 총부지 : 870평
- 법당 30평, 요사채 및 산신각
- 계곡 물 철철, 산세 최고
- 양도가액: 3억 5천만원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다음카페 : 이박사 공인중개사>

♣ 사찰안내는 사찰부동산전문 이박사에게 ♣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 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 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010-8980-4789 (사찰전문 공인중개사)

사 찰 터 안 내

- 위치: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 평수: 150평 법당1층,2층 총 60평
- 요사채 3동 : 27평, 창고: 10평
- 전망 전국 최고 명당으로 바닷가를 접하고 있음
- 불교학당이나 종단 강원 적합
- 진주-창원-통영 30분거리
- 가액: 9억7천만원(절충가능)

010-8948-7948

사 찰 안 내

- 위치: 용인시 묘현면 에버랜드 근처
- 대지 100평, 건물 45평, 화장실2, 방3
- 법당, 삼존불, 산신각, 소불, 지장 등 16나한, 주차장완비
- 몸만 오시면 됨, 즉시법회 가능
- 보증금 20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5000만원 (절충가능)

010-4732-4849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연제구 연산1동 4층건물 중 3층 전체
- 평수 : 100평, 방4개, 화장실, 남 · 여 스님용 공양실 등
- 아미타4자, 관음, 지장, 순금개금, 삼존불 및 법당, 신중탱화, 산신각
- 에어컨80평, 용등3대, 온풍기80평 외 시설완비
- 보증금 4천만원 / 월 85만원
- 시설비 8,000만원

010-4719-5388

사 찰 터 안 내

- 위치: 경북 경주시 산내면
- 소재지에서 5분거리
- 문복산 자락 명당절터, 총 4만평 (임야 3만8천8백, 농지1천2백평)
- 개울물이 철철흐르는 산허리 명당절터
- 전기배설시설은 마을에서 200미터 거리임
- 가액:2억2천만원

010-4856-2626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청학2동
- 평수 : 57평
- 완벽한 시설로써 비구니 스님 적격임
- 1층 : 요사채(도시가스 시설)
- 2층 : 법당과 스님방
- 가액: 2억9천만원(수정부분)

010-3732-523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내IC10분거리
- 대지 : 500평. 등기필
- 주변 산세좋음
- 대웅전, 요사채, 황토방
- 몸만 오시면 됨
- 가액 : 1억 8천만원

054)337-3687 017-517-368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기도 신도시 내
- 6층 건물 중 3층
- 실평수 118평(분양 190평)
- 가액 : 4억(융자 1억 포함) 시설비 3천만원(조절가능)

010-6328-3955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불심이 깊은 대구(송현동) (남대구 IC에서 10분거리. 주차장완비)
- 2층 중 2층 70평, 옥상 70평 사용가
- 법당, 방 3개, 화장실 3칸, 공양간
- 보증금 1천만원 / 월 60만원 시설비 2800만원(절충가)
- 큰병원 및 시장, 서부정류장 (유동인구 많습니다)

010-3672-8424 010-9431-4959

도심속의 사찰

- 위치 : 부산시 청학2동
- 평수 : 57평
- 완벽한 시설로써 비구니 스님 적격임
- 1층 : 요사채(도시가스 시설)
- 2층 : 법당과 스님방
- 가액: 2억9천만원(수정부분)

010-3732-523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안산시 월피동
- 평수 : 26평
- 법당완벽한 시설로써 즉시 법회 가능
- 전세 500만원 월세 40만원
- 시설비 상담후 결정 (꼭 하실분만 연락 바람)

010-3662-552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구미시 원평2동
- 중앙시장 입구
- 평수 20평정도
- 방2, 법당
- 전세 1천만원, 월 40만원

010-2418-6222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 안지랑 우체국 뒤
- 단독 : 43평
- 법당, 방3, 주방, 창고, 다용도실
- 보증금 300만원, 월 25만원
- 모든 시설 양호, 몸만 오실 분
- 시설비 1200만원
- 계약즉시,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1-458-295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원리
- 24평
- 양도가액 4천 5백만원
- 포교원 했던 자리

010-6880-8803

주 택 안 내

- 위치: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영영포리
- 대지 약 200평. 건평 약 40평
- 목재 황토 주택 뒤는 산
- 앞 수백리 전망 혐오시설 없음
- 양도가액 : 1억 3,000만원

010-6460-1316

포교원안내

- 위치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문수산 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3층, 옥상이용 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시설 일체 완벽

011-217-9299

포교원안내

- 위치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문수산 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3층, 옥상이용 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시설 일체 완벽

011-217-9299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
- 대지 : 149평, 법당 20평 단청
- 요사 1동 : 17평 • 요사 1동 7평
- 소불 : 500불, 인등 400개
- 가액: 5억 7천만원
- 아파트 밀집단지 보이는곳
- 야산아래 있는 전망좋은 위치

011-811-5466

도심포교원안내

- 위치: 경주시 중앙시장입구
- 4층건물 3층
- 80평. 시설완벽
- 고속, 시외버스터미널 도보 5분
- 소임으로 급양도
- 1000-35-1300

010-5214-7872

사 찰 안 내

- 위치: 울산, 2층건물
- 2층: 법당 50평, 방5개 욕실
- 1층 : 공양간 20평, 방1
- 실외화장실 2
- 시설 집기일체 완벽
-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 가능
-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없음

010-2068-2190

사 찰 안 내

- 위치: 울산 경관 좋은 사찰
- 대지 약 1천평
- 대웅전 60평
- 요사채, 지장전, 나한전, 삼성각
- 깨끗한 계곡물과 암반이
- 아주 멋진 곳임
- 가액: 8억 8천만원

010-5346-4138

토 굴 안 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 한옥 독채 대지 약 80평(월세)
- 방 6개, 화장실 2개, 욕실, 거실, 법당
- 아파트식 올 수리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3500만원 (절충가능)

010-4056-567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 3층 약 50평
- 모든 시설 완비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2천만원

051)506-403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경기도 광명시
- 광명사거리지하철역 도보 10분거리
- 아파트, 상가, 밀집, 20년운영중
- 평수-4층 중 3층, 50평 옥상사용가능
- 전세 6500만원
- 즉시법회 가능, 법당외 방3개
- 시설 후불탱화, 불상, 종, 인등 답사후 결정

010-3221-0476

포 교 원 안 내

- 부산시 영도구 남항동 2가 큰대로변
- 3층중 2층 38평
- 보증금 500만원 월세 35만원
- 시설비 답사후 결정 (2000만원)
- 불, 아미타, 약사, 관음, 지장
- 후불탱화, 신중, 칠성, 산신, 관음, 지장

010-4880-1533

포 교 원 안 내

- 대구 도청옆 대구역 5분거리
- 평수: 법당 50평, 요사채 40평(방4개)
- 보증금 1500만원, 월 120
- 불교대학 최적지
- A/V 有. 냉난방시설, 시설비 답사후 절충
- 아미타삼존불, 지장, 삼성, 신중
- 사천왕탱화, 500인등, 영가단
- 깨끗하고 편리한 시설 갖춘 법당

010-9598-9117

농 가 주 택

경북 영양 농가 보일러

불 때는 건물 18평 대지

77평 등기 확실차

진입 농촌에 살고 싶은 분

가액: 1,900만원 반값 급양도

010-8899-8899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토굴
- 부지 : 220평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
- 양도 : 5천만원

- 위치 : 세종시
- 부지 : 1000평
- 법당 : 35평
- 요사 : 50평
- 양도 : 6억8천

※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02)723-4082
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김천 혁신도시
- 김천역 및 구미 KTX 10분거리
- 건평 1,2층 100평 대웅전 단청
- 대지 국유지 포함 사용면적 약 500평
- 총 2억 7천만원 (은행융자 1억포함) 절충
- 법당, 사물 집기일체, 몸만 오시면

010-8725-3196

사 찰 안 내

- 氣가 있는 월출산 명당터
- 부지 1600평
- 건물 : 법당, 요사채, 문간채
- 산신각, 화장실, 공양간, 창고, 주차장
- 가액: 3억 (답사후 조정가능)
- 주지스님 지병으로 급 안내

010-3640-149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대구시 남구
- 시장입구, 버스정류장앞
- 유동인구 많음. 건물 뒤 공용주차장
- 평수 : 2층 70평
- 찜질방 • 3층 70평
- 법당. 관음전, 산신각(단청되어 있음)
- 보증금 1500만원 월 120만원
- 시설비 현지답사 후 절충가능

010-4001-3949

포교원이 꼭 있어야 할 곳

- 위치: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헌화리
- 평수 : 108평, 3층 상가 건물 3층
- 아파트 및 상가가 밀집되어있고 초, 중, 고 학교가 주변에 다 있음. 포교하기가 정말 좋습니다.
- 주변이 아주 조용하고 깨끗합니다
- 아파트 만여세대와 인구 7만이 거주하고 있음
- 포교원이 꼭 있어야 할 곳입니다

011-9254-2353 원호

수련원이 꼭 있어야 할 곳

- 위치: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 평수 : 106평, 3층 상가건물 3층
- 21세기 서해안시대 (안중)삼성반도체
- 국제자유무역도시 평택 국제 항구도시 국가포승공단 배후 도시입니다. 요지임
- 심신이 엄청나게 피곤하여 각종질병 성인병 스트레스 고질병이 난무하는 이때 몸과 마음이 꼭 필요로 하는 수련원으로 활용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011-9254-2353 원호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송파구청 건너편
- 4층 전용면적 45평
- 교통편리, 주차가능
- 올수리, 즉시 입주가능
- 보증금 : 5,000만원(조정가능)
- 관리비포함 월 150만원

010-3772-7514

포교원(급)안내

- 경북 칠곡군 양목면 복성리
- 역전 앞 위치 상권 좋음
- 평수 : 45평 2층
- 보증금 +시설비 2천만원 월 10만원, 방사 2
- 몸만 오시면 됨, 즉시법회 가능
- 급한 사정으로 급양도함

054)972-4442 010-6325-2089

성지관음회에서 직접 스님들께만 알려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신도확보 및 불사에
큰 도움이 될 수있는 새롭고 유익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스님들만 필요하신 방법이며,
스님들만 사찰에서 시행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도들에게 바로 적용하시면 큰 반응을
얻을 수 있으며……
이 시대에 맞는 새롭고 대단히 좋은 방법입니다.

전화 주십시요.
안내책자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 768-8414~6
FAX 031) 768-8413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남을 원망하는 마음으로는 그 누구에게도 원망을 풀지 못한다. 다만 원망을 떠남으로써만 원망을 풀 수 있다.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다. – 법구경 –

“새로운 삶 원하면 묻지 말고 찾아가 보세요”

연중기획- 마음산업 ‘신행 · 포교 地圖’ 바꾼다

〈1〉 문경 정토수련원

당신의 마음은 지금 행복한가? 혹여나 오늘이 아니 지금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은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부모 때문에 아내 혹은 남편 때문에 또 자식 때문에 직장 상사 때문이라고 탓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끊임없이 외부에 휘둘리고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상대를 공격하고 미워하고 비난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다. 나의 마음은 이렇게 옹졸하기만 한 것일까? 나의 마음은 이렇게 바늘 하나 꽂을 틈 없이 빡빡하기만 한 것일까?

이제 우리 모두 그 마음으로의 여행을 찾아 떠나보자.

문경시 가은읍 원북리에 자리한 정토수련원의 프로그램은 마음공부를 통해 자신을 치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원망 분노화 짜증은 결국 나의 업식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게 되며 나를 이해하게 되고 상대를 이해하게 되며 나아가서 더불어 사는 삶을 일깨우게 된다. 한 해 4천 여 명이 다녀가는 정토수련원에서는 깨달음의 장을 비롯해 나눔의 장, 백일출가, 명상수련, 일체의 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깨달음의 장=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에 대해 자신있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나라고 생각했던 내가 정말 나일까? 4박 5일로 진행되는 깨달음의 장의 프로그램은 여기서부터 시작 한다. 스스로를 돌아보며 오늘 나의 괴로움이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추적해 간다. 그렇게 무한히 나의 문제를 돌이키다 보면 결국 나를 따라다니며 괴롭히던 그 문제는 내가 쌓아온 과거가 만든 것이었음을 알게 된다.

1992년부터 시작한 깨달음의 장은 정토수련원의 최고 인기 프로그램으로 두세달치 프로그램이 미리 예약될 만큼 인기가 좋다. 지금까지 다녀간 인원만 1만 8천 여 명.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의 장을 통해 인생의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하고 불자를 거듭나기도 한다. 유명인들도 많이 다녀갔다. 최근 시골의사 박경철 씨를 비롯해 배우 배종옥 한지민 고두심 박진희, 김여진 방송인 김제동, 조혜련 가수 김동률 방송작가 노희경 씨 등이 다녀갈 만큼 많은 이들에게 알려진 유명 프로그램이다.

깨달음의 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절대로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다. 그래서 한번 다녀간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권할 때는 ‘새로운 삶을 살고 싶냐? 그렇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한번 깨달음의 장을 가봐라’ 이렇게 권한다.

정토수련원 정영미 팀장은 “깨달음의 장은 연기법의 원리를 쉽게 깨닫게 해 더불어 사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전했다.

명상수련=매달 2회씩 열리고 있는 명상수련은 최소의 식사와 최소의 수면만을 취하며 호흡만으로 오롯이 나를 바라보는 4박 5일 프로그램이다. 명상 수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여름과 겨울 안거 개념으로 9박 10일 동안 진행되는 법륜 스님이 직접 지도하는 명상수련이 있으며, 나머지 대부분은 스님의 영상 법문으로 진행된다. 법륜

깨달음의 장 1만 8천 명 다녀가
고두심·박경철 씨 등 유명 인사도
명상수련 호흡관찰, 마음조복
백일출가 ‘깨어있는 삶’ 지도

스님이 직접 지도하는 여름 겨울 수련은 공지가 뜨자마자 신청마감이 될 정도로 그 열기가 뜨겁다.

새벽명상-예불-아침공양-오전 명상-점심공양-오후 명상-저녁공양-저녁 명상 및 법문-취침으로 짜여진 일정을 이어나간다. 모든 과정은 일체 묵언이며 생활하면서 불편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메모를 해 생활질문지함에 넣을 수 있다. 또 명상하면서 드는 의문 또한 명상질문지함에 넣으면 지도법사님이 붉은 펜으로 답변을 해준다. 향수 화장품 등의 개인 소지품은 일체 쓸 수 없으며 수련원에서 제공하는 죽염과 바세린 로션 비누로만 세안을 해야한다.

명상은 반가부좌를 틀고 오직 코끝에 호흡만을 관찰하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오롯이 내가 살아 있음을 느끼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과정이다. 죽비를 치면 정해진 40분 동안 몸을 움직일 수 없으며 오롯이 호흡에만 집중한다.

정토회 자재 법사는 “명상 목적은 욕망이 시키는 대로 몸과 마음의 업식에 끌려가고 있는 이 습관을 바꾸는데 있다. 그런데 몸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적응을 하면서 바꿀 수 있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망상으로 가득찬 생각과 마음이다. 하지만 호흡을 통해 몸을 먼저 조복 받고 몸의 저항을 뛰어넘다보면 생각과 마음도 조복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업식에 끄달리는 몸과 마음에서 진정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한다.





정토회는 깨달음의 장, 백일출가, 명상수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왼쪽은 시골의사 박경철 씨가 참여한 956차 깨달음의 장. 사진오른쪽은 백일출가자들의 강좌 현장

명상수련에 참가한 드라마작가 전혜진(40) 씨는 “명상을 경험해보니 내 욕구대로 바쁘게 살던 시간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다. 보통 사람들이 괴로울 때 술을 찾거나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떤다. 하지만 이들은 일시적인 해결밖에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전했다.

백일출가=“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24시간을 함께 살며 내 업식을 봤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만나도 어떤 일에 부딪혀도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잣대로 나를 보기 보다는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도 알게 됐습니다”백일출가 17기생 서경덕 씨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있었어요. 하지만 진정 깨어 있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백일출가 15기생 장미 씨

정토회 백일출가는 만 배 입재로 시작해 나눔의 장-일체의장-불교사상강좌-NGO 실무실습 등의 과정을 거치며 연 2회 출가자를 받는다. 백일출가자는 조석예불-발우공양-소임-일수행-참회정진-불교사상강좌-마음나누기 등으로 하루 일과를 보내며 스스로 자신감을 찾고 진정한 자유로운 삶 주인되는 삶을 찾아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정토수련원 프로그램은 많은 이들이 자신의 업식을 보게 되고 이를 고쳐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한다. 스스로 마음의 행복을 찾고 싶다면 기다리지 말고 행복을 찾아 떠나보자.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과정을 통해 내 행복의 길을 찾아 나선다면 한겨울의 혹한도 두렵지 않을 것이다. (054)571-6031 **정혜숙 기자**

서구의 마음수행 현장

〈1〉 존 카밧진 박사의 MBSR 프로그램 ㊦

720여 의료기관 · 세계 500대 기업에서 활용



의료계, 건강교육 프로그램 평가 활용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Time)〉은 2003년 ‘명상’이란 제목의 커버스토리에서 “1000만 명의 미국인이 명상을 즐기고 있으며, 이것은 10년 사이에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런 추세는 2000년대 후반에도 계속돼 현재 미국의 명상 인구는 150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명상 유행에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음챙김 명상이다.

존 카밧진 (Jon Kabat-Zinn) 박사〈사진〉의 MBSR(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 마음챙김에 근거한 스트레스 완화)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의료 명상 프로그램이다. **본지 913·915호보도**

MBSR은 불교에서 기원한 마음챙김(Mindfulness)과 서양의학을 접목한 것으로 미국 전역과 전 세계 720여 의료기관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포춘〉(Fortune) 선정 매출 상위 세계 100대 기업과 500대 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

카밧진 박사는 마음챙김을 “의도적 · 비판단적으로 현재의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MBSR은 8회기의 구조화된 프로그램으로 주1회(약 2시간 30분 정도)의 실습과 교육, 매일 집에서 45분 정도의 과제 실행으로 8주 동안 진행된다. 공식연습에서는 바디스캔, 마음챙김 요가, 정좌 명상, 걷기 명상 등을 실시하고, 비공식 연습에서는 불쾌한 일 알아차리기, 호흡 알아차림, 일상생활 알아차리기 등을 진행한다.

MBSR은 공황장애, 우울증, 수면장애, 섭식장애, 중독 및 암 등 각종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 신체 · 정신적 증상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됐으며 최근에는 자살, 정신분열증에 이르기 까지 그 임상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의료인의 입장에서도 안심하고 협력 활용할 수 있는 보완적 건강교육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인체에 고통을 주지 않고 비침습적(非侵襲的)인 교육과정으로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환자들이 쉽게 배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의료계에 널리 받아들여진 계기가 됐다.

미국 메사추세츠 의과대학에는 카밧진 박사가 설립한 미국 MBSR 본부인 CFM(Center for Mindfulness)이 있다. 이곳에서 운영하는 MBSR에 참여한 환자만 약 2만여 명 정도다.

이곳의 과정을 마친 졸업생들은 “MBSR은 내 삶을 구했다. 혼돈과 혼란가운데 평온을 찾을 수 있게 했다(Amy)”, “내가 충동적으로 행동해왔다는 것을 알게됐다. 이제는 그것을 멈출 수 있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Wesley)” 등의 후기를 남겼다.

이밖에 CFM은 33년 동안 의학 · 심리 · 교육 · 명상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 단계로 구성된 MBSR 지도자 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2년 4월까지 본부에서 정식 인증한 공인 지도자는 전 세계 40여 명 정도가 된다. 국내에서는 CFM 인증 지도자인 안희영 박사가 한국 MBSR 연구소를 중심으로 MBSR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다.

숭산 스님으로부터 영감 얻어

존 카밧진은 1944년 미국 뉴욕에서 생물학자인 앨빈 카밧(Elvin A. Kabat)과 캐나다 예술 학생 샐리 레닉(Sally Lennick) 사이에서 태어났다. 1960년대부터 명상, 요가 등을 수련한 카밧진 박사는 1971년 MIT에서 노벨상 수상자인 샐바도르루리아 박사 문하에서 분자생물학 박사를 받았다.



MBSR은 미국에서 신체 · 정신적 증상을 완화하는 대중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

이후 보스턴 근교의 브랜다이스 대학에서 분자생물학을 가르치던 그는 숭산 스님을 만난 후 프로비던스 선원의 지부인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 근교의 캠브리지 선원에서 책임지도자로 있었다. 그러다 1974 · 1975년 간호사 출신의 아내 마일라 카밧진(Myla Kabat-Zinn)과 아들 윌(Will)을 데리고 프로비던스 선원에서 집중 수행을 지도하기 위해 캘리포니아로 갔다.

당시 숭산 스님이 강조한 ‘모르는 마음(Don't know)’은 미국인들에게 신선하면서도 훌륭한 가르침이었다.

카밧진 박사는 “숭산 스님이 ‘모르는 마음’이라고 부른 열린 자각(알아차림)을 갖고 단순히 현존하기가 매우 어려웠다”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스님의 가르침은 12세기 한국의 지눌 스님의 본래면목에 대한 가르침에서 온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실 일과 요가 강습 등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면서 숭산 스님으로부터 받은 영감을 통해 세상에 지혜와 자비가 늘고 고통이 줄어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창조적인 일을 모색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MBSR프로그램이다. 카밧진 박사는 1979년 매사추세츠 대학 의료 센터에서 MBSR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MBSR은 의료, 심리학, 비즈니스, 교육, 법조계 등을 포함해 수많은 사람과 기관에 소개하는 방편이 됐다.

카밧진 박사는 “내가 대담하게 결실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은 대부분 ‘마음으로 분별하지 말고 직접 나아갈’ 것을 강조한 숭산 스님의 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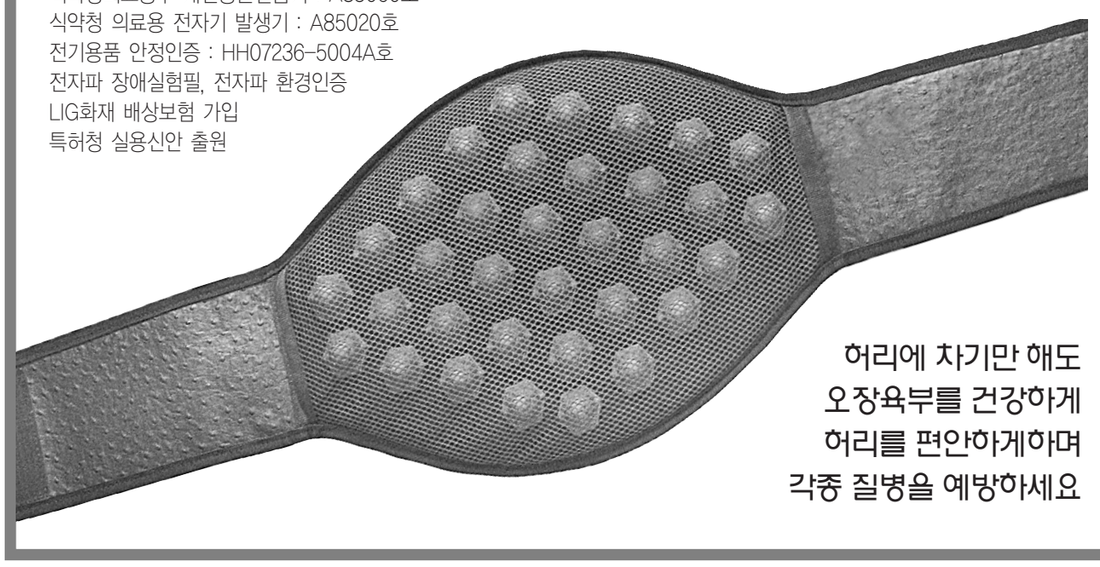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복덕이 박하면 선행을 해도 병을 못 물리친다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3)

세 가지 작은 재앙

겁초(劫初) 때 사람의 수명은 4만 살이었는데, 그 뒤에 차츰 줄어들어 백 살에서 그치고, 점차로 다시 열 살에까지 이르며, 여인은 태어난 지 다섯 달이면 모두 시집을 간다. 인간의 수명이 열 살일 때에 세 가지 소겁(小劫)이 있는데, 첫째가 도병(刀兵)겁이고, 둘째가 기아(飢餓)겁이며, 셋째가 질병(疾病)겁이다.

도병겁이라 함은, 사람들이 대부분 삼독에 물들어 열 가지 악한 법만을 행하고, 만일 하나의 선행이라도 하는 이가 있다면 그를 사람들이 함께 비웃고 어리석다 여기면서 업신여긴다. 서로가 오로지 악행만을 가르치므로 착한 사람은 하나도 없게 된다. 오곡은 나지 않고 좋은 맛은 사라지며, 비단과 겁패는 저절로 없어지기 때문에 돌피와 쭉정이만 먹고 풀을 엮어 옷으로 삼아야 한다. 칠보는 사라지고 모래와 돌은 가득 차며, 땅에는 가시나무가 나서 가지와 잎사귀는 크건 작건 모두가 칼이 되어서 아름드리나무를 모두 베어 거꾸러뜨린다. 땅은 도랑이 다하면서 물결이 솟구쳐 언덕을 쓰러뜨리고, 강과 하천은 점점 넓어지고 대지는 점점 줄어든다.

도병겁이 한 번 일어나는 데에 7일이 걸리는데, 손에 잡히는 풀, 나무, 기와, 돌 등 모든 것이 칼로 변해서 서로가 빼앗아 서로 죽이려고만 하는 것이 마치 사냥꾼이 사슴 떼를 우연히 만난 것과 같다. 그중에 지혜로운 이가 있으면 멀리 심산유곡 인적이 없는 곳에 가 숨어서 열매를 먹고 물을 마시며 10년을 마친다.(〈장아함경〉에는 "스스로 7일 동안 있다가 다시 인간에 나온다."고 적고 있다.) 서로가 서로를 모두 죽이게 되면 지옥에 나는데, 이를 도병겁이라 한다.

기아겁이라 함은 사람들이 대부분 법답지 못하고 어리석으며 삿된 소견을 지닌 것이다. 재물을 지켜 보시하지 않으며, 흉수와 가뭄으로 절기가 맞지 않아 밭에 씨를 뿌려도 수확하지 못하고, 쌀도 점점 소진되어 낟알조차 귀하므로 쭉정이와 겨를 쓸어서 고르고, 거리의 낙엽으로 스스로 연명한다. 쭉정이와 잎이 다하면 땅 밑을 파서 초목의 뿌리를 먹으며, 그것조차도 먹을 수 없는 이는 먼저 죽는데, 죽은 사람을 다시 함께 먹으며, 그것조차 다 먹으면 도살장이나 무덤까지 가서 해골들을 주워 죽을 끓여 마시며 살아간다. 그러다 굶주려 다 죽게 되면 아귀 가운데 나는데, 이를 기아겁이라 한다.

질병겁이라 함은, 사람들이 모두가 바른 소견으로 열 가지 선행을 수행하지만 질병이 많아서 별다른 계책조차 없고 의사와 약품도 거의 없다. 비록 많은 선행을 하나 병을 물리치지 못하는 것은 복덕이 박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병이 들면 바로 죽는다.

신들이 내려와 때리고 치며 그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다가 그의 정신이 죽으면 가지고 간다. 사람들이 목숨을 마치면 모두 천상에 나는데 이를 질병겁이라 한다.

만일 하루 낮 하룻밤만이라도 살생을 하지 않는 계율을 지키면 도병겁 동안에는 나지 않으며, 만일 한 알의 하리륵(인도 고원지역에서 자라는 교목으로, 달걀 모양의 과일 열매를 말한다) 열매라도 승가에 보시하면 질병겁 동안에는 나지 않으며, 만일 한 술의 밥이라도 승가에 보시하면 기아겁 동안에는 나지 않는다. 이 염부제에는 악한 겁이 서로 일어나거니와 다른 장소에는 좀 적다.

염부제(불교의 우주관에 나오는 세계의 명칭으로, 불전에서는 인간세계의 전체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에서 도병겁이 일어나면 다른 장소에서는 거듭 성만 낼 뿐이고, 염부제에서 질병겁이 일어나면 다른 장소에서는 기력이 쇠약해질 뿐이며, 염부제에서 기아겁이 일어나면 다른 장소 에는 목마르고 배가 고플 뿐이다. (〈장아함경〉 22권, 〈삼소겁경초〉, 〈잡아비담심론. 14권에 나온다.)

구성=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삽화 · 강병호

겁(劫)은

겁파(劫波)라고도 한다. 세계가 성립되어 존속하고 파괴되어 공무(空無)가 되는 하나하나의 시기를 말하며, 측정할 수 없는 시간, 즉 몇 억만 년이나 되는 극대한 시간의 한계를 가리킨다. 그 길이를 〈잡아함경(雜阿含經)〉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방과 상하로 1유순(由旬:약 15 km)이나 되는 철성(鐵城) 안에 겨자씨를 가득 채우고 100년마다 겨자씨 한 알씩을 꺼낸다. 이렇게 겨자씨 전부를 다 꺼내어도 겁은 끝나지 않는다.

또, 사방이 1유순이나 되는 큰 반석(盤石)을 100년마다 한 번씩 흰 천으로 닦는다. 그렇게 해서 그 돌이 다 마멸되어도 겁은 끝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대비바사론(大毘婆娑論)〉 〈대지도론(大智度論)〉 등에도 같은 내용의 비유가 있다. 앞의 것을 겨자겁(芥子劫), 뒤의 것을 반석겁(盤石劫)이라고 한다.

겁을 소(小) · 중(中) · 대(大)로 나누어 이 세계의 성(成) · 주(住) · 괴(壞) · 공(空)이 진행되는 기간을 일대겁(一大劫)이라고 하기도 한다. 부처님이 발심해서 성불할 때까지 수행에 소요된 시간을 삼아승기겁(三阿僧祇劫), 백대겁(百大劫)이라고 한다. 아승기는 무수(無數)라고 옮기며 헤아릴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③



거사 · 청년들이 절에 많이 왔으면

통도사 화엄법회에 가던 날

통도사 화엄산림에 갔었다. 한 달 내내 법문이 있었지만, 좀처럼 시간이 맞지 않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는데, 일요일엔 시식이 있다고 해서 가까운 도반들과 함께 시간을 내어 갔다.

새벽, 설법전. 일찍 간다고 갔는데 우리보다도 더 일찍 온 사람들도 많았다. 조금 지나자 설법전은 발디딜 틈이 없게 됐다. 우리는 그래도 겨우 한자리 차지하고 앉았지만 계속 밀고 들어오는 인파로 자리 잡기는 쉽지 않았다.

내가 앉은 바로 뒷자리와 옆자리에는 많은 보살들 틈에 거사님들이 몇 분이 앉았다. 여자 불자가 대부분인 법회에서 보기 드문 광경이다. 나는 왠지 보살들 틈에 앉아있는 거사님들이 무척 반가웠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방석도 없이 찬 바닥에 앉은 그들에게 내 방석을 내밀고 준비해 간 따끈한 차도 한잔씩 건넸다.

초면인 나의 친절에 조금 어색해 하는 것 같아 "귀 하신 분들이라서 드리는 겁니다."고 했더니 거사님들이 쑥스러워하며 빙긋이 웃었다. 복잡한 분위기가 어수선하기도 하고 어색해진 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거사님들에게 사탕도 하나 씩 건넸다.

나는 어쩌다 법회에서 거사님들을 보면 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 반갑다. 그래서 뭐든 잘해주고 싶어진다. 일요일에 교회 가는 남자들은 아무렇지 않게 성경책을 끼고 잘들 가는데, 법회 있는 날 절에는 대부분 여자 신도들과 할머니들뿐이다. 그만큼 절에서는 거사님들 보기가 쉽지 않다.

나의 작은 친절로 인해 그들이 절과 친해져서 절에 오는 일이 즐겁고 기꺼운 나들이길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그러다보면 한 명의 거사님이 두 명이 되고 세 명이 되고 열 명이 되고, 더 많은 거사님들이 절을 찾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전 시식 의식을 마치고 점심공양 후 법문을 듣기 위해 다시 법당에 모였다. 마찬가지로 벌써 법당은 가득하다. 이번엔 내 곁에 대학생인 듯한 아들이 엄마랑 나란히 앉아 있었다. 정말 보기 좋았다. 방석을 얻지 못했는지 그들도 또 맨 바닥에 앉아 있었다. 나는 내 방석을 학생에게 주고, 나는 가지고 간 쇼올을 깔고 앉았다.

그래도 얼마나 고마운 일이인지. 거사님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젊은 청년들로 이 법당이 가득 채워진다면 우리 불교는 참으로 든든할 텐데, 생각했다. 이 청년도 처음엔 스마트폰만 가지고 놀더니 나의 관심을 의식했는지 금방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법문을 듣기 시작했다. 나의 작은 마음 씀이 그에게 친절로 받아들여지고, 그 친절로 그가 불교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오늘 들은 법문보다 더 큰 보람일 것으로 생각됐다.

지금 아이들과 청년에게 부처님 말씀의 위대함과 소중함을 잘 전해서 그들이 불교와 친해지고, 우리 불교의 기둥으로 자라주길 마라는 마음이다.

훌륭한 법문이 등불이 되어 많은 사람들의 귀의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관세음보살 명호를 부르며 돌아왔다.

무상신심 미묘법 백천만겁 난조우 (無上信心 微妙法 百千萬劫 難遭遇)
아금문견 득 수지 원해여래 진실의 (我今聞見 得受持 願解如來 眞實意)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발원 드리옵니다.

내가 부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세상에 태어나 부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불교를 만났다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인연이며 최고의 값진 삶이었다고 나는 말할 수 있다.

지난 세월 내 삶을 돌아보니 내가 부처님을 믿고 수행하지 않았더라면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을 것 같다. 나는 시골 큰 연못이 있는 동네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자라면서 여름엔 큰 도랑에서 오빠와 물고기를 잡고 놀았다. 그런 고기들을 동네 사람들은 반찬으로 해먹었다. 또 오빠를 따라 논두렁 옆 개울에서 미꾸라지들도 잡았다. 그것도 아주 재미있게 많이 잡은 날은 기분도 좋았다. 엄마는 잡아온 미꾸라지로 추어탕을 끓이셨고 식구들은 맛있게 먹었다.

들에 나가 버들강아지 풀을 뜯어 메뚜기들을 잡아 목에 주렁주렁 꿰어 들고 왔고, 다음날 어머니는 도시락 반찬으로 싸주셨다. 그러면서도 한 번도 미안해하거나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나를 비롯해 시골의 아이들은 주로 그렇게 자랐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부터는 어느 것도 함부로 할 수가 없었다. 모든 생명에 대한 존귀함을 알았고, 스스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란 것을 알았다. 죽은 목숨마저도 마음 아파하게 되었다. 늦게나마 참회의 마음으로 물들어 있는 나를 생각하면 부처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다.

이제 황혼의 나이에 지난 날 철없이 지은 죄 모두 모아 마른 풀을 불태우듯 다 소멸시키고 싶은 심정으로 참회의 기도를 올린다. 지금까지 불법을 몰랐다면 태산 같은 죄를 안고 인생을 회향할 뻔했다.

그 뿐일까. 용렬한 성질을 함부로 사용하고 뒤돌아 볼 줄 모른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었을까. 지금 나는 굳이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인연을 소중히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니 적을 만들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으며, 부처님을 믿고 따르리라는 서원을 한다. 가능하면 미워하는 마음까지도 일으키지 말아야 겠다고 기도를 한다. 그래서 일체 원수와 적을 만들지 말고, 기쁘고 즐거운 일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누리며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고자 한다.

부산 연꽃모임회장

경전사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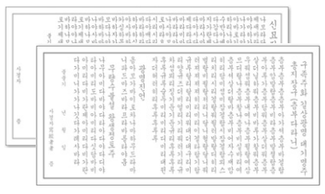


1호 반야심경(한문) 2호 금강경(한문) 3호 반야심경(한글) 4호 금강경(한글)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 가 5,000원(1권)
• 내 지 : 70장 자연색메트지 • 표 지 : 레자크지 옵셋 4°
• 제 본 : 한장본 실제본 • 크 기 : 220㎜×310㎜



11호~17호 법화경(한문)1~7
할인가 4,200원(50권 이상)
정 가 6,000원(1권)
19호~25호 법화경(한글)1~7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 가 5,000원(1권)



신묘장구대다리 / 츰부다라니
할인가 150원(500장 이상)
정 가 200원
• 구 성 : 한지낱장
• 크 기 : 636㎜×313㎜

※ 여러종류의 사경책 · 사경지가 있으니 전화문의 바랍니다!!

한지백팔사경 5종



26호 신묘장구대다라니(한글) 27호 반야심경(한문)



29호 츰부다라니(한글) 30호 반야심경(한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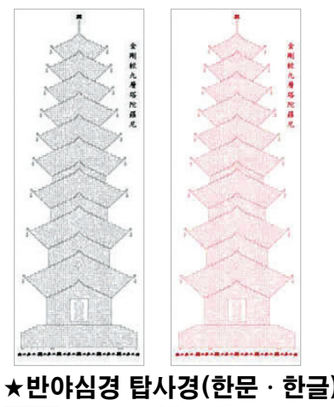
28호 대불정능엄신주(한글)

※ 26, 27, 29호, 30호는 사경책 1권을 사경하시면 108번 사경이 됩니다.
단, 내용이 많은 28호 능엄신주사경책은 4장 1조로 구성되어 책 1권에 27회 사경할 수 있으므로 총 4권을 사경하셔야 108번 사경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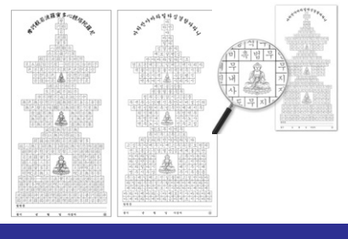
할인가 14,000원(10권 이상) 정 가 20,000원(1권)
• 내 지 : 한지 108장 • 표 지 : 레자크지 옵셋 4°
• 제 본 : 한장본 실제본 • 크 기 : 435㎜×300㎜

사경지

★금강경탑다라니 사경지(대형)
할인가 8,000원(20장이상) 정 가 10,000원
• 종이 케이스포함 / 한지낱장
• 75cm×210cm (먹색,적색)
• 손으로 직접 뜬 전통 재래 한지



★반야심경 탑사경(한문 · 한글)
할인가 150원(500장 이상)
정 가 200원
• 한지낱장 / 63.6cm×31.3cm





한지입춘대길(大/2도)
판매가 12,000원 大 (10×43cm)
10,000원 2도 (7×30cm)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경면삼매삼재부
판매가 6,000원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 크 기 : 10×15㎝ / 9×14㎝



경면삼재부
판매가 6,000원(100매)
• 크 기 : 9×20㎝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삼베 삼재풀이
할인가 800원(200개 이상)
정 가 1,0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경면한지 불설삼재풀이
할인가 1,000원(200개 이상)
정 가 1,2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한지 삼재풀이
할인가 700원(200개 이상)
정 가 9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금강경탑다라니
할인가 180원(600개 이상)
정 가 250원
• 포 장 : 봉투 삽입



[인견한지]금강경탑다라니
할인가 400원(450개 이상)
정 가 6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신년맞이기도부
할인가 800원(200개이상)
정 가 10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서적,사경지,연등,염주,향,양초,다포,4.8용품,백중용품]



어떠한 문제라도 상대 원망 말고 내 탓으로 돌려야

(지난 호에 이어서)

나는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전에는 한번 그렇게 해 보기도 했어요. 그게 스스로 돼야죠. 억지로는 안돼요. 습이 다 녹고 업력이 다 소멸되면 스스로 내가 나를 이익하게 생각하는 법이 없어요. 없어져요. 모두가 나 아님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고생해도, 붙들려서 맞아도 나는 그 사람 탓을 안 했으니까요. '아! 나를 부딪히게 해서 단련시키느라고 그러는구나.' 하고서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니까. 죄 없이 맞은 거는 빨리 낫는다고 하는 속담도 있죠. 그렇듯이 금방 괜찮아지고 그래요.

그것을 말로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한테 그 말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본인들이나 아는 거지 제삼자가 다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어쩌다가 한마디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걸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은 "남을 먼저 생각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은 드뭅니다. 공을 치면 튀어 온다고 그러죠. 분명코 치면 튀어 오는 건데도 불구하고 욕을 막 해 댄단 말입니다. 욕을 해 대면 그 욕한 것이 나한테까지 튀어 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회사에서, 또 학교에서도 그렇고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그저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내 탓으로 돌리면서 '둘이 아닌데 저 사람에게도 마음의 불이 들어오게 해서 그렇지 않게 하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 관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백팔십도로 달라져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고쳐 나가는 거지 어떻게 그걸 다 고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고치면 누가 좋으냐 하면 자기가 좋거든요, 편리하고. 앙숙으로 지내다가도 편해지거든요. 부모자식지간에도 그렇고 형제지간에도 그렇고,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그냥 의리가 나빠서 싸우고 하는 것이 다 마음 싸움이거든요. 그 업보로 인해서 모든 게 쌓이고 쌓여서 내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만났던 과거의 인연들이 또 이 세상에 나와서 다시 만나서 앙숙이 돼 가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신도님들더러 내가 그러죠. "남편을 원망하지 마라. 너도 전에 그랬잖아. 지금 네가 그렇게 당하는 거를 생각해 보면, 금방 당할 때는 알지만, 과거로부터 당해서 지금 현실에 온 것은 너는 몰라. 너도 남을 그렇게 아프게 했어. 그러니까 네 탓으로 돌려. 그러면 그것이 다 소멸돼." 그렇게 합니다. 사실이구요, 또 그게. 뭐 그걸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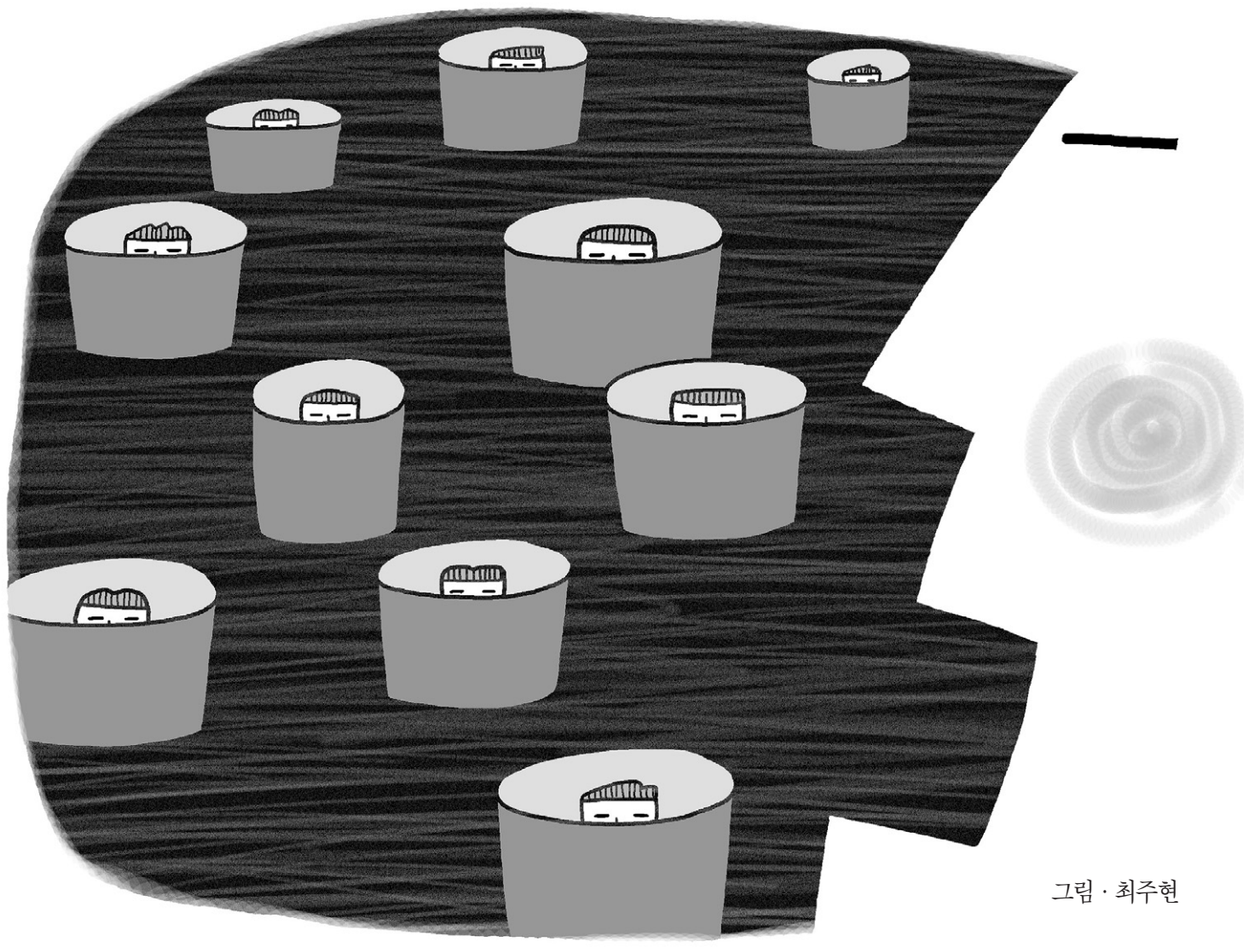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의 도리를 빨리 배우려면 이유를 붙이지 마세요. 이유를 붙이면 빨리 일심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일심으로 정진해야 하거든요. 소멸시키는 실천이거든요. 우리가 실천하는 겁니다, 지금. 정진이다 뭐다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실천해 가는 거예요. 소멸시키는 실천요. 그래서 다른 이름은 붙이지도 않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여러분처럼 아주 지식이 많고 학식이 많아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길이 없는 길을 알기 때문이죠. 길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가만히 살펴보세요. 내가 아까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요, '물에 가면 주해신이 된다. 모든 걸 자유스럽게 대치해 나갈 수 있는 주해신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기독교 믿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고 하듯이 말입니다. 이름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실천이 중요하지. 그래서 천차만별의 마음은 '그 마음이 없는 것이 마음이다.' 이겁니다. 부처라는 이름이 없는 것이 부처지, 부처라는 이름이 있는 것은 부처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북하면 '마음이 없는 것을 마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마음을 자유스럽게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자유스럽게 실천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부딪히면 아프고 또 좋고 나쁜 걸 다 뻔히 아세요. 아시는 그대로 행하세요. 그대로 행하시면서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일상생활 속에서 내 몸이 하는 거, 먹는 거, 말하는 거, 사는 거 모두 몽땅 그놈한테다 맡겨 놓고 사시면 얼마나 편리해요. 이 세상이 다 없어진다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도 돼요. 정말이에요. 여북하면 부처님께서도 그러셨나요? "허허바다에 배를 타고 가는 형국인데, 배는 네 모습이고 배 속에 있는 생명들은 네 중생이니라. 그런데 그 배를 이끌고 가는 선장한테다 진짜로 믿고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 선장이 다 알아서 가는 데까지 끌어다 줄 것을 그냥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하면서 찾고 온통 난리를 치니까 그 배는 뒤집힐 수밖엔 없다." 이거죠.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마음공부는 천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허공길의 공부입니다. 우리가 저승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무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저승의 이치를 다 알아서 대치를 해 나가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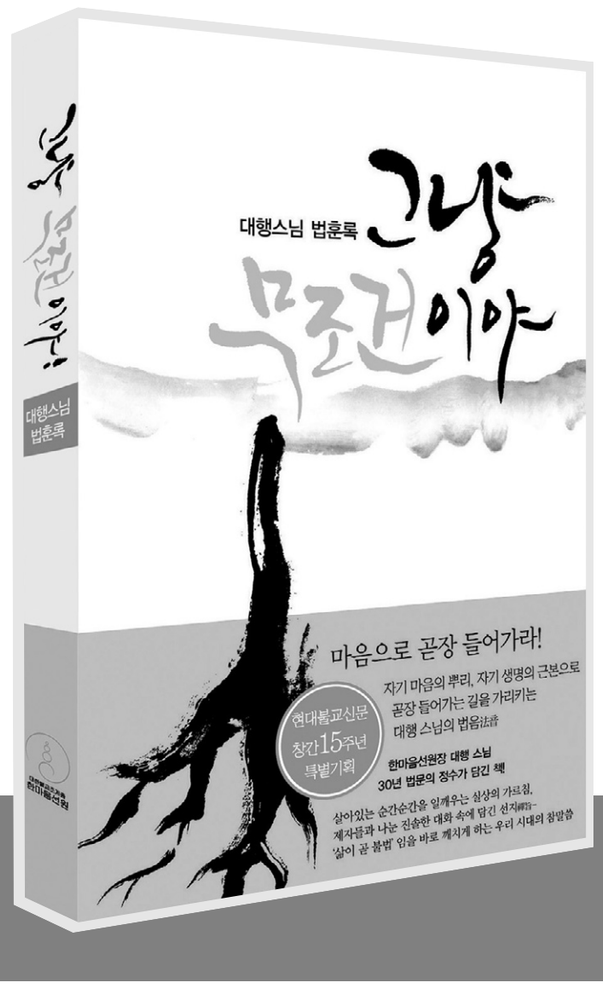
그, 여덟 달 만인가 일곱 달 만에 애를 낳았다는데 다 죽게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가 또 몇 대 손이랍니다. 몇 대까지 손이 없었대요. 아,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 부모가 이 공부를 잘 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급하니까 그냥 그렇게 지극하게 오직 그거 하나로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급하게 자기 앞에 떨어져야만 그렇게 야단법석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급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허허바다에 그냥 배 한 쪽 타고 가는 형국이거든요. 지금 살아나가는 게 그렇게 아슬아슬해요. 어느 때 차 사고가 날는지, 어느 때 떨어질는지, 어느 때 또 잘못될는지, 어느 때 식구가 어떻게 될는지 그것도 모르구요. 그냥 허허바다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 내 가슴이 얼마나…, 여러분이 들으면 얄팍한 말이라고 할는지 모르지만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개개인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만 불쌍하고 가엾은 게 아니에요. 벌레서부터 내려오면서 그 사는 걸 보면 기가 막히죠, 아주. 기가 막혀요, 그냥. 그래서 아마 화성에는 생명들이 다 없어졌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 그냥 알아서 다 사라져서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 뒤로 돌아가서 이렇게 보면 사람 살던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안 거예요. 아, 여기서도 살다가, 이 화성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살고 살고 부딪히고 부딪히고, 수백 수만 년 가다가 보니까 '사람 사는 게 이렇구나!'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모두가 그냥 화해 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마음이 보살이 된다면, 왜 저, 은비까비 금비까비 이런 거 텔레비전에서 나오죠. '은 나와라 뚝딱, 금 나와라 뚝딱' 하는 그런 사람, 보살이 그렇게 행을 하거든요. 보살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거는 만화영화에서만이 할 수 있고, 그거는 그저 그려 놓은 거고 텔레비전에서만 나오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은 나와라 뚝딱, 금 나와라 뚝딱' 할 수 있는 그런 재질을 가진 인간이에요.

나는 내 수중에 아무것도, 내 수중이 아니라 내 몸까지 없어요. 아주 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버릴 것도 없는 걸 버렸다고 했구나.' 했어요. '버릴 것도 없는 걸 버렸다고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www.hyunbulshop.com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수 있다

☞ 29면에서 계속

했구나.' 했다구요. 여러분이 함이 없이 살고 공해서 내가 따로 한 게 없구나. 내가 너무 많아서, 고정됨이 없이 그냥 항상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듣고, 만나고 또 만나고, 하고 또 하고 이러기 때문에 내가 먹었다고도 할 수가 없고, 내가 산다고 할 수도 없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할 수도 없고, 내가 돈 벌었다고 할 수도 없고 내가 망했다고 할 수도 없어요, 전부. 그렇게 없는 걸 알아야 내가 아주 자유스럽고, 어떠한 게, 뭐 집안 가족이 다 죽는다고 이렇게 와도 그냥 뻔뻔하게 앉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 우리 신도님들 중에도 때로는 간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하고 오죠.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말이 있어요. 그건 자기가 해야 할 문제예요. "병원엘 가야 되겠습니까? 안 가도 됩니까?" 하거든요. 그럼 내가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 마음 내키는 대로 해." 이럴 수밖에요. "오직, 오직…." 하는 사람은 그냥 일어서더라구요. 그런데 "아이구, 이거 당장 이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병원엘 가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누차 보고 알게 된 사실이 '아, 모두가 대신 해 줄 수는 없구나.' 하는 거죠. 다른 건 다 해 줘도 깨치는 거하고, 죽는 거, 아픈 거, 똥 누는 거, 잠자는 거, 먹는 거, 이거 여섯 가지는 아무리 해도 대신 못해 준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지혜가 풍부한 사람들은 가정에서 누가 아프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주 마음 태평하게 버젓하게 그거를 그냥 대치해 나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방방방방 뛰어요, 그냥. 내가 생각할 때는 내 몸뚱이하고 모두 다 그냥 버리면 될 거를, 저렇게 어렵게 고생을 하고 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살면 얼마나 살고, 또 죽는 날까지 얼마나 남았다고 죽는 걸 겁내고 그러나.' 하는 생각도 해 보고요.

여러 가지에요. 아주 여러 가지 말 못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이날까지 여러분한테 말을 했어도 정작 할 말 못한 것이 너무 많죠. 내가 해서 될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스스로 알면서 점점 이렇게 돼야 이게….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대로 같이 해 주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대로 같이 해 주고, 길면 긴 대로 같이 해 주고 짧으면 짧은 대로 같이 해 줘라. 이것이 바로 모가 나지 않고 둥근 거니라." 때로 이렇게 자기 몸을 보면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몸은 어디 아픈 걸 더 잘 알 거예요. 기운이 없다거나 입맛이 없다거나 또 어디가 아프다거나 이런 거는 더 잘 알죠. 딴 사람보다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알면 아는 대로 대치를 빨리빨리 해 나가야지, 이거는 대치를 할 생각은 안 하고 이거 어디가 어떻게 돼서 내 몸이 이런가. 병원에 가서 좀 검진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시간을 오히려 더 늦추는 거예요. 빨리 해결을 할 것도 말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안되십니까? 만약에 제가 어려서라도 그런 생각을 했다 하면 벌써 죽었지 여지껏 살지 못해요. 저도 사람이니까 때로는 어디가 아프기도 하겠죠. 그럼 '이렇게 아파서 돼? 아프게 만들면 너도 죽고 나도 죽어.' 허허허…. 아이, 이 몸뚱이를 집을 삼고 사는 생명들이 전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저도 죽고 나도 죽지 그럼 누가 안 죽을 수 있나요? 그런데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이러거든요. 어때요? 죽는 거를 그렇게 대단스럽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요, 내일 죽든 오늘 죽든 이따가 죽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요, 부모를 두고서 자식이 먼저 죽는다거나, 또 부모가 자식들을 많이 두고서 먼저 죽더라도, 죽으면서 그 자식들을 괴롭힌다거나 이런다면 그 부모된 마음은 상당히 괴로울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죽는 방법, 그것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하하하…. 남을 괴롭게 하면 나는 그 몇십 배, 몇백 배 더 괴로우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남도 사랑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실천을 하는 것이 자비에요. 실천은 자비고 사랑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안 하더라도 사랑한다고 해야 상대가 좋아하니까 "사랑한다." 이렇게 좋게 말해 놓고 자꾸 그러다 보면 진짜로 실천이 되죠. 그러면 그게 자비에요. 그래서 그 한 가정이 화합해서 좀 화목하게 살려면 거짓 아닌 거짓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거짓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더라도 그 가정을, 상대방을 편히 행복하게 해 주기 위해서 "참 당신 고생해. 사랑해." 이렇게 말 한마디 하는 데서 그 웅크려졌던 모든 마음이 다 스르르르 녹거든요. 그 마음이 녹으면요, 애들한테도 신경질 안 내요. 또 부모 모시는 사람은 부모한테도 신경질 안 내구요. 그런데 웅크려진 걸 더 웅크려지게 말 한마디를 툭 해 버리면요, 그 양쪽을 다 불안하게 만들게 되죠. 한 가정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지키고, 또 나라 일과 사회생활을 잘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고생을 아무리 했어도 말 한마디만 그렇게 잘 해 주면 그 고생한 게 다 스스로 녹아지는데, 돈이 드니 못해요, 왜 못해요, 글쎄? 그런데도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마음인가 보죠?

그러니까 거짓이 거짓이 아니라, 우리는 지혜롭게 방향을 이끌어나가는 큰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거죠.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자기가 하고 사는 거예요? 그 업식이, 업보가 거기에 뭉치고 뭉쳐서, 화가 불끈 일어나면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막말을 해 대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게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니에요. 뭐 질문하실 거 있어요?

여러분이 나한테 '아이구, 저이는 저런 말만 만날 한다' 고 재미없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인생을 어떡하면 단 한 시간이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저녁에 자리에 누우면 참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지, 불편해서 그냥 잠도 못 자고 일어났다 앉았다 이러시면 그게 사람 사는 겁니까, 어디?

> 이 마음공부를 빨리 배우려면 이유를 붙이지 마세요.
> 이유를 붙이면 일심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 이것은 일심으로 정진해야 하거든요.
> 우리가 실천하는 겁니다, 지금.
> 정진이다 뭐다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 하나하나 실천해 가는 거예요.
> 소멸시키는 실천 말입니다.

질문자1(남): 스님께서는 늘 사람 몸 받기가 어렵고 불법 만나기가 어렵다고 그러셨는데, 공부를 해 가면서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뭔가 알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요, 공부 좀 한다고 하다 보니까 스님께서는 늘 "어묵동정 행주좌와가 모두 선인데 무슨 특별한 선을 하느냐." 이렇게 일러 주셨어요. 그런데 요즘이 안거 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스님들께서 안거 행을 하시는 그런 뜻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큰스님: 안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이 마음공부 하는 데는, 선에는 안거라는 것이 특별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제를 했다 하더라도 선이고 안거를 했다 하더라도 선이에요. 해제했을 때는 지구가 안 돌아가고, 또 안거했을 때는 지구가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는 것도 그래요. 안거했을 때는 우리가 살고 있고 해제했을 때는 우리가 죽나요? 그게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공부 하는 데는 누워서 잘 때 와선, 서서 다닐 때 입선, 또 일을 할 때 행선, 앉아 있을 때 좌선, 이것이 전부 네 가지가 송두리째 그냥 요만큼도 끊어지지 않고 참선이 된다 이거죠.

질문자1(남): 예, 잘 알겠습니다. 스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선의 기회를 갖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큰스님: 네. '선이라는 이름 없이 참선을 하고 간다, 끊어지지 않게.' 이런 거죠.

질문자1(남):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답변을 해 주셨어요. 공부하다 보니까 삼독(三毒)을 좀 없애야 되겠다 싶어서 공부를 하면서 지켜보는데, 탐(貪)이나 치(癡)는 미리 예방을 하고 들어가니까 좀 덜한데요, 진(嗔)은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튀쳐나와서 구업(口業)과 신업(身業)을 막 짓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오늘은 삼독에서 벗어나는 하루를 지내야지.' 하고서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튀쳐나옵니다, 진(嗔)이라는 놈이. 그거를 막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큰스님: 하하하…. 그래서 내가 항상 이러지 않습니까. 잘못 나오든지 잘 나오든지 간에 잘 나오는 거는 '주인공, 감사해.' 하고, 또 잘못 나오는 거는 '너만이 잘 나오게 대치할 수 있잖아.' 하고 거기다 놓으란 얘기죠.

질문자1(남): 놓고 또 놨는데요, 결과적으로 짓고 말았습니다, 업을.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큰스님: 업을 지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업을 짓는 거죠. 이게 내가 함이 없이 하는데 업이 어떻게 지어집니까? 그 지혜가, 머리의 지혜가 안 돌아가는 게 바로 업이에요.

질문자1(남): 예를 들어서요, 어떤 경계가 왔을 때, 욕을 하고 손찌검을 했을 때 이것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습니까, 하는….

큰스님: 벌써 그렇게 벌어지려고 할 때에 '주인공, 너만이 그러지 않게 할 수 있어.' 할 때는 반드시 손찌검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것을 못 믿거든요. 분이 이런 게 일어나는 게 그냥 주먹부터 가지, 자기가 자기를 다스릴 수 있나요?

질문자1(남): 글쎄, 그래서요, 이제 탐심 같은 거는요 아, 이것은 탐에서 왔다, 이것은 어리석은 것에서 왔다 하는데 진이라는 놈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생각할 여유도 없이 튀어나가기 때문에 어떤 훈련을 하면 되나 해서 여쭤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큰스님: 훈련은 그 훈련밖에는 없어요. 그냥 업지은 대로 입력이 나오는 거를 현재 나오는 그 자리에다 되입력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질문자1(남):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큰스님: 그리고 옛날에, 그 얘기를 하시니까 생각나네요. 옛날에 어느 성현이 제자들한테 금 한 덩어리씩 주면서요, "너 이거 가지고 밑천을 해서 더 늘리든지 어떻게 해 봐라." 그러고 줬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은 그냥 그거 없어질까 봐, 망할까 봐 금덩어리를 장 속에다 꼭 넣어 놓고는 꺼내지도 않고, 한 사람은 그걸 가지고 가서 늘려서 금덩어리 몇 개를 만들고, 한 사람은 금덩어리를 가지고 가선 망하고 그랬대요. 그래, 세 사람 중에 어떤 게 제일 괜찮겠어요?

대중속에서: 늘리는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큰스님: 하하하…. 그런데 망한 사람은 그 마음의 지혜를 다 얻어서 금덩어리보다 더 중한 거를 얻었더래요. 그리고 또 금덩어리를 많이 불린 사람은 지혜로워서 그렇게 금덩어리를 많이 불렸구요. 또 장 속에다 넣어 놓고 꺼내지도 않은 사람은 옹졸해서, 마음이 지혜롭질 못해서 자기 거 그대로 그냥 거기다 놓고 살기 때문에 보살이 못 됐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리에는요, 악이다 선이다 이런 게 없어요. 왜냐? 그냥 수시로 대치해 나가기 때문이죠.

그럼 오늘 마칠까요? 제발 빕니다. 그저 정진이라는 말도 말고 그냥 그저 끊임없이 닥치는 대로 모든 건 나오는 대로 그 구멍에다가 다시 놓으세요. 감사하다고 놓고, 또 '너만이 대치할 수 있어.' 하고 놓고요. 또 좀 조용하게 앉아 있을 때는 '너만이 네가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 이렇게 하구요.

※위 법문은 1998년 12월 6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대원큰스님 참선 안심법회



禪定의 힘으로 삶의 뜻을 밝히자!

참선 안심 법회는 영원한 생명, 무한한 능력, 찬란한 광명이신 부처님 말씀을

부산 롯데호텔 대연회장에서 3일동안 무료로 공부합니다.

불자 여러분! 영생해탈과 운수대통은 자성에 있습니다. 성불하십시요.

법 회 일 : 2013년 양력1월29일 ~ 31일까지(3일간)

법회시간 : 매일 오후 7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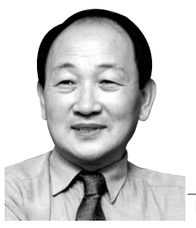
법회장소 : 부산 롯데호텔 대 연회장

주 최 : 대한불교 조계종 학림사 오등선원 부산불자 모임

연 락 처 : 051-553-5258 / 042-825-1724

범하 스님을 추모하며

성보문화재 보존 기틀 만든 선구자



윤범모
미술평론가, 가천대 교수

"스님, 스님, 범하 스님, 왜 이렇게 서둘러 가셨나요."

슬프다. 더 이상 할 말이 무엇이 있겠는가. 정말 아쉬움의 범벅이다. 세수 66세라면, 한참 활동할 전성기의 연령이 아닌가. 정말 경로당에서조차 푸대접 받을 나이다. 그런데 뭐가 그리 급했을까. 범하 스님의 부음을 듣고 나는 오랫동안 멍하니 있어야했다. 정말 그랬다. 만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별 하나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가슴으로 안아야 했다. 진정 스님은 별이었다. 깜깜한 밤에 초롱초롱 빛나는 별이었다. 스님은 불교문화유산으로 펼쳐진 무한한 창공에서 독자적으로 빛나던 별이었다. 때문에 고독했을 것이다. 가람에서 성보 문화재의 수집, 보존, 연구, 전시, 교육, 포교 사업을 제대로 일구어내기 위해 얼마나 고군분투의 가시밭길을 걸었을까.

스님과 나는 학생신분으로 동악에서 처음 만났다. 첫인상부터 스님은 학승의 분위기로 가득했다. 학창시절 이후 나는 통도사에서 머물며 신세를 지기도 했고, 서울에서 만나게 되면 다담을 나누기도 했다. 세월이 흐르자 스님은 불교문화재 분야 전문가로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아, 우리나라 사찰에도 불교문화 유산 전문가 스님이 출현했구나!"

이는 정말 획기적 사건이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참선 제일주의의 조계종 분위기에서는 하나의 파격이었다. 한국불교의 전통은 화려한 성보문화 유산의 창출이리라. 하지만 전통이 아무리 화려하면 무엇하는가. 구슬이 서 말이라 해도 꿰어야 보배가 아닌가. 구슬을 꿰어 뭔가 만들어내는 우리의 불교는 이같은 역할의 출가승이 절실했다. 바로 그 자리에 범하 스님이 계셨다. 정말 깜깜한 밤의 빛나는 별이지 않을 수 없었다.

드디어 범하 스님의 시절인연이 도래했다. 1987년 통도사는 성보박물관을 신축하고 개관식을 거행했다. 통도사 성보박물관은 한국 불교박물관의 모범이었고, 또 우리들에게 성보문화재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성보박물관 개관 무렵 초대 관장 소임을 맡고 있던 범하 스님의 호출을 받고 통도사로 달려갔다. 나는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 경험자로서 스님의 박물관 개관 사업을 옆에서 거들었다. 도록에 해설 원고를 쓰고, 작품 진열을 맡는 등 개관 준비에 힘을 보탰다.

정말 통도사 성보박물관의 개관은 역사적 사건이었다. 개관 행사 당일 고승대덕 스님은 물론 수많은 사부대중이 모여 행사장을 빛내주었다. 하지만 나는 개관식 식순을 사전 점검하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보통 우리네의 상식 같으면 박물관 관장은 개관식의 주인으로서 환영인사를 한다. 주인으로서 인사말씀을 해야한다는 나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스님은 한마디로 거절했다. 스님은 오히려 사회석으로 가 마이크를 잡고 진행을 보았다. 그러니까 박물관 개관에 따른 모든 영광은 다른 분들께 돌리고 관장 스님은 개관식에서조차 일꾼처럼 겸손한 자세로 생색을 내지 않았다. 아, 범하 스님!

범하 스님의 전문성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받으면서 더욱 빛나게 되었다. 나 역시 문화재위원으로 활동했지만 스님과 분과가 달라 자주 만날 기회는 없었다. 하지만 박물관 관장으로서 발군의 실력은 조계사 경내에 신축 개관한 불교중앙박물관의 책임을 맡으면서부터다.

스님은 전국 단위의 불교문화재를 재인식시키면서 불교박물관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 스님은 통도사에서 괘불을 전시하면서 한국 불화의 가치를 재인식시키더니 드디어 불화전집 발행이라는 대작불사를 추진했다.

범하스님의 위대한 업적 가운데 제일 먼저 꼽고 싶은 것은 〈한국의 불화〉 출판 사업이다. 20년간 공력을 들인 이 40권짜리 불화전집은 대한민국 출판역사상 빛나는 금자탑으로 꼽힐만하다. 광화문 부근에서 개최했던 불화전집의 회향식에서 나는 범하 스님과 석정 스님께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할 위대한 대작불사라고 감사의 뜻을 전한 바 있다. 정말 그랬다. 불화전집은 가람 하나를 새로 창건한 것보다 더 위대한 현대판 문화불사였다.

이 같은 문화 불사를 담당할 전문가 스님이 입적했다니, 그저 아쉽고,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나저나 스님의 부재가 왜 이렇게 커 보일까? 왕생극락하십시오! 범하 스님!

불교계 자살 상담 사례

프로야구 선수이자 故배우 최진실 씨의 남편이었던 조성민 씨가 자살로 1월 6일 생을 마감했다. 최진실, 최진영 남매에 이어 남편까지 연이어 자살하는 비극이 일어난 것이다. 이들의 잇달은 죽음으로 다시 자살의 경각심이 대두되고 있다. 불교계 상담기관에 접수된 자살 상담 사례를 정리했다.

비관의 습관화 자살 불러… 生의 중요함 느끼세요

자살욕구가 있는 20대 남성

26세 남자는 전화 통화시 자살 사이트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을 정도로 자살 욕구가 높았다. 여성상담사에게 상담받으려하여 자연스럽게 여성상담사에게 상담받으려는 사유를 질문하며 상담을 진행했다.

오랜 상담동안 신상을 비관하며 상담을 받아도 별로 효과가 없다는 말에 내담자 자신이 하기에 달려있다고 격려했고 긍정적인 답을 얻을 수 있었다.

내담자는 어렸을 때 집안에서 천덕꾸러기였으며 친어머니의 얼굴도 모른 채 새어머니에게 양육됐다. 어렸을 때부터 새어머니에게 폭행을 당해 고교 때는 수차례 가출한 경험도 있었다. 또 막내로서 이종 누나들에게 많은 서러움을 당했는데 그때부터 술을 자주마시고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 내담자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변화해야 함을 알게 하는 데 중점적으로 상담했다.

대인기피증이 생긴 40대 남성

40대 남성 내담자는 11년간 직장생활을 하며 그나마 생계가 유지가 됐는데 1년 간 일을 하지 않아 극심한 생활난에 빠져있는 상태였다. 일을 그만두게 된 것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장에서 물건을 절도했고, 재차 절도를 하게되며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신용불량자가 됐는데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 보기가 어려워 감기약을 사모으고 낚시용 회칼을 소지하고 다닌다고 했다.

상담 전화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경청하자 이 남성은 눈물을 흘리며 심리적 안정을 찾았다. 아내와 아들이 의지하는 그 기대만큼 더욱 열심히 살아야 함을 전하고 용기를 주는 데 상담의 주안점을 뒀다.

그동안 성실히 직장생활한 기억을 떠올려 다시 성실한 삶을 산다면 삶을 회복할 수 있다고 조언하자 의욕이 생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불륜으로 우울증에 걸린 여성

여교사로 목사인 남편의 불륜으로 인해 우울증을 겪고 친정에 있던 상태였다. 3월 복직 예정인데 심한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교사생활이 힘들다며 상담을 요청했다. 내담자는 장녀로서 어머니도 우울증을 겪고 있어 더욱 가슴이 무겁다고 털어놨습니다. 또 매일 밤 남편이 나오는 악몽을 꾼다고 했다.

내담자에게는 정신과 상담을 권하고 평소 종교인이었던 내담자이기에 종교활동을 권했다. 또 인생 전반에 있어 결혼 생활의 과정에 대한 얘기를 통해 내담자가 받은 충격을 많은 이들도 받고 있음을 전했다.

추후 대구 심리상담센터를 소개했고 매주 1회 상담을 받았다. 약물 치료와 함께 지속적인 상담으로 불면증과 우울증 등을 극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부채로 자살충동이 있는 30대 여성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내담자는 부채, 일수이자가 증가되며 압박감으로 인한 심리부담이 컸다.

내담자는 원래 밝은 성격이었으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운 단점도 있었다. 현재 부모님 중 어머니만 남은 상태로 8살 차이가 나는 언니에게는 신세를 지기 싫다고 말했다.

충분히 공감하고 경청한 끝에 힘들겠지만 생명이 소중하므로 어머니와 언니에게 문제에 대해 도움을 청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전문가에게 문의해 채무변재 등을 취할 것을 조언했다. 또 혼자 생활하며 술을 마시고 비관하는 것이 습관화되면 자살위험이 높으므로 술을 자제하고 살아있음의 소중함을 느끼라고 상담했다.

社說

종교인 과세, 숙의 통해 이뤄져야

'종교인 과세'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연일 매스컴들은 정부가 종교인 과세에 대한 방침을 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에 이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는 "정해진 바는 없다"고 진화했지만 내부적 검토와 논의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06년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가 이의를 제기하며 공론화된 종교인 과세는 당시 논의가 그다지 확대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3월과 5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잇달아 "종교인 과세 문제는 공론을 거쳐 의견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다시 불씨를 당겼다.

종교인 과세는 사실상 시대의 흐름이 됐다. 지난해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한국의 사회 · 정치 및 종교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종교인 소득세 부과에 대한 질문에 국민의 71%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는 2011년 조사보다 30% 가까이 확대된 수치다. 종교인도 국민의 일원인 만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은 것이다.

불교계도 이전과는 다르게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이미 '종교인 과세'가 시대적 흐름이 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세 적용은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사실 교구본사와 일부 도심 사찰들을 제외하면 복잡한 세무행정을 할 수 있는 사찰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명 조세의 형평성을 생각한다면 종교인 과세도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하지만 섣부르고 조급한 정책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당장 세수 확보를 위해 급히 시행할 이유도 없다. 사실 일부 목사를 제외하면 실제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종교인은 많지 않아서다. 되려 부대비용만 드는 꼴이 될 수 있다.

정부도 '여론 몰이'식 제도 시행이 아닌 종교계와의 신중한 논의와 숙의를 진행해야 한다.

불교 사회적기업 확산 필요하다

장기 불황의 시대다. 그럼에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자영업자 수는 크게 늘었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 8년 동안 해마다 자영업 60만 곳이 문을 열었고, 이중 58만 곳이 폐업했다. 아예 본점이 문을 닫아 지난해 등록 취소된 프랜차이즈 상표만 600건에 달한다. 창업 열기는 뜨거웠지만 성공 확률은 3%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이 같은 결과는 자영업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로, 전통적인 자영업이 아닌 새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로부터 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세금 등 전폭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공익적 목적을 실천하면서도 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다. 주지하다시피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생산과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불교계도 2011년부터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시작했고 이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 날마다 좋은날(이사장 이기흥) 불교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개최하는 불교계 사회적기업 창업아카데미를 통해 2곳이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됐다. 지난해 11월에는 불교사회적기업네트워크데이 행사가 열려 많은 호응을 받기도 했다.

오는 25일부터는 4기 창업아카데미가 진행된다. 불교계 사회적기업의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다면 관심을 가지고 들어볼 만 하다.

또한 불교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불교적인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고 경영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 산 지 사	박 경 수	010-9822-8345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0-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찬덕불교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오색공단등


칼라(보카시)연등


공 단 등


영 가 등



종 등



팔 각 봉 축 접 등





왕생극락접등





주 름 등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안산 월강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보급형 위패


고급형 위패


용주사 LED 인등


윤장대 인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종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료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 www.chanduk.com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법어가 담긴 에코컵

한 잔의 여유와 함께 마음을 음미하다...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종이컵은 무려 120억개 이상!
이만큼의 종이컵을 만들려면 무려 1000억원이 들어가고
7만 783톤의 천연펄프를 수입해야 하며 나무 1500만그루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1년 소비를 위한 종이컵을 생산할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13만 2천톤 4725만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흡수할 수 있는 양이고요
종이컵 1개를 만들때 사용되는 물은 200리터 120억개면.. 여기서 끝은 아니죠?
재활용비율 13.7% 처리비용만으로도 연간 60억원이 들어가고
종이컵 1개가 썩는 데는 무려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size check



보관도 편안하고 공간도 적게! 차곡차곡 쌓아 보관하세요
일반 머그컵보다 작고 종이컵보다는 큰 크기!
알맞은 크기로 커피 타 마시기에도 안성맞춤!

종 류	구 성	판매가
A set	마 음 + 대장부	9,000
B set	마 음 + 마 음	9,000
C set	대장부 + 대장부	9,000
3세트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택배비 3,000)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